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지혜의 바다는 중생의 부러이고
진리의 꽃은 중생의 바람이다.
그러나 중생은 업이라는 장애 때문에
늘 그것을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
-백운스님-

#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 737 8881 구독문의 02) 737-0080 www.buddhapia.com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4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 266 호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시절불상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하루에 한번 클릭으로 전세계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는 세계적인 식량돕기 사이트(www.thehungersite.com)와 연계해 클릭 한번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실 이웃을 돕고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업을 짓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한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입장이다. 그런데 인터넷이 마련한 사이버공간에 개설한 불우이웃 돕기 코너들은 수고스럽게 행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고 또 방법도 다양하다.

서울 우이동 도선사 신도 K씨는 몸에 흉터가 있다. 그 거사는 그 흉터가 보기 싫지만, 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 가는 일이 비용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쁘죽한 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서핑하다 우연히 무료로 흉터제거 수술을 해 주는 곳을 보고 신청해 지금은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다. 수술 결과가 좋아 지금은 더없이 행복해 하고 있다.

### 인터넷시대 박차라도 타자
###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 불우이웃돕기 코너 등
### 정 넘치는 사이버공간

이쯤되면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도구가 되며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열린 공간이 된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정보가 무료다. 심지어 이용자를 모으기 위해 돈을 적립해준다거나 사은품을 배달해주는 등 사용자들 구미에 맞는 상품들이 다양하다.

그러나 접속해보면 클릭 횟수만 늘려 이익을 보려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익창출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이다. 인터넷으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 훈훈한 정을 나누는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위영란 기자(yryu@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외환은행 189-13-03929-3
국민은행 827-25-0020-943
농 협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 3명중 2명 "오계 잘 모른다"

### 승가대 유승무 교수 '재가불자 信·解·行' 설문

### "육바라밀 안다" 34%…"연기법 확신" 49%
### 신행생활 불만족 52%…변화 필요 73%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삼법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불자들이 24.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육바라밀은 34.2%, 팔정도는 23.4%, 오계는 34%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6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개최한 신행혁신 세미나에서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와 박수호(고려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씨의 '설문조사를 통해 본 신앙형태'를 통해 밝혀졌다. 설문조사는 재가불자의 종교성을 신(信), 해(解), 행(行)으로 문항을 나눠 실시했으며, 수거된 448부를 토대로 분석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믿음(信)의 경우 '깨달음(법)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74%가 '예'라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도 26%를 차지했다. 또 연기법의 실상을 확신하는 사람도 49%에 불과했으며, '삶은 고(苦)'라는 대답도 43%밖에 안돼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연기법과 사성제에 대한 믿음이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해(解)의 실태를 보면 재가불자들의 52%가 현재 자신의 신행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며, 재가불자의 73.4%가 자신의 신행활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단이나 중앙신도회등 중앙기구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20%가 '매우 필요하다'고 밝혀 신행체계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자들이 가장 자주 실천하는 신행(行)활동은 염불(28.3%), 참선(20.7%), 절하기(15.4%), 법회참석(14.5%)순으로 응답했으며, 신행활동중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생(27.8%), 참선(21.5%), 측원기도(21.3%)등을 꼽았다. 법회참석의 경우 1주일에 한번(46.7%), 한달에 한번 41.2%)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자의 58%가 사찰 및 직장, 연합신도단체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감(57%)이 강하고 참여(58%)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자들은 기초교리에 대한 낮은 이해에도 불구하고 신행생활은 왕성하게 실천하고 있는 이중구조의 양상을 띠었다. 이는 교리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실천의 밑바탕이 되지 못하고 상호 독립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행구조의 이중성을 좁히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는 "부처님 가르침을 철저히 믿는 신념체계와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실천행을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혁해 나가는 과제를 신행혁신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원리를 활용하여 교리교육 강화, △대승적 믿음 구조를 신행의 사회성으로 강화, △기존 신행행태의 개혁등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명을식(한마음선원 신도회장) 중앙신도회 부회장도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불자다워지고 불교다워질 수 있도록 신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 5월 7일 종로거리 연등축제

###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주요행사 일정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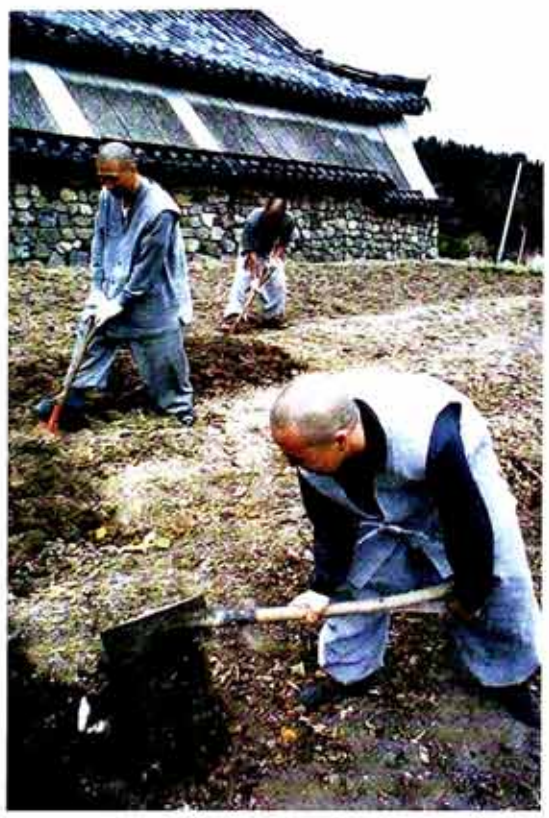
불기 2544년 부처님오신날을 장엄할 주요 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봉축 법요식은 5월 11일 오전 10시 조계사와 전국의 사암에서 봉행하며, 이에 앞서 연등축제는 7일 동대문운동장과 종로거리에서 펼쳐진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정대 종단협의회장, 집행위원장 원택)는 6일 올 봉축행사를 △자비의 사회적 실천 확대 △등(燈)문화의 향상 △연등축제를 전통문화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광주·전남 봉축위원회는 28일부터 부산발전기원 3천배 참회정진(부산역 광장), 뮤지컬 '오, 부처님' 공연(대구시민회관), 영·호남을 위한 열린음악회(광주 무각사) 등을 벌인다. (주요행사 일정 3면)

봉축위원회는 특히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인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를 실현하기 위해 사찰과 소년소녀가장과의 자매결연, 사찰 내 봉사조직 결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은 복지시설 방문과 자비릴레이봉사, 불교인권문화제를 개최한다.

정성윤 기자(swjung@buddhapia.com)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경남 진해 성흥사 스님들이 절 뒤켠 채마밭으로 봄맞이를 떠났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북돋아진다. 마른 것과 젖은 것을 뒤섞어야 씨앗이 움틀 대지가 된다. 봄은 흙을 밟고 있는 발바닥으로 온다.

사진=고영배 기자

# 정부, 달라이라마 방한 거부

### 외교부차관 "시기상조"

한국정부는 최근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위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은 4일 조계사 인근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회의실에서 73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을 위한 범불교대책위'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분단의 현실과 중국과의 정치·외교·통상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시기상조"라면서, 최근 인도 뉴델리대사관을 통해 이같은 한국정부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불교대책위는 "문화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찾고 국민의 종교·인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 NGO와 연대해 오는 10월 '아셈 2000 민간포럼'에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불교대책위는 29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달라이 라마 방한 성사를 위한 대법회를 개최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 종교지도자 금강산 순례
### 5월 1~4일, 150여명 참석

불교 원불교 개신교 등 우리나라 7대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금강산 순례에 오른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최창규 성균관장)는 4일 회의를 열고 7대 종교지도자와 온겨레손잡기운동 유공자 등 모두 150여명 규모로 금강산 순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은 5월 1~4일까지다.

주요 프로그램은 특별강연회(주제 및 연사는 미정), 선상음악회, 남북종교교류활동 사진전 및 VTR 시청, 평양교예단 공연 관람 등이다.

정성윤 기자

무선인터넷 단말기로 법문도 듣고 쇼핑도 하고

## 현대불교-프리즘정보시스템 제휴
## 5월 중순 '불교정보서비스' 시작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왼쪽)과 나인석 프리즘정보시스템 사장이 제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 단말기로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쇼핑도 즐길수 있는 '무선불교정보서비스'가 5월부터 선보인다.

현대불교신문사(대표 김광삼)는 6일 무선정보서비스 벤처기업인 프리즘정보시스템(대표 나인석)과 '무선네트워크 불교정보서비스' 제휴협약을 체결, 이르면 5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법문·뉴스·경매·쇼핑 등 본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멀티미디어로 개발하고, 이를 프리즘정보시스템이 네트워크화 해 무선인터넷단말기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동통신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 이용하는 '무선정보서비스'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무선 네트워크 분야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의 세계를 공부하는

봉행 한국고승 초청 제10회 법왕사 경율론 삼장 백고좌(百高座) 대법회



법왕사 용두관음상

대한불교 조계종 비슬산 법왕사 주지 實相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 비슬산 법왕사에서는 부처님 출가일인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1백일간 한국 불교의 큰스님 1백인을 초청, 법문을 듣는 백고좌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두루 공부하는 「경율론 삼장의 세계」를 주제로 전국의 고승대덕들을 법사로 초청합니다. 불자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 법회기간 중에는 점심공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6월 20일에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합니다.
• 법회기간중에는 영가천도 49재와 100일 기도를 동시에 봉행합니다.
• 백고좌법회에 ,법사로 모시고 싶은 스님 추천을 바랍니다.
• 백고좌법회에 동참하실 전국의 사찰이나 각 신행단체는 미리미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회 일정

일시 : 불기 2544년 3월 13일 ~ 6월 20일(100일간)
장소 : 법왕사 큰법당(대구 수성구 파동 산 116번지)
시간 : 오전 10시 30분(108배) 11시 30분부터 법문
문의 :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 9088)

◈ 동국대 교수초청 야간대법회
· 기간 : 4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7시 법왕사 큰법당(3개월)

◈ 불교대학 중급반 《대승기신론》강좌
· 일시 : 4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운문사 일진스님
· 장소 : 법왕사 큰법당, 90분간 강의

◈ 법왕합창단 합창발표회
· 일시 : 6월 9일 오후 7시
· 장소 : 대덕문화회관
· 지휘 : 유양환(법왕합창단 지휘자)
· 특별출연 : 시명스님, 정륜스님 모리터국악원 류연경 선생님외 7인

◈ 모이자! 6월 20일 실내체육관 백고좌 회향법회장으로
· 제1부(오후 1시) - 고산스님 초청 불명 및 보살계 수지 대법회
· 제2부(오후 2시) - 제10회 백고좌법회 회향식, 법왕상 시상식
· 제3부(오후 2시 30분) - 공연, 어울마당, 불자연예인 초청

# 불교 통일운동 '새바람'

## 통일후 포교대책 찾기 종책개발

## 남북 문화재교류 등 문화운동도

불교계 통일운동이 남북한 불교단체간의 접촉에서 종책 개발과 문화운동이라는 새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교계의 포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달 하순 창립 예정인 조계종의 가칭 '한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정책·기획, 남북불교교류, 조사연구 등의 위원회를 두고 △북한 불교문화재 조사 및 복원 △남북불교교류와 함께 △통일종책 수립을 위한 연구 △통일의식 고양을 위한 대중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 사회부의 전형근 과장은 "올해 4차례 토론회 및 심포지엄을 열어 우리 안의 분열을 먼저 극복하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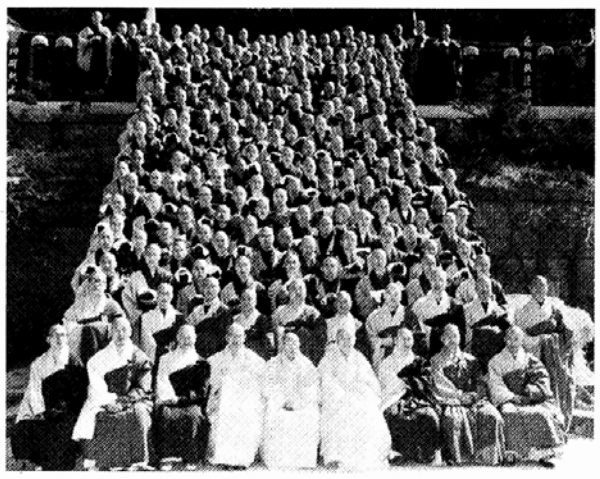
매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새시대불교포럼(대표 박승원)은 5월 8일 '통일문화운동'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실무준비를 맡고 있는 노귀남씨는 "지금까지의 불교계 통일운동을 비판적으로 점검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생활문화로서의 통일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통일문화'를 주창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불추위, 상임집행위원장 명진)도 교계 단체와의 연대, 통일정책 워크숍 개최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대북접촉과 함께 통일분위기 확산 쪽으로 성격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교계 통일운동이 종책개발과 문화운동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은 조불련이 갖고 있는 한계가 뚜렷해 접촉 성과가 크지 않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조불련이 북한불교를 대표하는 간체이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종교단체는 관료집단의 하위기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처럼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 8.15 남북동시법회 개최 이상의 남북불교교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계 통일운동가들의 지적이다. 남북불교교류의 조건으로 조불련에서 금전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조불련과의 접촉을 소극적이게 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통일대비의 성격도 짙다. 유지원 불추위 사무총장은 "50여년 동안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통일 후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포교사의 양성은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불교계의 포교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은 3일 해인사에서 제18기 행자교육원 회향법회를 갖고 사미(니) 307명을 배출했다.

## 신도회장단·종무원 재교육

### 조계종 포교원, 송광사서
### 광주·전남지역 사찰대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4월 15~16일까지 순천 송광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사찰신도회장단 및 신도간체 임원, 종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신도교육을 강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도법이 기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신도재교육에서는 '재가지도자의 임무와 역할' '지역 포교현황과 과제' 강의와 사찰예절, 발우공양, 분과토론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번 송광사 첫 신도간부 재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신도교육교재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교육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신도회 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는 지난 2월 산하신도회를 교구신도회에서 지역신도회 중심으로 정관을 변경한바 있다.

김원우 기자

## 사미(니) 307명 배출

### 조계종 18기 행자교육원

조계종 제18기 행자교육원 회향 및 수계법회가 3일 해인사 보경당과 대적광전에서 봉행돼 사미 182명, 사미니 125명이 탄생했다.

3월 12일 개원된 후 23일간 계속된 이번 행자교육원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의 갈마를 거쳐 입교한 311명중 10명이·중도 탈락하여 301명이 수료했으며 지난해 계를 받지못한 6명을 포함, 모두 307명이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이 숫자는 지난 91년 행자교육원이 개원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들중 외국인으로는 자은사미니(미국명 메이슨 조안, 화계사)가 홍일점으로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또한 이번 행자교육원 회향식도 속가가족들에게 문호를 개방, 가족들은 꽃다발을 건네주며 중생의 사표로 거듭나는 사미(니)들의 전도를 축복해줘 눈길을 모았다.

경학 율학 예경의식 습의 참회정진 3천배용맹정진 삼보일배등의 교육과정을 끝낸 사미(니)들은 출가발원문을 통해 "부처님 말씀으로 모든 이의 마음에 광명을 일깨워 주는 스님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염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 조계종 기초선원
### 봄 교과안거 해제

대한불교조계종 기초선원(선원장 영진)은 3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봄 교과안거 해제식을 봉행했다. 3월 7일 결제에 들어간 봄 교과안거에서는 사미 86명과 사미니 41명등 127명이 수료했다.

이들은 한달간 동화사 대승사 백담사 동화사 양진암과 부도암등 기초선원 지정도량에서 집체교육과 좌선실수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했다.

이윤호 기자

### 국내·외 장학승 선발
### 조계종, 8월31일까지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8월 31일까지 2000년도 국·내외 장학승을 선발한다.

교육원은 장학승선발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선발대상 개인에서 단체까지 확대 △재출서류 간소화 △논문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다.

교육원은 이번부터 장학승 선발 방식을 신원조회와 종헌적용에 의거했던 기존관례에서 완성된 연구결과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논문심의로 변경했다. 김원우 기자

### 용주사 주지후보 정락스님



조계종 2교구본사 용주사는 4일 산중총회를 열어 정락스님(현 주지)을 주지후보자로 선출하고 총무원에 임명을 품신키로 했다.

선거인 146명 가운데 80명이 참석한 이날 산중총회에서 정락스님은 69표, 운산스님은 9표를 얻었다.

정락스님은 59년 전북 김제 흥복사에서 전강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63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수원포교당 주지와 5, 7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규정부장과 기획실장, 포교원장을 역임했으며, 96년부터 용주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다. 정성운 기자

### 사찰생태 문화답사
### 남원 실상사서 29·30일

사찰의 문화와 생태를 연구하는 '사찰 생태문화 답사'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주최로 4월 29~30일 이틀간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다.

사찰과 자연생태계의 조화, 문화재의 조성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고 불교의 생명 사상을 체험함으로써 불교계 환경의식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답사는 맑고향기롭게,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주관하며 중앙신도회가 후원해 분기별로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 '불교 도메인' 지킨다

### 동국대 전자불전연 파킹프로그램 개발

불교 관련 도메인이 타종교인 도메인 사냥군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스님)가 최근 도메인 파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메인 페트롤'을 자처하고 나섰다.

도메인은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버의 일련번호로, 네티즌들이 이것을 '사이버 얼굴'이라 할만큼 중요하다. 교계 도메인의 경우, 주로 법화(buphwa), 보문(pomun), 화엄(hwaum), 삼보(sambo) 등 핵심적인 교리용어나 대표적인 경전이름을 애용하는 특수성으로, 도메인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6개월간 불교 관련 도메인을 조사한 연구소측에 따르면 대원(daewon), 지장사(jijangsa), 해인사(haeinsa), 금산(kumsan), 마곡(magok) 등 60여건이 타종교단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선점해야 할 300여 개의 도메인을 선정하는 한편 최근 개발한 '도메인 파킹(domain parking)'을 사용해, 이들 도메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도메인은 '3만 3천원'이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주소를 되찾을 때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도메인을 발급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은 도메인에 대한 "선점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계종 교구본사인 조계사(chogyesa)는 현재 도메인이 없는데, 타종교 단체나 개인이 나쁜 의도로 chogye(조계)라는 단어가 들어간 도메인을 신청·소유했을 때, 조계사는 이를 되찾기 위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광스님은 "재원이 허락하는 데까지 도메인을 사들일 계획"이라며 "이들 도메인은 관련 단체나 사찰의 요구에 따라 되돌려주거나 혹은 사이트를 개설·운영 등을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

### 분당불교신도회 창립

분당불교신도회(회장 배조웅) 창립법회가 1일 뉴타운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배조웅씨(국민레미콘주식회사 대표)는 "관내 16개 사찰 불자들이 모두 합심하여 분당지역 불교발전을 이루겠다"며 "매달 1회 수련대회등 신행혁신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암도(전 조계종 교육원장), 우향(성남사암련 회장), 지묵(관음종 교무부장), 운광(원적정사 주지)스님등 스님 20여명과 최순식 성남부시장, 오인석 성남시부의장, 김영시 분당구청장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 승가대 14일 정기총회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원종)는 14일 오후 2시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열어 총동문회장 선출 및 예·결산 심의,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한편 승가학원은 최근 정인스님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사무처장에 무상스님(전 봉은사주지), 총무국장 미등스님, 보육교사교육원 교학실장에 보각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김원우 기자

## 현 대 만 평 박구원




##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 동참하세요

###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군부대 경찰서 교도소에 '부처님 말씀을'

'현대불교'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2천 여부의 신문이 부처님의 손길이 되어 지혜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의 공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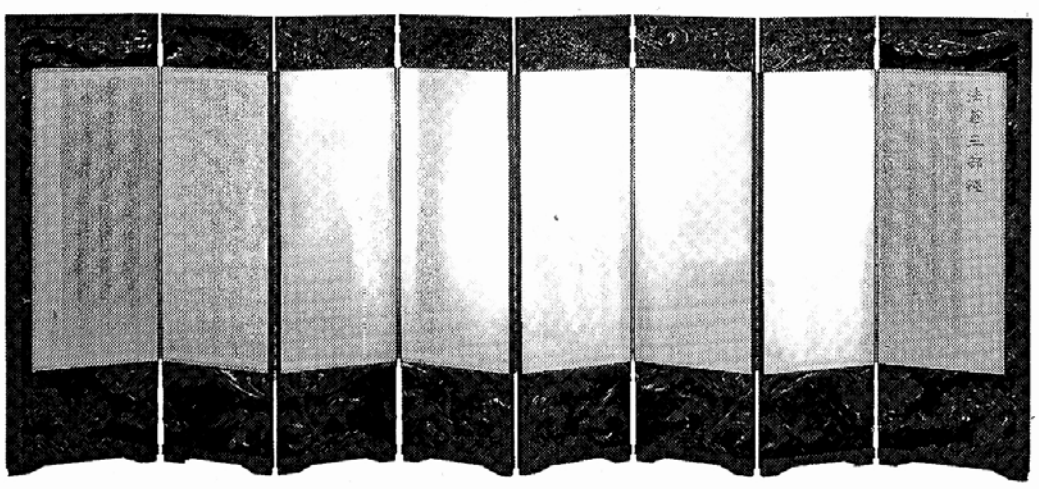
▷동참방법 : 매월 또는 수시로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계좌번호(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한빛은행 082-090001-13-701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참여방법 :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동이체 및 온라인 입금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은행에 가셔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도 됩니다.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직접 정하셔도 됩니다.
▷문 의 처 :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사례

①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차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낳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②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③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④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못찾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⑤사법시험에 육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⑥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⑦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⑧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든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카다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334-9490, (0335)334-9491
야간 : (0342)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목어

### 오, 저 우리들의 소가…

한국사람만큼 소를 속속들이 아는 민족도 드물다. 여기서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안다거나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각적으로 꼬리 발 안심 등심 아롱사태 따지며 맛을 구분하고 골라 즐길 줄 안다는 뜻이다.

쇠고기를 30가지 넘게 부위별로 구분, 부위별 맛에 따라 요리법을 달리하는 한국 쇠고기요리법을 보고 외국인들은 신기한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농사일이다 뭐다 하며 뼈빠지게 봉사해 준 다음 소는 사람들에게 "무엇하나 버리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 가는" 그야말로 보살 같은 존재다.

몇년 전 그런 소 가운데 한 마리를 한국인들이 자비심에 겨워 아사위기에서 구해 돌봐 주었고 매스콤에서는 이를 크게 보도한 적이 있다. 홍수에 떠내려가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도(留島)란 이름의 무인도에 올라 오도가도 못하던 한마리의 소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소값이 폭락, 전국의 소가 일제히 도살장으로 몰리는 바람에 수많은 소들은 트럭 좁은 짐칸에서 며칠을 굶으며 죽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심성. 그 모순의 극명함이여….

지금 한국의 소들은 구제역이란 질병 때문에 따뜻한 치료 한번 받는바 없이 그냥 대량으로 도살되어 땅구덩행을 당하고 있다. 우리들은 당연히 축산업자들의 곤경과 경제의 주름에 먼저 관심이 갈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한번쯤 진지하게 '소'를 생각해 보자.

힌두교에서는 소를 '3백13의 신들이 머무는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 젖짜는 일과 노역 외에 살우(殺牛)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 인도에는 '늙어 버림받은 소'를 보호하는 양노우원(養老牛院)격의 아슈람이 수백 곳을 헤아린다.

그렇게 극단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혹시 인간의 지나친 탐욕이 소 구제역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아닐까. 그런 반성도 해보자는 것이다.

불교에도 성스러운 소가 나오고 '십우도(十牛圖)'는 깨우침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가.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재가불자 信 · 解 · 行' 설문으로 본 신행문제점

# 가르침보다 가피력에 의지

6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행혁신 세미나에서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와 박수호(고려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씨가 '설문조사를 통해 본 신앙형태'를 통해 밝힌 불자들의 두드러진 신행형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보다는 부처님에게 직접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과 승가를 통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타력신앙적 경향이나 붓다의 신성화 및 절대화 경향으로 해석된다.

### 개인주의적 신앙 많아

연기법과 사성제 등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는 불자들의 응답이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부처님의 원력에 대한 질문에 81.6%가 '믿는다' 답하여, 한국의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부처님의 가피력에 직접 의지하는 경향이 강함을 드러냈다.

이런 신행형태는 한국불교가 기독교의 문화적 충격을 흡수한 결과로 해석되며 자칫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하는 불교 특유의 신앙구조를 와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사회전체의 복을 빌기보다는 개인적인 복을 추구하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신행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신행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리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 △타력적 믿음구조를 전통적인 대승적 믿음구조로 회복 △개인적 신행을 사회적 차원의 신행으로 확립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또 그 동안 불교대학 등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실천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평가결과도 잘못됐음이 드러났다. 현대적 지식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재가불자의 경우 불교교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가불교의 지식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른바 통불교라 불리우는 한국불교의 특성답게 불자들은 참선, 염불, 절수행, 법회참석, 예불, 독경, 사경, 방생, 단체활동 등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과반수이상의 불자들이 자신의 신행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73%의 불자가 자신의 신행활동에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혀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행혁신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재가불자 교리교육 필요

이번 설문조사는 불자들의 신행행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믿음의 차원, 이해의 차원, 실천의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했으며, 설문문항도 한국불교의 문화 및 전통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을 확정한 다음 구조화 하여 신행의 경험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신도회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재가신도교육의 기본 커리큘럼 및 재가신도 신행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임동현 중앙신도회 기획실장은 "신행혁신을 통해 우리사회의 주류사상에서 밀려나고 있는 불교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불자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기 2544년 부처님오신날 주요 행사**

| | 행사명 | 일시 | 장소 | 결행처 |
|---|---|---|---|---|
| 봉축행사 | 봉축법요식 | 5. 11 오전10시 | 조계사, 각 시암 | 봉축위원회, 각 시암 |
| | 연등법회 및 제등행진 | 5. 7 12시~오후10시 | 동대문운동장, 종로 | 봉축위원회 |
| | 시암일 점등식 | 5. 5 오후7시30분 | 시암일 광장 | 봉축위원회 |
| | 연기봉 점등식 | 4. 20 오후6시30분 | 김포 연기봉 | 해병 김포사 |
| 자비의 실천 | 복지시설 방문 | 4월중 | 파주 러닝메이트 재단장애인복지관 국립재활원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 | 장애인 세상나들이 | 4. 21 | 원주 무릉사 | 조계종사회복지 재단 |
| |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4. 16 | 용인 에버랜드 | 원심회 |
| | 수화찬불가 발표회 | 4. 30 오후1시 | 불교방송 법당 | 성림시 연화복지회원 |
| | 무차연등회 | 5. 4~10 오전 | 탑골공원 | 불교자원봉사인협회 |
| | 영산대재 | 11~ 5. 8 12시 | 탑골공원 | 불교자원봉사인협회 |
| | 자비원레이봉사 | 5. 10 오전10~오후3시 | 탑골공원 | 불교자원봉사연협회 |
| | 불교인권문제 | 5. 4 오후7시 | 인각 광장 | 심정불교승기회 |
| | 연등등 선물 | 5. 1~11 | 각 방원법당 | 각 방원법당 |
| 경축 기념행사 | 전통등 전시회 | 5. 6~11 | 조계사 | 전통등연구회 |
| | 육환장 전시회 | 4. 12~19 | 장인미술관 | 육환장연구원 |
| | 9회 불교꽃예술제 | 4. 17~18 | 과학기술종연합 강당 | 한국불교꽃예술회 |
| | 봉축 시낭송회 | 429 | 조계사 | 문화교육원 한다불교문인협회 |
| | 연꽃노래잔치 | 4. 19(예선) 4. 30(본선) | 동국대 중강당 | 서울불교장년회 |
| | 2. 진검 5월의 문화인물 기념음악회 | 4. 30~5. 1 | 목련극장 | 목련극원한천악단 |
| | '원성스님 풍경' 뿟으로 그린 음악회 | 5. 1~3 오후7시 | 연각홀 | 수원포교단 |
| | 신행혁신세미나 | 5. 3 오후3시 | 조계사 문화교육관 | 중앙신도회 |
| | 불교사진전 | 5. 3~13 | 조계사 경내 | 불교사진인협회 |
| | 사각전 | 4. 24~29 | 조계사 경내 | 동방승가대 학생회 |
| | 서각전 | 5. 2~4 | 중앙승가대 | 동방승가대 학생회 |
| | 부처님 그리기 대회 | 5. 5 | 목아박물관 | 봉광 |
| | 정적음악 연주회 | 5. 6 오후7시 | 조계사 | 조계사 청년회 |
| |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 5. 6 오전10시~ | 우정국로 | 피라미티 서울지부 |
| | 줄넘대회 | 5. 7 오후1시 | 조계사 문화교육관 | 불교유권인협회 |
| | 청소년 사경공모전 | 5. 6 | 조계사 | 피라미티청소년실회 |
| | 청소년정보시낭 경시대회 | 5. 10 오후1시 | 목동청소년수련관 | 목동청소년수련관 |
| | <주요 지역 봉축행사> | | | |
| 부산 | 연등축제점등식 | 4. 28 오후6시 | 부산역 광장 | 부산 봉축위원회 |
| | 전불가국과 점장의 밤 | 5. 2 오후7시 | 시민회관 대강당 | 부산 봉축위원회 |
| | 시민문화축제 | 5. 6 오후4시 | 부산역 광장 | 부산 봉축위원회 |
| | 봉사활동기원 3천배 절야정진 | 5. 6오후5시~7일 | 봉산역 원찌 | 부산 봉축위원회 |
| 대구 | '님' 부처님 무지컬 공연 | 4. 15~ 17 | 시민회관 대극장 | 대구 봉축위원회 |
| | 영인행자 특별대회 | 4. 23 오전10시 | 것비위 주차장 | 대구불교지킬지회 |
| | 시점앞 점등식 | 4. 28 오후7시 | 시점앞 주차장 | 대구 봉축위원회 |
| | 대구시민 위한 기원 대법회 | 5. 2 오후6시 | 동화시 통일대불 앞 | 대구 봉축위원회 |
| | 연등축제 | 5. 7 12시~오후9시 | 동화공원 일대 | 대구 봉축위원회 |
| 광주 전남 | 영 · 토님 위한 찰린음악회 | 4월중 | 무각사 | 광주 · 전남 봉축위 |
| | 불교사상장연회 | 5. 7 오후3시 | 광주시민회관 | 광주 · 전남 봉축위 |
| | 연등축제 | 5. 10 오후7시 | 광주공원 ~광주역 | 광주 · 전남 봉축위 |
| 전북 | 전통등 전시 및 경연대회 | 4. 22~ 29 | 전북문화교문화관 | 전주 · 전북 봉축위 |
| | 연꽃등만들기 | 5. 5 | 전주은행동성지점 앞 | 전주 · 전북 봉축위 |
| | 불교대법회 및 시가행진 | 5. 6 오후7시 | 팔경전체공원 | 전주 · 전북 봉축위 |
| 부산 | 봉축감등식 | 5. 4오후7시30분 | 북부시약은장 | 부전시 불교연합회 |
| | 꽃놓꽃이 | 5. 10 오후8시30분 | 엄미산 장상 | 부전시 불교연합회 |
| 울산 | 이웃돕기 바자 | 5. 4 | 울산역 앞 | 울산시 불교연합회 |
| | 연등점기 대회 및 연등탑이루기 | 5. 6 | 울산역 앞 | 울산시 불교연합회 |
| | 연등축제 | 5. 11 | 울산시민회관 | 울산시 불교연합회 |
| 진주 | 소년교도소 법회 및 연례만 공양 | 5. 5 오후3시 | 소년교도소 | 진주시 봉축위원회 |
| | 연등축제 | 5. 6 오후7시 | 진안동고 · 터미노 | 진주시 봉축위원회 |
| | 자비의 한점 | 5. 11 오후4시 | 진안동고택상방회장 | 진주시 봉축위원회 |
| 경북 | 자전동 점행식 | 4. 24 | 자작량 | 경북사업연합회 |
| | 교통OP 점등식 | 4. 27 | 교통OP | 사암연합회 |
| | 봉축법회 | 5. 6 오후6시 | 경화문예회관 | 사암연합회 |
| | 소년가장돕기 자비의 쌀 전달 | 5. 9 오후3시 | 경화문정장 | 사암연합회 |
| 마산 창원 | 연등탑 점등식 | 4. 19 오후7시 | 옥포공원 | 마 · 창 불교연합회 |
| | 시민참등이 약 장원 연등축제 | 5. 4 오후6시 | 창원시청 광장 | 마 · 창 불교연합회 |
| | 마산 연등축제 | 5. 11 오후7시 | 창원운동장 ~창동거리 | 마 · 창 불교연합회 |
| 원주 | 소년가장 독거 노인 복지시설방문 | 5. 1~3 | 미정 | 원주시 봉축위원회 |
| | 거리무사고 기원대법회 | 5. 11 오후5시 | 원주역 광장 | 원주시 봉축위원회 |
| | 통일기원법회 및 제등행사 | 5. 11 오후6시 | 원주천 고수부지 | 원주시 봉축위원회 |

# 경허 · 용성스님 한국선 새역사 열어

2000년 기획
## 禪과 21세기

### ⑫한국 근대선의 부흥




고명석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연구과장


불교에 가해진 조선 왕조의 처절하리만치 참혹한 탄압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각기 독특한 특성을 자랑하던 불교의 여러 종파를 해체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져 한 사찰에 선과 교, 그리고 염불을 아우르는 삼문수업의 풍조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승려 한 개인으로 국한지어 말하면 선을 수행하는 스님이 교학을 공부함은 물론이요 염불까지 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선후기 불교의 모습은 좋게 말해서 원융불교라 칭할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말해서 무종파적이요 수행 가풍이 무질서한 불교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기 힘들며, 안타깝게도 조선 말기의 승가 풍토는 후자의 양상으로 변모해 버리고 만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사원의 구조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사원의 구조를 보면 보통 하나의 개별 사원에 선당과 강당, 그리고 염불당이 공존해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원은 독립된 영역에서 청규를 중심으로 뚜렷한 가풍을 이루면서 일가를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한 사찰 안의 강당과 염불당 속에서 선당의 형태로 존재 이유를 확보한 것이다. 끝내 이러한 풍조는 조선 말기에 이르면 호남지역의 대둔사와 백양사 등 극히 일부의 사찰과 스님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유수한 대찰에서도 선을 닦는 스님은 하나도 없고 염불하는 스님들로 가득찬 현실로 치닫는다. 염불당을 중심으로 사원이 운영되어 한국불교의 선 수행 가풍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혜성 같이 나타나 한국불교의 활발발한 선풍을 다시금 일으킨 거장이 경허(鏡虛)스님(1846~1912)이다. 1879년 동학사에서 스님의 오도를 계기로 한국선은 새로운 역사를 열기 시작했던 것이다.

경허스님은 오도 이후 연암산 천장암을 중심으로 悟後 보림하면서 인근의 부석사, 수덕사, 개심사, 정혜사, 마곡사, 법주사 등을 오가며 선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1898년까지 전국 사찰에 선원이 개창된 것은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선원이 문을 열고 선풍이 진작되는 시기는 경허스님이 1899년 봄 해인사로 와서 修禪社를 창설하고 그해 겨울 퇴설당에서 定慧結社를 결성하면서부터라 하겠다. 스님은 해인사 퇴설당에서 대중스님들과 함께 정혜결사를 맺고 결사문을 지음과 동시에 청규에 따라 수선하는 결사 운동을 벌이고, 선방의 조실로서 납자를 제접하면서 정진했던 것이다. 해인사 퇴설당은 이렇게 경허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여러 대중스님이 청규에 따라 사찰을 역방하면서 선풍을 일으키고 선원을 개원하게 된다. 한국선을 부흥시킨 또 하나의 인물이 용성(龍城)스님이다. 용성스님도 1886년에 낙동강변에서 오도 이후 전국을 주유하면서 경허스님과 비교하여 오지에 선원을 창설하기도 하고 주요 선원의 조실 및 입승을 지내면서 선풍을 진작시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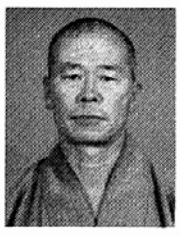
이러한 선풍의 영향으로 1898년부터 1910년 사이에 창설된 선원은 퇴설당 선원을 비롯하여 40여개로 추정되며 1913년에는 72개의 선원으로 불어난다. 1913년 〈해동불교〉의 기사를 보면 건봉사를 제외한 각 본말사에 있는 염불당을 모두 선당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기로 결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28년에는 73개의 선원이 있었는데, 당시 경안남도와 함경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도내의 본말사에 오롯이 선원이 자리를 틀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자들의 오도를 향한 수선이 이어졌다.

경허스님의 전법 제자로는 경허의 세 달로 불리는 水月, 慧月, 滿空 그리고 慧峰스님이 있으며, 이 밖에도 漢岩, 枕雲, 南泉, 鐵山 등이 스님의 법을 이었다. 한편 경허스님의 선풍은 한국불교의 근대사를 개척한 많은 인물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惺月, 鄭鳴, 震河, 泰秀 같은 인물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근대 선원의 조실로서 한국선을 이끌어간다.

한편 용성스님 문하에서는 아홉 제자로 불리는 東山, 東庵, 仁谷, 雲庵, 慧菴, 韶天, 古庵, 慈雲, 東軒스님이 나왔으며, 性徹스님도 용성 문하의 대표적인 거장임이 분명하다.

이들 기라성 같은 종장들이 1920년, 30년대에 선학원 운동과 해방 이후 정화 운동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조계종단 형성의 단초를 마련했을 뿐더러 한국불교 청정가풍을 선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던 것이다.


# 포천 신흥사 법당건립 완공을 위한 모연문



귀의 삼보하옵고

화엄 정토에서 불자님들의 가정에 어두운 그늘은 이제 부터 활짝 걷히고 새 광명이두루 비쳐이 법락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소승 계수삼배하옵고
청신사녀 백의 단월께 한 불사 이루고자 인연 모으는 글 올립니다. 빈도는 기도 승으로서 91년 3월초에 의발단신으로 경기도 포천 관인에 위치한 보개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온 동기는 크게 말하면 인연이겠고 다음엔 빼어난 경치와 심당한 옥계수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보개산에 들어와서 수행하다 보니 차츰 이 산이 예사산이 아니란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좋고 물맑은 이 산에 여법한 도량하나쯤은 있어, 해으름에 범종소리가 은은히 들릴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서 이 산의 동서상방을 편답하여 보았더니 옛 절터는 수 없이 많은데 인적이 끊인지는 너무도 오래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이 사지는 전부 국방부 소유가 아니면 어떤 재벌의 소유로 점유되어 있어 개인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6.25전에는 38이북이었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어느 문헌을 보니 풍악(楓岳) 도인 문일장로는, 금강산, 오대산, 보개산 이렇게 상산을 조선의 명산으로 꼽았다 하였고 신라 말 이조 중엽에 이르기 까지 60여개의 대소 사찰이 건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엔 빈터만 산재(散在)하고 있으니 서글프기 짝이 없는 노릇 이었습니다.

소승은 그 때부터 한가지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곳에 꼭 여법한 도량하나를 세우리라" 그렇게 몇년이 흐른 후 경기 연천 소재 부곡의 옛 『지장암터』 밑에 조그만 암자 하나를 세웠다가 군작전상 지장을 준다고하여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때문에 다시 옛 "신흥사"터 있는 곳으로 넘어와서 정진중 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절터 될만한 곳을 시주하는 보살이 있어 서원의 결실을 절감하며 작년 99년 3월에 법당30평, 요사60평, 기타 부속건물 20평을 허가 받아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법당 마저 완성 못한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시대 탓인지 덕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이야 의발삼수에 걸망하나 그밖에 있는 것이 무었이겠습니까. 십수겁의 부처님 옷 입어 당생에 엄청난 발심으로 적덕의 공을 쌓으시는 불자님들의 손길이 닿아 이곳에 아주 아담한 도량 하나를 봉축하여 후생에 전할 수 있으면 참으로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소승 요즘엔 한달에 화엄경80권 일주로 천일정진을 작정하여 백일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청일 정진 서원은 천하태평 국태민안 남북통일인 바 불자께서 동참하시는 의미로 일인일등(一人一燈) 서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억천겁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속에 참신하고 백법(白法)의 인연이 닿아졌으면 후생에 어디서도 보살행으로서 억천겁의 서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생이 알차고 축복 받는 일생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주지 석 청 담 합장



불사(佛事)중인 법당.

▣ 온라인번호
▷국민은행 : 216-21-0535-788
▷농 협 : 225020-52-011080 예금주 : 서 원 집
▷우 체 국 : 102004-0023518-12
※ 포천신흥사 법당이 시주해 주시는 모든 불자님들의 공덕인연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엄천으로 온라인 구좌번호를 감히 적어 놓았으니 불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 문의처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중리 861번지 신흥사
▷전화 0357) 534-2490

## 일주문

### 법주사 주지 진산식



지명 법주사 주지는 18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제28대 주지 진산식을 갖는다. 스님은 3월9일 법주사 산중총회에서 주지로 추천됐다.

### 운제스님 1주기 추모법회



금봉 태고종 범륜사 주지는 16일 오전 11시 파주군 적성면 설마리 범륜사에서 지난해 4월 입적한 운제 이영무 스님 1주기 추모법회와 부도 제막식을 봉행한다. (0348)959-4566

### 금강둔치서 방생법회



진허 마곡사 주지는 7일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신도 등 사부대중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둔치공원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 북한 조불련에 승용차 전달



명진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은 3월27일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를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승용차를 전달했다.

### 천태산 영국사 순례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12일 금강에서 방생법회를 갖고 천태산 영국사로 성지순례를 간다. 동참금 2만원.(0331)245-7048

### 수원서 연꽃사진전

선암 스님(사진가)은 11~24일 수원 만석공원내 미술전시관 제3관에서 환경, 역사, 생명의 문화도시를 위한 아름다운 수원만들기 연꽃사진전을 연다. (02)312-0228

### 교육발전 공로 총리 표창



승욱 고성 옥천사 청련암 주지(본지 고성지국장)는 3월24일 정부로부터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수화 찬불가 발표회 가져



해성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장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한다는 취지로 30일 오후 3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수화 찬불가 발표회'를 갖는다.

### 조선족시인 초청 시낭송회



이근후 이화여대 교수는 20일 오후 6시 서울 삼청동 예띠의집에서 '조선족 시인 석화(石華) 초청 시낭송회'를 연다. 석 씨는 중국 연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으로 98년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02)732-8144

### 송석구 총장 초청법회



김두원 광주·전남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은 8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동국대 송석구 총장 초청 대법회를 개최했다.

### '보조의 禪敎 일치' 발표



이병욱 고려대 강사는 22일 보조사상연구원 제27차 월례발표회에서 '보조의 선교(禪敎)일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02)733-5335

## "불교 사회역할 강화 바람직"

### 역사학자 이이화씨 조계사서 열린강좌

"비구니 스님도 종정이나 본사 주지를 해야 하고 사찰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야기 한국사〉의 저자이자 불자인 이이화씨는 1일 조계사가 개최한 열린강연회에서 '한국사에 나타난 불교의 두 얼굴'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시간동안 진행된 강의에서 이씨는 우리 나라 불교의 수용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흥망성쇠, 타락과 개혁 등 불교가 한국사에서 보여준 양면적인 모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불교는 자연·환경·민족·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고칠 건 고쳐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며 불교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땡초'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조선후기 사회가 혼란할 때 땡초불교는 비밀결사 운동으로 사회변혁의 한 세력을 의미했다"며 불교의 자기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강화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 비쳤다.

한 청중이 던진 '대처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 대처승이 생활 속에 불교 포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처승이 포교를 맡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부처님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

### 사이클 세계일주 네팔인 푸스카 사하



"부처님 가르침처럼 세계는 하나였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사이클로 13개국 1만 5천km를 달린 네팔인 푸스카 사하(Pushkar Shah·30) 씨의 첫마디이다.

사이클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사하 씨가 세계 투어를 결행한 것은 '부처님이 태어난 성스러운 땅, 룸비니'를 알리고 또 '부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룸비니의 흙이 담겨 있는 '룸비니 목걸이'를 들고, 98년 네팔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히말리야 산골 돌카(Dolkha)에서 출발, 인도와 파키스탄 등을 거쳐 3월 25일 한국에 왔다.

외국어대에서 불교학생회 회원들을 만났을 때, 말보다는 신심(信心)으로 통할 수 있어 좋았다는 사하 씨는 "부산에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 불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에게 '룸비니 목걸이'를 나눠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사실 사하 씨는 이번 사이클 투어에서 룸비니를 알리는 것 외에도 '바다'를 보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이 있다. 네팔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이다.

사하 씨의 대장정은 홍콩의 영자지 '스탠다드'를 비롯, 중국·태국 등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스폰서 없이 맨주먹으로 움직이다 보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돈이 떨어져 굶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밤 공기를 이불삼아 야외에서 잔 적도 부지기수, 길을 잃어 정글 속에 며칠간 갇히는 아찔한 경험도 했다.

사하 씨는 아시아 일주를 끝내고 나면 아메리카 유럽대륙을 거쳐 아프리카를 종단하며 세계일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하 씨는 13일 다음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떠난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 "개종하는 불자 막고 싶어 시작"

### 캐나다 무료 이민정보센터 운영 이승용씨



"캐나다에 이민 온 불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쉽게 도움을 주는 기독교 단체와 연을 맺고 또 그 과정에서 개종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차 고국을 찾은 캐나다 불광사 신도 이승용(SY 무역 대표·42) 씨는 불교계의 미약한 활동으로 이민 불자들의 개종사례가 심각하다고 털어놨다. 이씨가 '이민정보센터'를 설립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이민정보센터에는 이 씨를 비롯해 한기남(37), 한세구(45), 윤홍조(55) 등 불광사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모두 이민의 설움을 딛고 당당하게 일어선 불자들이다.

이민정보센터는 공항 안내에서부터 집과 자녀들의 학교 문제, 그리고 일자리까지도 이민생활의 모든 문제를 알선할 계획. 이 같은 도움이 '모두 무료'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 씨는, "이민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는다면, 2~3년까지 걸리는 이민 적응기를 6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씨등 4명은 취직·사업·주택·교육 등을 서로 분담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놓았다.

이승용 씨는 "이 서비스는 캐나다에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한국 사찰에 젊은 불자들이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불자들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캐나다 이민사회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불교를 되살리겠다고 뭉친 불자 4명, 이런 불자들의 노력이 한국불교 세계화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메일 계정은 이승용(sylee@netvigator.ca), 윤홍조(hangchoyun@hanmail.net), 한세구(hanseikoo@yahoo.com), 한기남(knhan@idirect.com) 등이다. 오종욱 기자

## 불교진흥원 이사 장상태 거사 별세



장상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동국제강 명예회장)가 4일 오전 8시40분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영결식은 8일 동국제강본사에서 있었으며 벽제장묘사업소에서 화장해 선영 납골당에 안치됐다.

장상태 이사는 64년 선친 장경호 창업주의 뒤를 이어 동국제강 사장으로 취임한 후 40년 가까이 철강업에 종사했다. 평소 무소유를 생활철학으로 삼고 있던 장 이사는 98년에는 사재 1백억원을 들여 재단법인 대원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대원문화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무의탁 노인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봉은사 법왕루 낙성식 봉행

봉은사(주지 원혜)는 5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과 주지 원혜 스님 등 사부대중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왕루 낙성식을 봉행했다.

법왕루는 대웅전과 선불당만으로는 신도들의 기도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마련된 기도공간으로 쓰이게 된다. 연건평 288평에 전면 7간 측면 4간 맞배집 고려양식의 건물로, 봉은사는 이번 법왕루 완공으로 지역포교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 해인불교교양대학 개원법회

해인선원 부설 해인불교교양대학(학장 정우)은 6일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보광 해인총림 주지, 무구 경주 지장암 주지, 영화배우 엄앵란씨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장 정우 스님은 "어려운 불교교리를 쉽게 전할 수 있는 도심 포교의 장으로서 불교교양대학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 석불선양회 돌부처 친견법회

한국석불선양회는 2일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용운사지에서 제2회 야외 돌부처님 친견법회를 개최했다. 선양회원들은 석조 비로자나부처님 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양물을 올리고 예불을 드렸다. 또 오후에는 소쩍새마을을 방문, 원생들과 함께 법회를 보고 후원품도 전달했다. 이귀인 명예기자

## 봉축 기념 연등 시연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청년회(회장 박준석)는 5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연등시연회를 열었다. 부처님오신 날을 봉축하는 이번 연등시연회는 시민들에게 오색컵 연등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청년회는 연등시연회를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혜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로 제작, 판매합니다.

혜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댁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 금 주 : 최 종 웅
금 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 제2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2nd Academic Award Of Jingak Order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관련 연구 특히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진각논문대상'을 매년 개최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주 제 : 불교일반 (불교관련 제반분야 포함)
밀교일반 (밀교관련 제반분야·진각종 교학 포함)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전형방법 : 인적사항 1부 및 논문계획서 1부
▶ 전형일정 : 접수마감 - 2000년 5월 6일(토)
당선작 발표 - 5월18일
당선논문발표회 - 10월 13일(금)
▶ 당선작 및 상금 : 불교분야 2~3편·밀교분야 2~3편, 상금 각 200만원
▶ 접 수 처 : 136-132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 22.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 jingak. or. kr
e-mail : jingak@chollian.net
전화 (02) 913-0133, 0134 / 전송 (02) 913-0135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진각종

# "불교사상으로 질병 다스려요"

## '삶을 창조하는 공동체' 준비 박재오씨

"'삶을 창조하는 공동체 모임'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내 몸의 병을 다스리는 법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법조인 팀, 의료인 팀, 기자 팀 등이 모여 구성될 '삶을 창조하는 공동체 모임'을 준비하는 박재오씨(41). 청주지검에서 검사로 8년간 재직하면서 강력사건을 주로 맡았던 박재오씨는 지난 1월 검사직을 사직하고 불국정토 건설을 원으로 하는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다. 살인사건을 수사했었던 박씨는 그 과정에서 부검에 참여하며 인간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인간의 몸을 좀먹는 병에 대한 관심은 관련 연구자들을 만나면서 대체의학 쪽으로 기울었다. 주목나무에서 추출되는 성분이 항암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연구 등 2백여 가지의 대체의학 관련 연구 자료도 이미 있다.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대체의학연구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불교 동양사상 대체의학 등의 교과로 구성된 우주대학도 설립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올해안에 결성을 준비중인 '삶을 창조하는 공동체 모임'은 대체의학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각계 각층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아직 준비단계에 있지만 의료센터, 휴양시설 등도 갖춰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고 생활하는 세상, 불국토를 지향한다. 이를 건설하기 위해 서양의학에만 의지하지 않는 의료개혁, 동양사상 · 불교사상으로의 회귀, 자연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 같은 병은 현대 서양과학으로 고칠 수 없지만 마음에 있는 부처를 깨닫고 느낄 때 모든 질병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박씨는 "위빠사나 등의 수행을 통해 의식을 정화해서 마음 속 부처를 깨달아 성불하고 질병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근본불교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전 미얀마도 다녀왔다.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해 온 화산스님 덕분에 위빠사나와 인연이 닿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박씨는 올해 9월 동국대학교

### 법조인 · 의사 · 기자 모여
### 대체의학연구소 추진

불교대학원에 진학해 불교공부를 할 참이다. "〈금강경〉을 보면 이미 깨닫은 이들이 자신의 수준에서 주석을 한 것이라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불경들을 나 스스로 공부하고 직접 느끼기 위해 불교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는 박씨는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 밑에서 불교를 접해왔기에 불교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는 것이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녔다가 교리에 실망을 하고 군생활을 하면서는 〈화엄경〉〈법화경〉 등 불경을 열심히 읽었다. 스님들도 많이 친견했다.

박재오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박재오씨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깨닫고 질병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근무하다가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해 4년만에 검사의 꿈을 이룬 늦깎이 검사다. 훌륭한 검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리에 쥐가 나도록 불공을 드렸던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도 불교공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접은 박씨. 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 형벌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었다. 인간의 의식을 정화시키는데는 종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했기에 또다시 늦깎이 불교공부에 뛰어든 것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우리 모임에선

### 하불동 게시판 새단장

하이텔 불교동호회가 봄을 맞아 좀더 찾기 쉽고 눈에 확들어오게 게시판을 새단장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곳은 지역모임의 방이 대다수. 대구 · 경북, 부산 · 경남이 따로따로 분리되었고 광주 · 전라, 대전 · 충청 등 두 곳의 지역법회가 새로 생겼다. 신행수기와 참회록은 합쳐서 신행상담 · 수기 · 참회 코너로 개설했고, 선 · 기도 · 염불은 통합해 불동선원으로 꾸몄다.

### 동대 불교대학원 장례교육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최정수)는 12일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에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불교장례의식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장례의식 교육에서는 장례의식 외에도 염불, 목탁, 제례의식, 염습 등의 강의가 마련된다. 이번 강의를 바탕으로 장례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불경조봉사회(가칭)를 조직, 운영할 방침이다. 02)737-1053

### 지하철 법우회 안전캠페인

성북 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병호)는 18일 1호선 석계역에서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안전운행 캠페인에는 회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같이 동참하게 된다.

##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장 영 효
〈MBC 총무국위원〉

내가 소속된 MBC에 불교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불자회가 생긴지 이미 4년이 흘렀다. 창립 때부터 총무 일을 맡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IMF 구조조정으로 회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남아있는 회원들끼리 더 결속을 공고히 다져 매월 1회 정기법회와 년 4~5회의 전국 명산 대찰 순례법회를 꾸준히 봉행하고 있다. 4년 동안의 대찰 순례법회로 어지간한 대찰은 거의 다녀온 셈이다.

지난주에는 전주 모악산에 있는 금산사에서 약 40명이 1박2일간 법회를 봉행했다. 주지스님의 법문과 교육부장 스님의 배꼽을 움켜잡게 하는 재담섞인 법문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다음날 새벽3시 도량석 도는 목탁소리에 일어나 간단히 세면을 한 후 법당으로 모여 참회하는 마음으로 속세에서 찌든 온갖 번뇌망상을 씻어 버리기 위해 조용히 입정에 들어갔다. 범종과 목어 종성에 이어 노전스님의 예불과 기도를 마치니 5시가 되었다.



우리 회원들의 예불하는 모습을 보니 지난해 수련회에서 어느 주

### "가족과 사찰 자주 찾았으면"

으로 우리 불교인들은 절에 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 특히 초발심자들의 경우는 법당 안에 앉아 있는 마음이 불편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절에서 행하는 의식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쑥스러운 마음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 좋은데 의식이 부담스러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식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편한 마음을 갖고 경내를 돌아보다 보면 법당에 들어가게 되고, 부처님께 오체투지를 하게 되고, 지스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문화방송에서 수련회를 온다고 해서 내심으로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그러냐고 여쭸더니 언론사 직원들의 자만심이 자칫 사찰분위기를 어지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불과 〈천수경〉 독경 등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내심 놀랐다고 털어놓으며 남은 일정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사실 우리 연구회가 처음 창립하여 불교의식을 행할 때 상당히 어수선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내가 조금은 절에 나가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 내가 하는 동작을 곁눈질하며 우리 회원들이 대충 분위기를 맞춰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봉행하는 정기법회와 순례법회를 통해 어느 정도 절에서 행하는 의식에 능숙해져 봉송하는 독경소리와 정근하는 염불소리가 제법 법당을 압도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듯이 모든 것이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하면 차츰 좋아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츰 차츰 자신감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절에는 대부분 보살들이 많아 남자신도들 특히 초심자들은 절에 가는데도 많은 부담을 느낀다. 그럴 때는 부인과 함께 가기를 권한다. 부부가 함께 절에 다니게 되면 자연스레 아이들도 불교에 쉽게 동화될 수 있고 가정도 화목해질 것이며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게 된다.

모든 일이 처음부터 잘 되고 잘하는 일은 없다.

우리 불자들도 마음으로만 불자라고 하지 말고 주말 나들이를 가족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절을 찾아가 경내를 돌아보기만이라도 해보기를 권한다. 한결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하루가 즐겁고 일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일에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없어지므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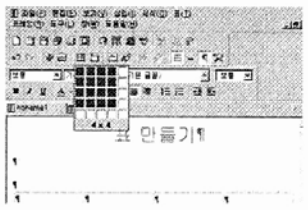
날씨도 봄기운이 완연해 절에 가서 봄내음을 마음껏 마셔보자. 이것은 내가 4년 동안 직장동료들과 불교신행단체를 창립하여 법회를 봉행하면서 느낀 것이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 통계 · 목록 표 만들면 간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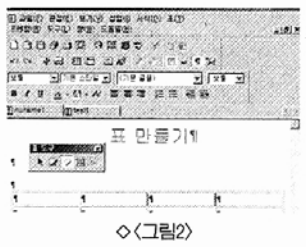
### 홈페이지 만들기 ⑩

예쁜 홈페이지를 만드는 필수조건인 표를 만들어 보자. 기본 도구막대에 있는 표만들기 아이콘을 누르고 만들고자 하는 표 만큼 줄과 칸을 선택한다. 커서가 있는 위치에 지정한 수 만큼의 표가 만들어진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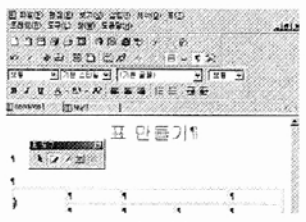
표 내부의 셀 경계선을 지우려면 표지우기를 사용하면 된다. 표지우기 아이콘을 누르고 커서를 표로 가져가면 커서가 지우개 모양으로 바뀐다. 지우고자 하는 선의 왼쪽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의 왼쪽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지워질 선들이 빨간색으로 변한다. 이때 마우스 왼쪽을 놓으면 빨갛게 지정된 선이 지워진다.〈그림2〉 표 도구의 셀나누기 합치기를 이용하면 셀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 좀더 세밀한 나만의 표를 만들고 싶다면 '표그리기' 메뉴를 선택한다. 연필 모양으로 변한 커서를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 하면 표 외곽선이 그려진다.〈그림3〉 표 내부의 셀 경계선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면 된다.




◇〈그림1〉




◇〈그림2〉




◇〈그림3〉

## mirrk.new 21.org

### 경전 검색엔진 떴다

인터넷 상에 제공되어 있는 모든 불교경전 자료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전문 검색엔진이 개설돼 자료 축적 중이다.

불교경전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검색엔진 84000(http://mirrk.new21.org)은 불교전문검색엔진 선재를 운영하고 있는 불교학당이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디지털 불교경전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제작하는 것이다.

현재 검색엔진에는 경소부, 남전부, 대집부, 밀교부, 아함부, 한국찬술, 화엄부 등 22개 카




◇경전 검색도구 84000 초기화면 모습.

테고리가 만들어져 있다. 이 가운데 경집부, 반야부, 법화부, 정토부 등 7개 카테고리에는 경전 자료가 올라가 있으나 나머지 카테고리는 자료 수집 중이다. 현재 58개의 불교경전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

### 클릭! 새 홈 페이지

■쌀바위(soback.kornet.net/!ssalbawe)-충남 부여 미암사 인근의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은 쌀바위를 홍보하기 위한 홈 페이지.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http://cafe.daum.net/akfrrh)-3월24일 개설. 불교봉사단체인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의 알림터.

■제천반야학생 투!!!(http://cafe.daum.net/1215)-3월25일 재개설. 제천반야학생회 동문 모임.

■미타랜드(http://cafe.daum.net/mitaland)-3월25일 개설.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모임.

■중불회(http://cafe.daum.net/caubuddhist)-3월25일 개설. 졸업한 휴휴회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만남의 장소.

■왕사(http://cafe.daum.net/wangsa)-3월27일 개설. 석왕사 청년회 모임

■천불도량 서원사 진선각 스님의 홈페이지(http://seowonsa.hihome.com)-종교와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속 현실현안 문제 위주로 다룬 홈페이지.

■대구구도회(http://cafe.daum.net/gudo)-3월28일 개설.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회장 하재웅) 법회 및 회원들간 연락처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天蕷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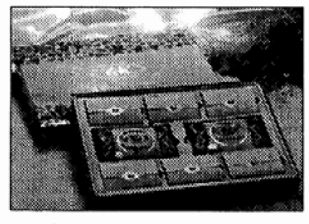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사 설

# 영산재 보존대책 시급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표적 불교전통무형문화재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는 영산회상의 모습을 범음과 범패 등 종교예술로 표현하고 있는 영산재는 신라 말 진감선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국가적 종교행사나 큰 천도식에서 주로 행해져 왔다.

영산재는 73년 운공, 송암, 벽응스님 3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고 87년 영산재보존회가 단체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지광스님과 일응스님이 이때 인간문화재로 추가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 운공스님, 97년 지광스님이 입적했으며 최근에는 송암·벽응스님이 입적해 현재 팔순의 일응스님 한 분만 유일하게 인간문화재로 남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산재보존회는 문화재청 등 정부당국과 협의에 나서 이른 시일에 보유자지정을 신청해 후계자를 확정토록 하고 범음, 범패 속의 갖가지 기능들, 이를테면 상주권공, 생전예수재, 수륙재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문화재 지정을 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영산재 1세대 스님들의 시연장면을 CD에 담아 보급하고 시연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후계자를 지정해 영산재를 계승해 나가는 일도 필수적이지만 특히 기능이나 보유자를 세분화해 지정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역량의 폭이 넓은 인간문화재를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그 방안이 바람직한 차선책임이 분명하다.

영산재는 한 종교의 예술의식이기 이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만큼 소중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인식을 .새로이 하고 보존대책과 지원에 성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지원액을 대폭 늘리는 한편 홍보에도 적극 나서 영산재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며, 불교계에서도 특정 종단이나 스님과 관련한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종단협의회 등 범종단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영산재등 불교전통무형문화재를 보존하지 못하고 인간문화재를 키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전통과 문화정신을 잃어 결국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승가발전 위한 재가역할

재가연대 종회발전봉사단에서 작성한 제 146회 임시중앙종회 참관 논평은 조계종 종단의 새로운 미래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귀한 사례이다. 재가불자들이 출가 승단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승단의 활동을 살피고 조언하는 모습은 재가와 출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안 별로 상세하게 논평을 하면서 종회 운영의 미흡한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종회 운영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굵직한 논평들만 들어보아도 '적극적 종책 제시의 부족', '종헌·준법 준수 및 올바른 적용의 미흡' 등 일반적으로 조계종 종단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것들이 종회 운영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종회로서는 이러한 지적을 불교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 종회 쇄신의 기틀로 삼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재가자들의 전문적인 안목들을 종단 운영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혁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종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가자의 몫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요즈음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재가자들의 종단 운영 참여의 노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종회발전봉사단의 논평과 같은 건전하고도 충정어린 비판들이 제도권 밖에서만 맴돌게 될 것이며, 결국은 사부대중의 화합을 깨는 불협화음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재가자들의 전문적인 안목과 충정어린 비판들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때에 출가자들이 세속적인 문제에 얽히지 않고 그 본연의 청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종단을 이끌 수 있으며,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논평은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후의 논평 방식보다는 재가자들에 의해 걸러진 문제들을 출가자들이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심의 결정하는 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출가자들의 결정을 재가자들이 논평하는 일은 출가자들의 권위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종단운영에 일정 부분 재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서 이번의 논평이 시사하는 점을 종단의 제도개혁으로 회향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열린마당

### 불교인권운동

네팔인 노동자 찬드라 꾸마리 구릉이 실종 6년만에 경불련등에 의해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불교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사회각계 인사 50여명이 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내체류 조선족 대표 100명을 초대한 가운데 '중국동포들을 위한 위로모임'을 갖고, 조선족 연수생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등 조선족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 것도 인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비를 근본사상으로 태동한 불교이지만 인권운동에 쏟는 인력과 활동이 타종교에 비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교계의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불교인권위원회는 공동대표인 진관스님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후로 활동이 위축되어 있으며, 지난 97년 종단협 산하에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현재 활동이 종단된 상태다.

교계가 인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종단에 실질적인 인권관련 기구의 설치와 불교NGO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불교인권위, 실천승가회, 경불련, 즐은벗들, 불교장기수후원회, 부천외국인노동자마을, 나눔의집 등 관련단체들이 상호교류와 협력, 연대활동을 통해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교 인권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탈북동포, 외국인노동자, 장기수, 중국동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 "비전향 장기수후원 통일 밑거름"

혜조〈실천승가회 인권위원장〉



석가모니 부처님은 탄생과 함께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오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吾當安之)' 라고 선언했다.

이는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고의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인간 존엄의 일대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인권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비전향장기수를 후원하는 불교장기수후원회이다. 비전향장기수는 10년이상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분들이다. 국제사면위원회와 민가협 같은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른바 '양심수'들로 알려진 공안사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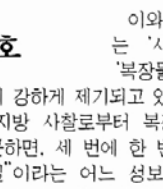
이들은 해방과 한국전쟁 당시 통일을 위해 활동하다 투옥된 후 많게는 40년 이상을 영어의 몸으로 살아왔으며, 출소한 이후에도 고령과 각종 지병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불교장기수후원회'의 활동은 이분들의 아픔을 나누고, 통일을 위한 그분들의 신념을 알리는 일이다. 또한 아직 우리 사회에 일각에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미천한 사회인식을 해소하고, 미력하나마 남북 화해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전향장기수를 후원하는 일은 특별한 누구를 지원하는 일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여내는 인권활동이다.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전향 장기수를 후원하는 일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나눔의 집', 북한동포를 지원하는 '좋은 벗들' 등과 같은 활동은 부처님의 인도주의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다양한 인권활동이다. 인권운동의 영역이 폭넓고 다양한만큼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 "탈북동포 국제난민 자격 갖도록"

정안숙〈좋은벗들 사무국장〉



지난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는 버마인 사린의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인권운동단체들의 합동기자회견이 있었다. 그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NLD 활동경력 때문에 버마 군사정부로부터 인권탄압을 받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강제출국만은 막으려는 것이다.

이를 보면서 타국땅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처지가 사뭇 가슴아프게 다가왔다. 특히 중국을 떠돌고 있는 우리 북한동포들은 몇 십 명이 아니라 수 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들은 신분이 노출될 경우 중국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두려움으로 일반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살고 있으며 이들의 약점을 이용한 인신매매나 노동착취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채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과 해외 구호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국제법상 난민으로서 보호받도록 하기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급히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들은 대부분 고향에 병든 가족을 두고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강을 건너온 목적도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되고 팔려가고 있으니 당사자의 심정은 얼마나 절망적이겠는가?

같은 동포들의 고통을 걱정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마음들이 하나씩 모아질 때 북한동포들의 고통이 해결되고 남북이 화해하는 날이 오리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모든 불교인들로 확산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한 많은 활동과 마음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외국인 노동자에 자비심 베풀자"

정진우〈경불련 외국인노동자마을 간사〉



최근 한 네팔 여성이 실종된지 6년만에 발견된 사건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같은 예는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얼마 전 한 태국 여성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 4호선을 탔으나, 약속장소인 사당역에 내리지 못하고 종점인 안산역까지 가, 역내 벤치에서 3일동안 있어야 했다. 그 3일동안 어느 누구도 난감한 표정의 외국인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관심이란 차별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예전에 한국인이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3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배타했다면, 지금 한국인의 모습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것 처럼 무관심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한국정부와 시민들이 그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와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종교·시민단체 인사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민간위원회'를 설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내는 차별과 배타, 그리고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불자들이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다. 모든 생명의 평등함을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동체대비'의 마음은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유린이 사라질 때까지 불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목탁소리

오 종 욱 〈취재2부 기자〉

## 집안단속과 문화재 보호

3월 28일 사찰 신도회장 등 내부자가 해당 사찰의 불교문화재를 밀매하려다 검찰에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교계에서는 성보문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와 더불어 분실시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불교문화재 도난·도굴에 내부자가 연류 돼 있었을 경우 이를 '쉬쉬'하고, 설사 도난·도굴된 사실을 포착하더라도 이해관계 때문에 조사와 징계를 하지 않았던 관행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도난품 중에서 불화나 조그만 불상 이외에 장정 몇 명이 들어도 옮기기 어려운 석조물·목조물의 경우 산 속 깊은 곳에서 사찰 관계자도 모르게 옮기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일반인의 견해다.

인사동 모 화랑에서 발견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대원사 목각사자상을 수사했던 담당검사 역시 "그 무게와 크기를 놓고 볼 때, 어떻게 도난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성보 문화재 도난과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징계없이 어물쩍 넘긴다면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찰 내부자 모르게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심증에도 불구하고 종단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이 실시하고 있는 '사찰문화재 현황 조사'에서 '복장물'도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방 사찰로부터 복장 조사를 의뢰받아 현장을 방문하면, 세 번에 한 번 정도는 복장물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어느 성보보존위원의 말처럼, 복장물 도난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성보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집안 단속'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성보문화재 도난 사건과 현황 조사에 대한 종단의 '엄격한' 조치 없이는, 성보문화재의 존속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화재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다.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 著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오계이야기

일타큰스님 著 / 4×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투도·사음·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깃든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 · · 바른 수행의 길잡이 · · ·
일타큰스님의 다른 저서들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 (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활 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6판 / 값 3,500원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 금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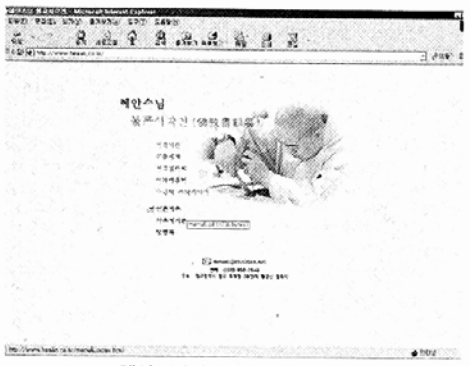
법우님들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 클릭! 불교 문화와 예술

## 미술·음악등 장르별 사이트 다양
## 어린이 찬불가·명상음악 네티즌 손길



◇법현스님의 불교음악범패 홈페이지.


◇혜안스님의 불교서각 홈페이지.

클릭 한번으로 다양한 불교문화의 향취를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인터넷에 개설된 불교문화사이트들이다.

최근 들어 미술, 음악, 사진, 무용 등 분야별 관련 사이트가 하나둘 개설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불교문화를 접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 사이트들은 최근 2~3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네티즌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해, 보다 쉽게 불교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공연과 전시도 다시 볼 수 있고,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시간에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 불교문화 사이트의 장점 가운데 하나다.

수안스님의 선화 사이트(www.tongdosa.or.kr/suan-gallery_1.html)와 범주스님의 선묵화 사이트(www.moka.or.kr/bumju/kd/bumju.htm)는 불교의 선세계를 그림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이다.

혜안스님의 불교서각 홈페이지(www.heaan.co.kr)는 스님의 작품세계를 비롯, 서각이야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불교서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부다피아 갤러리(www.buddhapia.co.kr/gal/index.html)도 '사찰서 만나보는 불교미술' 코너와 '수인전' 코너를 통해 불교미술의 특징을 설명한다. 특히 부다피아 갤러리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했던 원성스님은 최근 풍경 인터넷사이트(www.pungkyung.co.kr)를 독자적으로 마련해 네티즌들과 직접 대화까지 한다.

3천여점의 불교조각품을 소장하고 있는 목아불교박물관 홈페이지(www.moka.or.kr)도 네티즌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불교문화사이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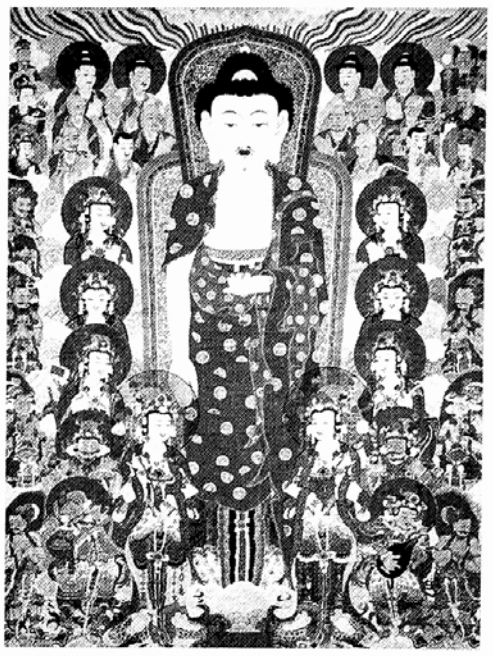
불교음악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법현스님의 불교음악범패 사이트(www.pompae.or.kr)를 찾아가면 된다. 또 어린이 찬불가 사이트인 풍경소리(www.bdsori.co.kr)에서는 창작 불교찬불가를 리얼오디오로 감상할 수 있으며, 홍순지의 불교음악과 명상음악 사이트(user.chollian.net/~studiog/)도 찬불가곡과 독특한 불교명상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능화스님의 불교무용 사이트(www.buddhistdancing.or.kr)에서는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불교의식무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전시와 실제 미술관에서의 전시를 겸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지난달부터 불교인터넷텔레비전 갤러리에 전시되고 있는 김연숙씨의 촛불 사진전(www.buddhatv.com)이 바로 그것. 김씨는 인터넷상의 전시와 더불어 오는 22일~5월 2일 서울 백상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

이같은 불교문화사이트들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보다 더 다양한 분야까지 확산되면서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 뿐 아니라 실재 전시장을 찾도록 이끌어 내는 역할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일반불화와 달리 은은한 느낌을 자아내는 김룡사 괘불탱.

## 괘불 보노라면 '환희심'

### 김룡사 괘불탱 특별전

**11일~9월30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거룩하고 원만한 대형 괘불을 직접 친견하면서,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새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스님)은 11일~9월 30일까지 '김룡사 괘불탱 특별전'을 연다.

김룡사 괘불탱은 화폭 947×702cm의 대형으로 본존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2열씩 보살과 신중을 안팎으로 배치한 종오선(縱五線)의 독특한 구도를 가진 괘불탱이다. 특히 일반 불화와는 달리 권속들 사이에 여백을 많이 남기고, 여백을 간색조의 오색구름으로 가득 메워 은은하고 화사한 느낌을 자아낸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스님은 "앞으로도 매년 2회에 걸쳐 괘불특별전을 기획해, 박물관 소장 괘불뿐 아니라 전국 사찰에 소장돼 있는 괘불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전시에 앞서 11일 괘불을 야외법당에 모시는 절차인 괘불이운식을 재현했다. 괘불은 높이 10m이상의 초대형이 많아 1년에 한두 차례 영산재, 성도재와 같은 큰 야회법회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따로 보관되는데, 법회장소로 옮기는 절차가 매우 장엄하고 엄숙하다. 이날 괘불이운식은 지난 3월 19일 괘불이운을 전담할 목적으로 창립된 괘불봉찬회가 맡아 통도사의 부도전에서 성보박물관까지 이운의식을 이끌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 "수행과정 음악으로 표현"

### 음악회 '새천년의 봄' 연 윤소희-권은영씨


◇10년 인연을 음악회로 펼쳐낸 윤소희(오른쪽)와 권은영씨.

"자신을 버리는 수행의 과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결국 음악도 집착을 떠난 자리에서 가장 순수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작곡가 윤소희씨(동국대 국악과 교수)와 거문고 연주가 권은영씨. 부산대학과 동대학원에서 함께 국악을 전공한 불자음악가로 10년 인연을 이어온 이들이 3일과 4일 그 인연의 보따리를 음악으로 풀어냈다.

'새 천년의 봄-윤소희와 권은영이 함께 여는 음악회'를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3일)과 부산 가람아트홀(4일)에서 연 것이다. 윤씨가 작곡한 음악들을 거문고 연주자인 권씨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과 함께 연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연주회에서 선보인 곡은 모두 네 곡.

동심의 순수함을 좇는 어른의 마음을 표현한 '놀이터', 구도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불교의 심우도를 음악적으로 재구성한 '심우도',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과 한국 승려 혜초의 만남을 가상한 '손오공과 혜초의 여행',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표현한 '새천년의 봄' 등이다.

"이번 연주회의 특징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미래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는 두 사람은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장구, 북 등 우리 악기와 트라이앵글, 실로폰, 템버린, 캐스터네츠, 드럼 등 서양악기를 함께 어우르고, 최신 유행음악인 테크노와 우리가락의 접목까지 시도했다.

이번 연주회에서 선보인 곡들은 곧 CD로 제작되며, '손오공과 혜초의 여행'은 오는 가을 발족할 아시아음악학회의 기념공연에서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작곡가 윤씨는 "불교적 감흥을 담은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전국의 강원을 찾아 학인스님들을 위한 산사음악회도 열고 싶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다음 커뮤니케이션 TV광고에서 해맑은 수행승의 모습을 보여줄 원성스님.

## 원성스님 광고출연

### 다음 커뮤니케이션 CF
### 구도수행과 검색 '연기'

동승의 작가 원성스님이 인터넷기업 다음커뮤니케이션 TV광고에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부터 지상파 3사에 방송될 예정인 이 광고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찾는 검색 기능만이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과 같은 깊이 있는 철학용어까지도 검색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 광고를 제작한 제일기획의 박성혁 차장은 "구도자의 깊이 있는 수행 모습처럼 인터넷사이트도 심도있는 부분까지 검색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며 "컴퓨터 세대이면서 해맑은 구도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광고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것 같아 스님을 캐스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다음' 광고는 범람하는 인터넷사이트 속에서 구도하는 수행자의 이미지를 대비시켜 깊이있는 검색기능을 서비스 하겠다는 차별화된 광고라는 점에서 불교포교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신창송씨 '부처님 오신날'

## 불교사진연합회 회원전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 제5회 회원전이 10일~15일 서울 충무로 후지포토싸롱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부처님 오신날' '수행' '미소' 등 불교적 감흥과 풍경을 담은 사진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또한 불교사진연합회는 오는 21일~26일 부천역 문예전시관에서 2차 전시를 실시하고, 부처님 오신날을 앞둔 5월 3일~13일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 불교음악협 봉축음악회

한국불교음악협회(이사장 운문스님)는 12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붓다, 영원한 자비의 손길' 음악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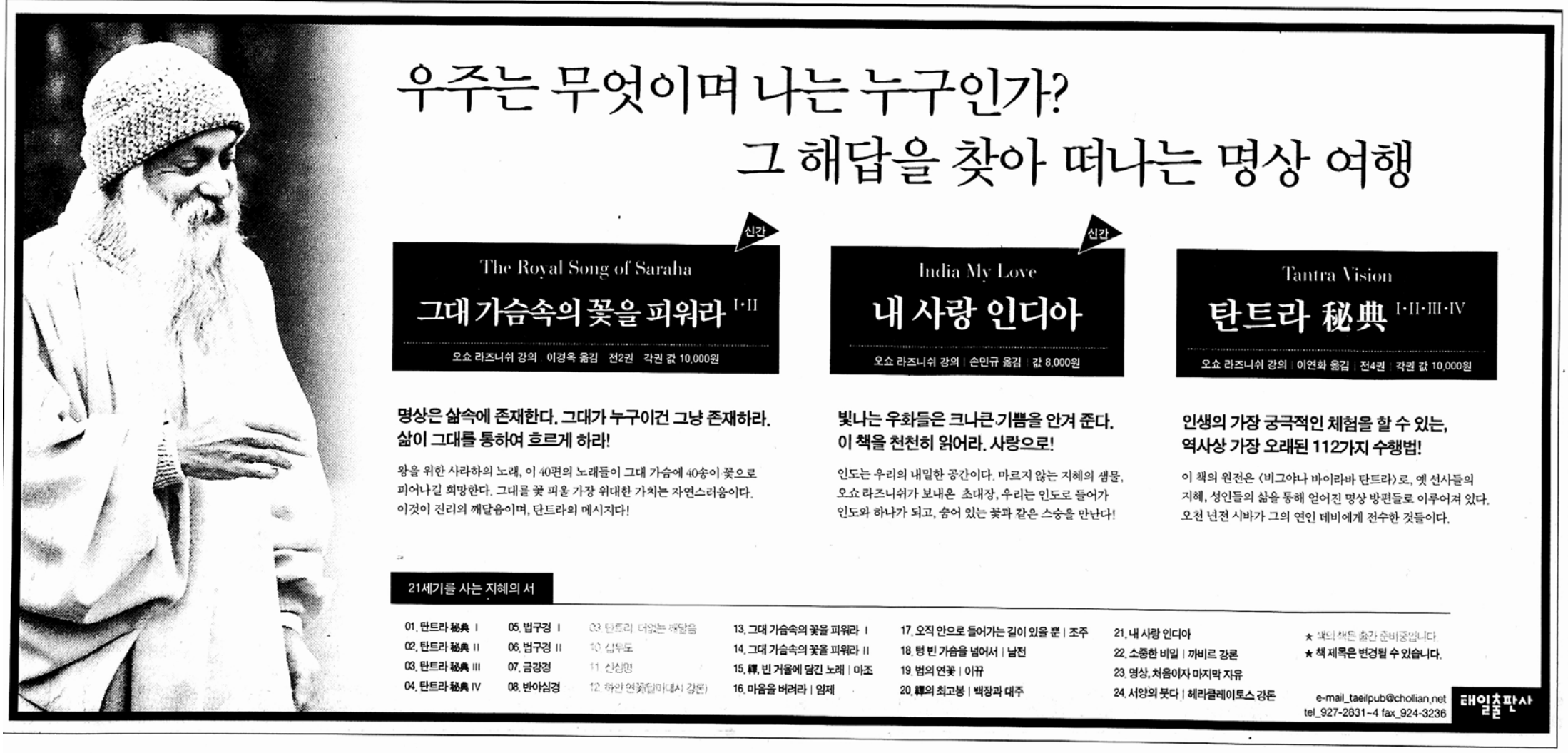
이날 음악회는 1부에서 불교음악지도자연합합창단과 어린이연합합창단, 사암연합합창단 등이 출연해 찬불가를 선보이며, 2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초연됐던 오페레타 '아미타불'이 재공연될 예정이다.

(02)734-0440

## 9회 한국불교꽃예술전

부처님오신날 맞이 제9회 한국불교꽃예술전이 17일~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한국불교꽃예술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꽃예술 전시회 및 화혼의식과 육법공양의식'이 선을 보인다. 또한 한국불교꽃예술회는 출품작도 접수한다. 작품주제는 사대명절, 봉축불단화, 관불화, 경전을 중심으로 한 꽃꽂이, 일반 꽃예술작품 등이다.

(02)2298-3377






# 인물로 본 한국불교 정신사의 흐름

## 황원갑 '고승과 명찰'

### 고승과 거사 25명 행장
### 10여년간 현장답사
### 역사적 기록과도 대조

'고승과 명찰'.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답사서. 이 책이 담고 있는 근본 뜻은 제목보다 더 의미심장하다. 답사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행의 사표가 됐던 사찰과 고승들을 깊이 있게 조명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30년 넘게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 소설가 황원갑씨(서울경제신문 문화부장). 정신사를 이끌어 온 고승들의 행장, 그리고 그들의 법향이 스며있는 수행의 현장인 사찰을 고찰함으로써 사찰 속에서 고승들의 숨결까지 느끼게 하는 깊이를 더하고 있다.

고승이 한국불교사의 정신적 스승이라면, 명찰은 그들의 사상적 모태다. 고승이 단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인이 아닌 불교사의 영원한 스승으로서 불교 중흥의 버팀목이 됐듯이, 명찰 역시 불자들의 신행과 수행의 공간으로서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있다.

이처럼 불교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문화사와 정신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가행정진하고 보살행을 실천했던 고승들이다. 백제가 멸망한 뒤 진표 율사가 유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으며, 신라 말 도선 국사는 풍수비보사상을 통해 불법을 펼치고자 힘썼다. 또 억불숭유의 암흑시대에도 보우·서산·사명·진묵과 같은 고승들이 호국의 선봉에 서거나, 전쟁의 혼란기에 방황하는 민중들을 불법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밖에도 조선왕조 말기에는 경허 선사가 꺼져 가는 법등에 새로이 불을 밝혔으며, 그의 뒤를 이어 일제 강점기에 왜색 불교와 맞서 민족 불교를 지킨 용성·만공·만해·경봉 스님 등이 있었다.

신간 〈고승과 명찰〉(책이있는마을)은 우리 나라 불교사의 대동맥 역할을 했던 24명의 고승과 재가자로서 깨달음을 이룬 부설거사의 행장과 사상을 그들이 주석했던 사찰을 중심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글쓴이가 10여 년간 현장 답사와 고증을 거쳐 우리 나라 불교사를 한눈에 되짚어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물이나 사찰 기행의 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다.

신라불교의 초석이라 할 아도 화상과 도리사, 한국불교의 영원한 새벽인 원효 스님과 분황사, 한국 화엄종을 연 의상 스님과 낙산사, 재가 성도한 부설거사와 월명암, 미륵불로 찬양 받던 민중의 성자 진표율사와 금산사, 최초로 범패를 전한 진감 국사와 쌍계사….

고승들의 장엄한 생애를 서사시처럼 쓴 〈고승과 명찰〉은 '고승을 통한 역사 읽기'라 할 만하다.

글쓴이는 "고승들의 치열한 수행이 서린 역사의 현장인 명산 고찰을 관광지나 유원지로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의 주된 관심사는 고승들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것이지만, 눈밝은 이는 그 속에서 마음을 맑히는 방법도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신라에 처음으로 불법을 전한 아도 화상 진영.

## 새로나온 책




▲불자신행의 길잡이(현익채·고우익 엮음, 불심홍법원)= 바른 믿음과 올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신행 길라잡이'라 할 만하다. 이 책은 예불문과 정근이 담긴 예경부터 법회, 불자의 생활의례, 수지독송, 교리, 예법, 불교상식, 발원문, 찬불가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재가 불자들이 각종 법회와 의식에 앞서 참고가 될만한 기본 자료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값 1만1천원.

▲선덕여왕을 클릭하면 큰 지혜가 보인다(박순정 지음, 오늘)= 신라 27대 선덕여왕의 업적과 그 시대의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연구서이다. 이 책은 향기로운 황제의 사찰-분황사, 공덕가의 고향-영묘사터, 선덕여왕을 모신 사찰- 부인사, 용이 나온 궁궐을 사찰로 바꾸다-황룡사터, 호국정신의 금자탑-황룡사 9층 목탑 등 1천3백여 년 전 삼국통일 위업의 단초가 된 선덕여왕의 발자취를 좇고 있다. 값 7천5백원.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윌리엄 제임스 지음, 김재영 옮김, 한길사)= 100년 전 출간된 이 책은 종교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고전.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삶의 다양한 현상들이란 삶과 유리된 관념이나 논리로는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의 근원적 의미는 양심의 갈등, 죄의식, 소망, 기쁨, 감사, 겸손, 자비 등 인간 개개인이 표현하는 감정과 행위 속에 있다고 주장한다. 값 2만5천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한순복·최호신 공저, 석일사)= 장애를 딛고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한순복, 최호신 두 저자의 장애 과정과 이를 극복하고 노래로 일반 무대에 서게 되기까지의 휴먼스토리. 이들이 구성한 혼성듀엣 엘 포스트와 장애인 예술단, 그리고 예술단 단원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값 8천원.




▲우울증은 치료된다(와타나베 쇼스케 지음, 오강섭 감수, 동도원)= 우울증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고 있는 가장 흔한 병이다. 그러나 병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힘들다. 정상인의 '기분 좋지 않은 상태'와 우울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책은 글쓴이가 경험을 바탕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와 가족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값 8천원.

▲제3의 사상(심백강 지음, 청년사)=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을 뛰어넘어 21세기에 인류가 지향해야 할 대안적인 사상을 모색한 책이다. 거대 담론이 부족하고 사상가가 드문 우리 나라의 지적 풍토에서 나름대로 이 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사상의 역사, 20세기의 사상, 세계 사상의 새로운 질서, 새 천년과 제3사상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값 8천원.

## 원효스님의 참모습과 만남

### 김상현 교수 '원효 연구'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가 〈역사로 읽는 원효〉에 이어 〈원효연구〉(민족사)를 내놓았다. 〈역사로 읽는 원효〉가 원효 스님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 책은 원효 연구의 결집이라 할 수 있겠다.

김 교수가 지난 87년 동국대 경주사학회에서 발표한 '원효의 미타증성게(彌陀證性偈)'를 비롯 '원효 형적에 관한 몇 가지 신자료의 검토', '원효 화쟁사상의 연구사적 검토' 등 12편의 원효 스님 관련 논문을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효 스님의 전기 자료로는 '서당화상비(誓幢和上碑)'와 〈송고승전〉 중의 원효전, 그리고 〈삼국유사〉 원효불기가 첫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들 자료도 후대의 기록이기에 엄정한 사료적 비판이 요구된다. 원효 스님의 기본 전기자료를 검토한 1장은 이같은 필요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2장 원효 저술의 유통은 문헌 비판적 입장에서 〈금강삼매경론〉과 〈보살계본지법요기〉를 살펴본 것이다. 원효 스님의 정토사상과 화쟁사상, 그리고 원효진나후신설(元曉陳那後身說) 및 그의 불신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 3장 원효 사상의 전개이다.

김 교수는 이어 〈원효유문집〉도 간행할 계획이다. 값 1만7천원.




## '불교평론' 봄호 발간

### 선불교 특집 등 읽을거리 다양

현대 불교의 여러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 비평하고 있는 〈불교평론〉 봄호(통권2)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현대사회에 대한 불교적 분석과 대안제시'라는 주제의 특집을 마련, 다각적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특집 1 '다시 보는 선불교의 제문제'에서는 △한국선, 무엇이 문제인가(심재룡) △한국 간화선의 형성과 변화 과정(최연식) △선어록 독법의 문제점(신규탁) △또 다른 선, 위파사나의 이해(김열권) 등의 논문을 통해 선에 대한 현대적 접근과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또 특집 2 '새 천년에 대응하는 불교의 저력'에서는 △신승(新乘)불교 도래론(정병조) △미래사회에서의 불교사상의 위상(류승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불교의 입장(김용표) △새 천년 한국불교의 도전과 비전(프랭크 테데스코) 등의 글을 통해 한국불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허우성 경희대 교수의 특별기고 '법정이 철학자에 던지는 화두'를 비롯, 차차석 박사의 해외불교체험 '중국불교 주마간산기', 논단 '시민운동에 보내는 불교의 고언(김성철)'과 '사찰불사의 몇 가지 과제(이기선)', 기획연재 '불교에서 보는 철학, 철학에서 보는 불교(2)' 등 흥미로운 주제의 글들이 실려 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 정토부 범본경전 첫 직역

### 최봉수씨 '극락장엄경'




우리 나라 경전의 대부분은 인도 범본을 한역한 것을 우리말로 다시 옮긴 것들이다. 이로 인해 번역상 오류가 많았던 것이 저간의 현실이다.

신간 〈극락장엄경〉(동산법문)은 범본 경전의 한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말로 번역한 첫 경전이란 점에서 정토부 경전 연구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문 경전의 〈불설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 해당되는 이 책은, 최봉수씨(동국대 강사)가 범본 〈극락장엄경〉 소본과 광본을 기본자료로 하여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여러 번역본을 한눈에 비교해 보면서 번역 과정에서의 오역 및 원전의 의미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책만의 특징이다. 범본과 함께 한역본을 수록해 범본과 한역자료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할 수 있게 수록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말 번역에 이어 데바나가리 문자로 되어 있는 범본 원문을 음사한 로마자도 수록했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 비판불교 형성-연구방법 '비판'

### 고려대장경 연구소 '비판불교 파라독스'




우리에게 친숙한 불교 사상인 여래장·본각·불성·선 등은 부처님이 버리고자 했던 일원론적 본질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해, 서양 학자들을 놀라게 했던 '비판불교'의 개설서가 발간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한 시리즈 세미나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에서 발표된 국내 학자의 논문 9편과 마츠모토 시로 교수의 논문 1편을 모아 〈비판불교의 파라독스〉를 펴냈다.

회를 거듭하면서 경전 연구에 몰두해 있는 국내 불교학 연구 방법론에 제동을 걸고, 철학적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세미나는, 비판불교의 형성과 원리 그리고 연구 방법론 등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비판불교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을 시도했다.

이 책에는 '비판불교의 파라독스'(소흥렬), '비판불교란 무엇인가:그 학문과 실천의 전제들에 관하여'(심재관), '비판과 회통의 연속 체계:중도적 사관에 대한 모색'(안승준), '마츠모토 시로의 도겐 사상에 대한 견해 검토'(김호귀), '비판불교에 대한 비판적 논의'(마츠모토 시로) 등이 수록됐다.

비판불교는 80년대 후반 일본 고마자와 대학의 하카야마 노리야키와 마츠모토 시로 교수에 의해 체계화됐는데, 소위 '보리수 가지치기(Pruning the Bodhi Tree)'를 통해 불성, 본각, 여래장 등과 같은 불교의 핵심 사상을 부정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학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값 1만2천원.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 서 명 | 저·편자 | 출 판 사 |
|---|---|---|---|
| 1 | 선방일기 | 지 허 | 여시아문 |
| 2 | 민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 현 각 | 열 림 원 |
| 3 | 깨달음의 열쇠-반야심경 | 김 사 철 | 한국불교연구원 |
| 4 | 오두막 편지 | 법 정 | 이 레 |
| 5 | 적멸의 즐거움 | 정 휴 | 우 리 |
| 6 |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 일 타 | 효 림 |
| 7 | 생활 속의 기도법 | 일 타 | 효 림 |
| 8 |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 변 상 섭 | 시 공 사 |
| 9 |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 | 프레데릭 젠즈 | 황금가지 |
| 10 |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스티븐 미첼 | 여시아문 |

도서 안내:(02)737-0695


우 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책들입니다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 치료법

화제의 신간



첨단 의학의 틈새를 파고드는 놀라운 민간 요법. 수천 년 전의 민간비방의 비밀이 담긴 책. 사상 체질을 쉽게 알아내는 법과 건강을 지키는 호흡법, 가정에 있어야 하는 상비요법 7가지 등 다채로운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12,000원

내 병은 왜 낫지 않을까?

좋은 인연 맺는 법



현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남산스님의 산중 에세이!
끌리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 속에는 세상사 분별과 갈등이 없는 대자유인의 마음이 담겨있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오다가다 만난 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파스요법'의 남산스님이 쓴 죽비같은 에세이!
한 스님의 좌충우돌로 맺어지는 인연의 야단법석.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 교만과 독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든 현대사회에서 진실한 자아를 찾아주는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남산스님의 파스요법 비디오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파스를 이용하여 자기 몸 속의 질병을 다스리는 21세기 대체의학. 각종 호흡기질환에서 부인과 질환까지 파스 한 장이면 뚝! 각종 '남산스님의 파스요법'이 드디어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판매공급처 :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 값 20,000원

※ 관절염, 류머티스, 신경통,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는 남산스님께 연락 주시면 무료로 약을 보내드립니다. -방문사절, 전화상담- 0502)988-6565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대표전화 3471-5008 팩스 :3471-6575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불교와 문화'가 격월간으로 발간됩니다

2000년 3·4월호

'불교와 문화'가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를 지향하며 디지털 시대, 열린 지면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 3·4월호부터 격월간 발행을 시작합니다.

종범 스님의 지상설법

2000년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의 육바라밀(六波羅蜜) - ❶ 보시(布施)
인터넷 정보혁명의 시대를 사는 불자들에게 대승불교 보살의 수행방법인 육바라밀을 통해 올바른 신행방향 및 불교의 역할을 제시한다

집중서평 김용옥 선생의 선불교 이해는 정확하다
- 최근 발간된 변상섭 선생의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에 대한 반박 글

컬러화보 ① . 이호신 화백의 생태그림기행 - 그림 속에서 찾는 山水와 기람의 숨결 - 자연이 숨쉬는 상생의 터전, 선암사
- 相生의 시대, 相生의 문화를 꿈꾸는 중견 한국화가 이호신 화백이 전국 사찰을 직접 답사하며 그린 사찰 경관과 자연생태 그림 시리즈

컬러화보 ② 사진으로 보는 기람의 어제와 오늘
- 삼보사찰,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전각들의 변천사(일제시대와 현재의 모습)를 사진을 통해 비교한다

故 최웅호 법사를 추모하며

최초 발굴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 탐방
- 그동안 일본 속의 백제불교에 비해 연구가 미약했던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에 대해 현지 탐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 소개한다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 고려 공민왕이 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인터넷으로 만나는 세계의 불교, 불교문화
- 최근 세계 불교계의 동향 및 괄리어 불전 전산화 사이트 소개

현대인을 위한 알기쉬운 불교신행
부처님의 가르침, 어떻게 믿고 실천할 것인가 - 관음신앙편(관음신앙의 특징, 관음기도법, 관음성지 소개)

인물포커스 근·현대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언론/출판편)
불교방송 초대사장 장상문 거사
전 불교신문 사장 이한상 거사

우리시대의 匠人 - 새 천년을 열어가는 앞서가는 불자
불교인터넷텔레비전 대표 임동민 씨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kbpf@chollian.net

# "禪은 종교 넘어선 실천 철학"

선학연구원 2차 덕숭선학 학술회의 열려

## "생태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증호 스님


◇심재룡 교수


◇이은윤 원장

21세기 초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선(禪)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실천적 방법을 찾지 믓한 가운데, 한 학술회의에서 "선은 그 본체가 이미 불교라는 종교에 국한하는 테두리를 넘어선 철학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정신적 대안으로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건저 선의 생활화·대중화·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박이문(美 시몬스 칼리지) 뎡예교수, 종호(동국대 교수) 스님, 심재룡(서울대) 교수, 이은윤(한국불교선학연구원) 원장 등 수십 년간 선을 수행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모인 '한국불교선학연구원 제2차 덕숭선학 학술회의'에서다.

7일 수덕사 황하루에서 '21세기와 한국선(韓國禪)'을 주제로 열린 이 학술회의는, 한국 선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경허(1846~1912)·만공(1388~1463) 스님의 깨달음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선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실천적 방법을 논의한 자리였다.

그 동안 뉴 밀레니엄 시대에서 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시대적 변화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비판적으로 부화뇌동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학술회의는 바로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행동하는 선(禪)을 탐구한 셈이다.

'만공의 선 세계와 미래문명의 비전'을 발표한 이은윤 원장은 "선의 원리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조명해 새롭게 부상하는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절실하다"며 "선의 깨달음은 바로 '불법의 육화(肉化)'로, 그 본체가 이미 불교라는 종교에 국한하는 테두리를 넘어선 사상체계고 철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결코 외도라고 비판하거나 백안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프로농구사상 처음으로 92년부터 94년까지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시카고 불스팀의 훈련 방법이 '불법의 육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하는 이 원장은 "필 잭슨 감독의 훈련의 근간을 이룬 게 만공 스님의 '무심시도(無心是道)'이며 선의 사회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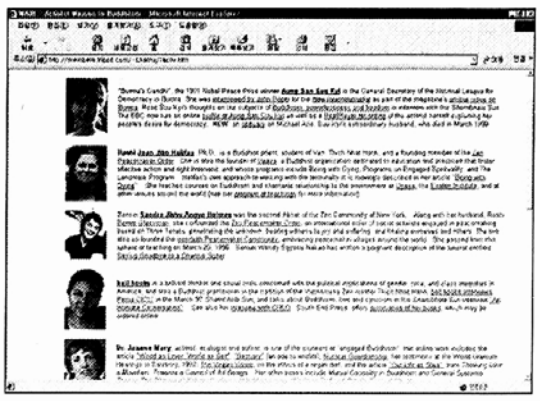
박이문 명예교수는 '뉴 밀레니엄의 문명 패러다임과 선'에서 "선불교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인간중심적 사상을 이제 생태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박 명예교수는 "21세기에는 전(前) 세기와는 다른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선불교는 모든 생명을 한몸으로 보는 대승적 패러다임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선의 특수성과 보편성', '한국선과 21세기 문화'를 각각 발표한 종호스님과 심재룡 교수는 "법을 전하는 스승에 대한 존경은 필요하지만 매사 스승 중심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세기에는 맹목적 추종보다는 비판적 신심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불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염불·주력·간경 등이 삼매의 한 수단으로써 간화선과 나란히 갈 수 있다는 점을 소상히 논의해야 하고, 또 선불교도 이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논리에 의지해서 대중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학술회의에서 종호스님은 '한국선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한중광(성균관대 강사) 씨는 '경허의 선사상과 한국선의 진로'를 각각 발표했다. 또 현각(동국대 교수) 스님, 목정배·권기종(동국대) 교수, 강건기(전북대) 교수, 허우성(경희대) 교수 등이 논평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여성운동

## 여성불자 지위와 역할 '재조명'

여성불자들이 개설한 사이트를 탐험하고 그들의 활동을 소상이 열람한다면, 네티즌 우바이들은 불교계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인 여성불자 줄리안 밀톤이 지난해 초 개설한 '불교여성운동(Women Active in Buddhism)' 사이트는 일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무려 1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있는 사이트다.

### 여성불자 캠페인 '관심'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여성불자 캠페인' '유명한 여성불자' '경전 속의 여성'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상공간의 사이트 평가기관인 달마링(Dharmaring)에서 이 곳 정보의 우수성을 인정해 파란색 리본 모양의 달마링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유명한 여성불자'에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이름과 작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품도 압축된 텍스트 파일로 마련해 놓고 있어 다운로딩(가져오기)이 가능하다. 이 중에는 80년대 미국의 서점가를 강타했던 릴리 디 실비아씨의 〈세상에 남긴 발자국〉을 비롯해 부르스타인의 〈파라미스〉, 칸다시리 스님의 〈끝없는 사랑〉, 헤리스의 〈불교를 배우자〉, 아웅산 수지 여사의 〈명상과 희생〉 등 40여권이 소개되어 있다.

'여성불자 캠페인'에서는 학술·문화계의 여성불자와 상좌부·금강·선불교 등의 여성불자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스코틀랜드에서 불교의 꽃을 피우게 한 아야 케마 스님은 한 번쯤 읽어봄직 하다.

케마 스님은 87년 세계비구니 대회를 개최해 당시까지 가부장적이었던 각국의 승단을 놀라게 했다. 케마 스님은 이 대회를 계기로 '부처님의 딸들(사키야디타)'이라는 국제여성불교단체를 결성했다. 케마(Khema)란 안정과 평온을 뜻하는 빨리어다. 이외에도 30여명의 여성불자들을 소개하고, '메일보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불자 네티즌들이 이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전 속이 여성'은 담마디나 등 부처님의 여성 제자들 삶과 생애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에서는 여성 제자들이 경전에서 보인 성격과 행동 등을 현대로 옮겨 놓고 소설처럼 새롭게 구성한 인물 평전도 열람할 수 있다.

### 여성제자들 생애 소개

'여성불자 수계식'에서는 범어와 빨리어경전을 토대로 사미니계와 비구니계를 설명해 놓고 있으며, '부처님의 여성성'에서는 티베트 불교계의 여러 불상과 탱화에 나타난 여성성을 조명하고 부처님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닝마파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부처님으로 추앙받고 있는 에카자티를 비롯해 쿠루클라 등 28종의 불상이 소개된다. 에티카는 하나의 머리, 눈, 입, 가슴 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미국 여성의 눈에 비친 불교〉〈고독한 도반〉 등 여성불자와 관련한 20여권의 서적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구니로서의 삶' '티베트여성 보고서' 등 각종 연구서들도 소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http://members.tripod.com/~lhamo/


◇지난해 3월 서울지방검찰청이 문화재 도굴·매매업자 손수석(64·재판중)씨에게 압수한 복장유물들. 현재까지 소재 사찰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복장물 도난 증가 "복장 터진다"

# 실태조사 불가피

여러 사찰에서 부처님 복장물이 도난당하자, 문화재 전문가들이 "전국의 부처님 복장물을 조사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복장물 모두가 비지정 문화재인데다, 도난당한 해당 사찰에서도 복장에 어떤 유물이 들어있었는지 알 수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발간한 〈불교문화재도난백서〉에 따르면 99년 한해 동안 도굴범에 털린 복장물은 경북 환성사 삼존불상을 비롯해 50여 구에 이른다. 특히 백서 발간 이후 홈친 불화나 불상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도난 복장 유물은 더욱 음성적 방법으로 숨어들게 되고 영원히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성욱(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원) 씨 등 문화재 전문가들은 "복장물 대장은 고사하고, 어느 불상에 어떠한 복장물이 들어있는지 정확한 자료도 없는 실정"이라며 '복장조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전모(신도회장) 씨 등에게 압수한 〈감지은니묘법연화경〉과 〈백지금니변상도〉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 282호·경북 영풍 흑석사)에 있었던 국보급 복장물이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전국의 불상 가운데 20% 정도에만 복장물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복장이 털려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은 숫자의 불상에만 복장물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복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장조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종무회의나 본·말사주지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다 '복장조사' 자체를 싫어하는 스님들이 많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 역시 지난해 백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장물 도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복장조사'에 대한 가안을 세우기도 했으나 구체화되지 못했다. 스님들의 경우, 복장물을 성물(聖物)로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금과 같은 보수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 외에는 복장을 열지 않는 게 사찰의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창균(문화재전문위원·불교공예) 씨는 "불상 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천왕상과 나한상의 복장유물이 주 표적이 되고 있다"며 "복장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 "강원도-경기도 군사보호지역 불교유적·유물 77건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군사보호구역 내에는 모두 77건의 불교유적·유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가 지난 91년부터 10년간 추진한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학술조사'에 따른 것.

조사한 유적·유물을 종류별로 보면 사지 55건, 불상 10건, 탑·비 11건 등 모두 77건이며, 이는 전체 유적·유물 수와 비교해 96%에 이른다. 이중 용미리 석불입상(보물 93호·경기도 파주군 광탄면)과 계성리석등(보물 496호·강원도 화천군 하남면)을 비롯해 한계사지(강원도기념물 50호), 위라리사지(강원도유형문화제 30호), 금학산마애불·삼동리3층석탑 및 석불좌상(강원도문화재자료) 등이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주요 유적·유물이다.

특히 백령도의 경우 실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적의 존재를 짐작하던 곳이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연화리사지'를 확인한 것이 서해 도서지역의 불교문화를 밝히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선태 실장(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실)은 "이 조사를 계기로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불교유적·유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셈"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 불교문화에 대한 합동 조사의 발판도 닦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학술조사의 세부내용을 정리한 〈조사보고서〉를 올해 하반기 중 발간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 문화재 단신

#### 수덕사 '근역성보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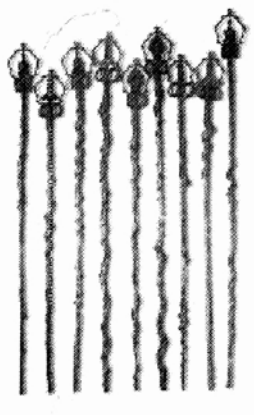
불교 유물과 옛 스님들의 유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 근역성보관(槿域聖寶館)이 11일 문을 연다. 근역성보관에는 불교역사관 미술관 만공기념관 등이 마련됐으며 문화재 600여점이 전시된다. 수덕사 측은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 97년 건물을 완공하고 3년여 동안 불교 유물 수집 등 전시준비를 해왔다.

#### 개인소장 문화재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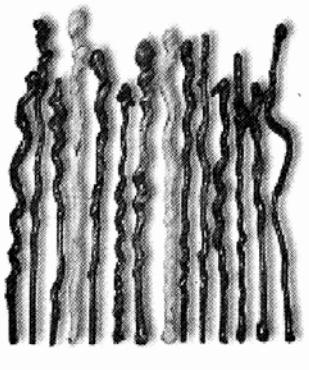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반인 소장 유물을 대상으로 문화재 감정을 실시한다. 감정일시는 매달 첫째, 셋째 목요일이며, 하절기(3월~10월)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동절기(11월~2월)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의뢰 유물과 신분증, 유물 1점당 사진(3x5) 1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02)398-5000


# 구세구난 • 법계상징물... 육 환 장

고려불화원본 육환장



자연원형 범상용 주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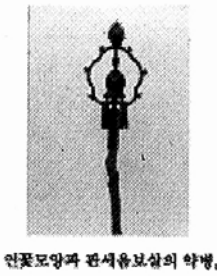
연화좌대 위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쌍떠가 금속하게 조각된 육환장.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에 나타난 육환장. 일본 대천미술관 소장.



상용과 오륜타파, 연꽃모양이 중심을 이룬 육환장.



연꽃모양과 관세음보살의 약병, 여의보주 등이 조각된 육환장.

나무의 공간 우담발화찻상





우주를 우리낸다 송찻잔



자루가 안빠지는 종밤치

일시 : 단기 4333년 4월 12일(수) ~ 4월 18일(화)
장소 : 경인미술관 유리전시실(서울 인사동)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육환장연구원
후원 : 4.8봉축위원회,현대불교신문사,불교방송

대한불교조계종 육환장연구원

사원전통 手工예 3
氣發韓 백두대간 茶床展

소부강삼작

# 중죄 하나만 범해도 계체 소멸

##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4〉

### 오계상경-8

### 손발·도구 사용 살인한 죄 참회 불가
### 죽지 않았으면 참회할 수 있는 죄 해당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색(內色)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이며, 셋째는 내색과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색'이라는 것은 우바새가 손이나 발 또는 몸으로 다른 이를 때리거나, '이것으로 인해 죽으라' 하여 이로 인해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어도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도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中罪)이므로 참회할 수 있다.

'내색이 아닌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만약 사람이 나무, 기왓조각, 돌, 칼, 창, 화살, 아연 덩어리(段鉛), 주석 덩어리(錫段) 등을 사람에게 던지며 '이로 인해 죽어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만약 곧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해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이므로 참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죽이는 방법이나 수단을 말한다. 손발과 몸을 내색이라 하는 까닭은 범부의 마음(凡情)으로 느낄 수 있고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토막이나 기왓조각, 돌 등은 내색이 아니므로 '외색(外色)'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내색을 쓰기 때문에 내색과 외색을 함께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해쳐서 곧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했을 때, 이는 모두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 다만 죽이려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허물은 있지만, 계체를 잃지는 않는다. 은중하고 부지런히 참회한다면 살심(殺心)을 없앨 수 있으므로 중품(中品)의 참회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계를 받은 이가 다섯 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 계만 범하여도 오계의 계체가 모두 깨지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본중죄를 범하면 단 한 가지 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계체는 모두 깨뜨려진다. 마치 인체의 중요한 한 부위라도 다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멀쩡하더라도 곧 죽게 되는 것과 같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독약을 섞어 눈, 귀, 코, 몸의 부스럼에 바르거나, 음식 속에 넣거나, 옷이나 이불 속에 넣거나, 수레 속에 넣어두고 '이것으로 인해 죽어라' 해서 만약 죽으면 이 죄는 참회할 수 없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해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곧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로 인해 죽지 않으면 이것은 중죄이므로 참회할 수 있다.

이는 독약 같은 것으로 사람을 죽인 죄를 말한다. 손이나 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또 나무토막, 돌, 칼, 지팡이 등도 쓰지 않았으므로 내색이나 내색 아닌 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다.

연기도 나지 않는 불구덩이를 만들어 죽이거나 핵(核)이나 덫으로 죽이거나, 함정에 빠뜨려 죽이거나 쏘아 죽이거나, 비타라(vetala)로 죽이거나 태를 떨어뜨려 죽이거나, 배를 눌러 죽이거나, 불이나 물, 구덩이 속에 떠밀어 죽이거나, 길가에 내보내 죽게 하거나, 태중에서 처음으로 두 가지 근을 받았을 때 방편을 일으켜 죽이는 것 등이다.

핵, 덫, 쏘는 것 등은 모두 죽이는 도구들이다. 비타라는 시체를 일으켜 세우는 주술로, 인도에서 시체를 움직이게 하여 살인하게 하는 주법을 말한다. 위의 여러 가지 죽이는 도구나 방법 등은 요즘의 창이나 포, 수류탄 등과 같다 하겠다. 다시 말한다면 어떠한 죽이는 도구나 방법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끊게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되고, 죽지 않으면 중품의 죄로 참회할 수 있는 죄가 된다는 것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 "번뇌망상 다 놓아야 고통서 벗어납니다"

## 법회중계

### 은하사 초하루법회

〈2000년 4월 5일〉



대성스님
〈김해 은하사 주지〉

### 육식은 진실 알 수 없어
### 본성 알아야 옳게 본 것
### 소견 버릴 때 심신 편안

어느날 임제 선사께서 도량을 거닐고 있을 때 왕상시가 찾아와서 승당 안에 있는 승려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선사에게 말하기를 "져 승려들은 경전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합니까?" 했거든요. 그러자 임제 선사께서 "경전을 보지 않네" 했답니다. 이어 왕상시가 다시 "저 승려들은 좌선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 임제 선사께서 말하기를 "좌선을 하지 않네" 했답니다. 그러자 왕상시는 "경전도 보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다. 임제 선사는 "부처나 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네"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왕상시가 말하되 "금 부스러기가 비록 귀하다 하나 눈 안에 들어가면 병이 됩니다." 하자 임제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그대가 속된 사람이란 것을 벌써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화는 굉소 왕상시가 잘난 체하는 것을 알고 임제 선사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근수를 달아 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논하지만, 나의 마음 즉 본성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무대에서 시작해서 모르는 무대에서 끝나는 것이니,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것이 제대로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 바로 들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육식이 모두 진실한 것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경전을 보고 있는 학승이 분명한데 경전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자 전광석화처럼 경전을 본 일이 없다고 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경을 보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시고 "나는 사바에 단 일구도 남긴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지요. 즉 색즉시공의 도리를 이르는 것입니다.

유정물, 무정물 모두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성은 영원불변하지만 그 개체만 조금씩 변할 뿐입니다. 즉 불변한 것은,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성이 불변하다 것은 정진을 하면서 밀밀성성(蜜蜜惺惺)히 참구해 나아갈 때 그 이치를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참구일념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번뇌와 망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참유식에 계합하는 길이라는 뜻이죠.

'내가 알고 있다' 혹은 '들고 있다'와 같은 것은 번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망상이다"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일으키는 생각들을 다 놓아버려야 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놓아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소견을 놓아 버릴 때 마음과 몸이 편안해집니다. 내 앞에 직면한 고통, 죄업을 스스로 해결하는 지름길은 바로 이것에서 출발합니다. 스스로가 지어놓은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용맹 정진을 해야 합니다.

절에 다니고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쥐꼬리만큼 노력하고 무한대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시작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쫓기는 듯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할 때 비로소 영원불변한 내 본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돌아갔다'는 말에는 '돌아온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음이 끝을 의미하지 않고 영원불변한 본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개체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돌아가는 본성 자리를 일념으로 참구하여 색즉시공의 참다운 도리를 요득하는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90년대 들어 극동불교에 관심

## 세계의 불교학 〈14〉 러시아 ⑤ 〈끝〉



◇부르야트(Burjat)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러시아 불교학자.

### 기신론 등 한문경전 주로 번역
### 한·일 고대 불교 연구도 눈길

구 소련이 몰락하면서 러시아 불교학계는 그동안 불교학의 초석이었던 인도불교에서 벗어나 극동지역의 불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변화의 원동력은 러시아 동양학의 주 텍스트였던 한역(漢譯) 경전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러시아에서 연구되고 있었던 동양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중국학'이 가장 발달되었다는 점도 이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중국불교에 대한 러시아 불교학계의 연구 깊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역 경전에 대한 번역과 주석 작업을 살펴야 한다. 이들 성과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토르치노프(E.A.Torchinov) 교수의 러시아어본 〈대승기신론〉이 있고, 이에 대한 주석서인 아바예프(N.V.Abaev) 교수의 〈기신론〉이 있다. 아바예프 교수는 〈기신론〉에서 현수(賢首) 스님의 〈의기(義記)〉와 종밀(宗密) 스님의 〈원인론(原人論)〉 등과 같은 한역 경전을 2차 연구 텍스트로 삼고 토르치노프 교수의 〈대승기신론〉을 연구해, 중국불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래장(如來藏) 사상을 밝히고 있다.

러시아 불교학계의 한역 경전에 대한 번역·주석 작업은 중국불교를 연구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극동지역의 불교 종파·교리·문화 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이그나토비치(A.N. Ignatovich) 교수의 〈Buddism V Yaponii. Ocherki rannei istorii(일본 불교 초기사 개요)〉는 극동지역 불교 문화에 대한 최고의 연구서로 꼽히고 있다. 이 책에서 이그나토비치 교수는 △일본에 초전된 백제불교 △토착 신앙과의 습합 △호국불교 △승관(僧官)제도 △일본의 거불(巨佛) 조성 등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볼코프(S.V.Volkov) 교수의 〈Rannyaya istoriya buddhizma v Koree(한국 고대 불교사)〉는 러시아에서 한국불교와 관련한 연구서로 유일하다. 볼코프 교수는 이 책에서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불교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불교에 대한 국가의 외호와 봉사 등을 조명하면서 고대국가의 정·교 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불교를 국교로 그리고 유교를 이데올로기로 각각 규명했다. 이외에도 이 연구서에서는 국가의 관직제도에서 스님의 지위와 역할을 소상히 조사하고, 일본 불교의 기틀을 다졌던 삼국시대의 스님들의 행장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또 모스크바대학에서 발간한 〈Buddizm, gosudarstvo i obshchestvo v stranah Tsentral'noy i Vostochnoy Azii v srednie veka(중세의 중앙아시아 극동에서의 불교, 국가, 사회)〉라는 논문집은 극동지역의 불교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논문집은 〈구운몽〉의 선불교적 논리, 중국 남·북조시대의 불교, 일본의 초기 불교, 유·불·선의 관계 등을 문화사적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불교학계는 90년대 이후 티베트·태국·미얀마 등의 불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인도·극동불교와 같이 특정 학파를 형성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러시아 불교학계는 현재 불교의 종파·교리·역사 등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종파 연구에서는 각 시대의 사회·정치적 역학 관계를 반드시 고려하고, 교리 연구에서는 자이나교와 같은 타종교의 교리와 비교하는 등 매우 다양한 연구 텍스트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러시아 불교학자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본 경전의 '빈곤'과 불교미술·건축·음악 등의 '외면'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해결되리라 믿기는 어렵다. 또 현재 미개척 분야인 한국불교는 관련 불서의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역시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당분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 로 화 정 본 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 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법 료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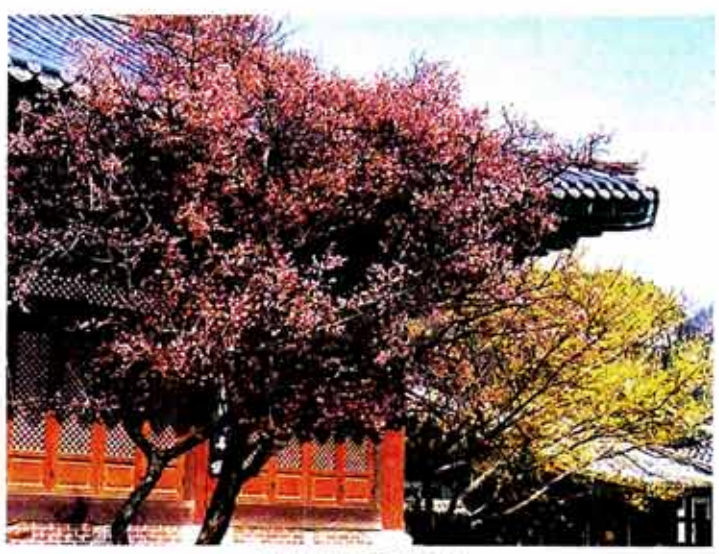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멀만 잘 풀어버리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스님를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료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전북 부안 내소사의 산수유꽃.


◇전남 진도 쌍계사의 동백꽃.


◇경남 합천 통도사의 매화.

## 선홍빛 동백…하늘가린 벚꽃터널…한껏 물오른 개나리…

# 산사의 봄 "이곳이 법계로다"

봄이다. 따뜻한 봄바람 따라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그 꽃들을 만나러 사람들은 길을 떠난다. 이번 봄에는 되도록이면 가까운 사찰에서 봄꽃들과 눈인사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사찰의 봄은 속세와는 확연히 다르다. 소리없이 번지는 봄기운 속에 은은한 운치가 배어 있는 곳.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혹은 사찰을 둘러싼 뒷산에까지 꽃, 나무, 풀들이 오가는 이를 반긴다.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헤집고 나와 아리따운 꽃봉우리를 맺고, 결국 그 환한 미소를 터뜨리기까지의 과정은 그 자체로 자연의 신비와 공생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활짝 핀 봄꽃들 뿐이랴. 화려한 꽃들 사이로 얼굴을 비집고 나온 이름 모를 풀과 새들의 노래, 또 코 끝을 간지럽히는 봄바람의 살랑임도 우리들의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될 것이다.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알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었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절창으로 더욱 유명해진 고창 선운사의 동백은, 예로부터 아름답기로 그 이름이 자자하여 수많은 시인 묵객의 넋을 사로잡았다. 선운사의 동백은 3월 말~4월 중순에 만개하는데, 선운사를 감싼 도솔산의 풍광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이 도솔산(선운산이라고도 한다)은 울거진 숲과 절묘한 바위 때문에 동산로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하다. 선운사 입구 오른쪽 비탈에서부터 절 뒤쪽까지 약 30m 너비로 군락을 이룬 3천여 그루의 동백나무들은 수령이 500년 가량 되며, 저마다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린다. 천하를 물들일 듯 당당한 기세로 위풍을 뽐내던 동백은 4월 말경이면 지는데, 꽃송이째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움의 극한을 느끼게 한다.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산에 자리한 백련사 동백꽃도 유명하다. 4월 초부터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붉디 붉은 선홍색으로 꽃잎을 활짝 연다.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절 앞의 숲도 아름답지만 백련사 사적비 조금 서쪽에 있는 행호토성 너머로 펼쳐지는 동백숲은 더욱 장관이다.

봄꽃이 화사한 절길 하면 가장 먼저 쌍계사 벚꽃길이 떠오른다. 10리에 이른다는 쌍계사 벚꽃길은 화개장터에서부터 쌍계사 입구까지 이어져 있다. 이 길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 화개 면장을 지낸 김진호씨가 쌍계사 가는 좁다란 길을 넓히면서 벚꽃묘목을 일본에서 구해 와 심은 데서부터 비롯됐다. 한때 말도 많았지만, 지금은 쌍계사와 더불어 화개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다. 쌍계사는 차(茶)로도 유명한데, 화개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벚꽃길 곁에도 '차시배지'가 있다. 이곳의 차는 신라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차나무씨를 가져와 처음 심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진감선사가 쌍계사와 화개 부근에 차밭을 조성함으로써, 오늘날까지 봄밭을 가득 담은 싱그러운 차밭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벚꽃과 차밭이 어우러진 봄정취를 음미하며 천천히 걷노라면 어느덧 쌍계사에 도착하게 된다.

조계산 선암사도 봄 정취를 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절이다. 조계산이 신록으로 새옷을 갈아입을 즈음, 선암사 곳곳에서 벚꽃과 목련, 모란, 앵두, 철쭉, 모과, 영산홍 등 갖가지 꽃들이 차례로 피어난다. 아름다운 꽃들과 고풍스런 선암사 전각이 어우러져 봄의 향연을 이룬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영주 부석사에는 사과꽃 향기가 독특하다. 일주문에서부터 부석사에 이르는 길에 핀 사과꽃은 4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은은한 사과꽃 향기가 지나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에 충분하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바라보는 먼 산의 풍경에서도 봄 빛 머금은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맘껏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봄 경치가 수려하다는 마곡사는 특히 봄이면 산벚꽃과 소나무가 어우러져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한편 북한산 심곡암에서는 22~23일 산벚꽃축제를 열 예정이며, 마이산 탑사도 21~25일 벚꽃길 걷기 축제를 연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 가볼만한 봄꽃 피는 절

| 사찰명 | 꽃피는 시기 | 주요 꽃 | 연락처 |
|---|---|---|---|
| 심곡암 | 4월 중순~하순 | 벚꽃 | 02-914-6060 |
| 화계사 | 4월초 | 진달레 | 02-902-2663 |
| 봉은사 | 4월초~월 | 산수유, 목련, 개나리 | 02-545-1446 |
| 청량사 | 4월 중순~말 | 철쭉 | 0361-244-1095 |
| 봉선사 | 4월 초~중순 | 진달래, 개나리 | 0346-527-1951 |
| 쌍계사 | 4월 중순 | 벚꽃, 진달래 | 0543-426-2221 |
| 범롱사 | 4월 중순~말 | 철쭉, 진달래, 개나리 | 0373-374-9177 |
| 동학사 | 4월 중순~말 | 벚꽃 | 042-825-3002 |
| 마곡사 | 4월 초~중순 | 산벚꽃 | 0416-841-6221 |
| 통도사 | 3월 말~4월 초 | 매화, 산수유 | 0523-382-7182 |
| 쌍계사 | 4월 초~중순 | 벚꽃 | 0506-883-7019 |
| 부석사 | 4월 중순 | 사과꽃 | 0572-633-3258 |
| 향일암 | 4월 중순~말 | 동백 | 0662-644-4742 |
| 송광사 | 4월 초~중순 | 벚꽃 | 0652-241-7811 |
| 화엄사 | 3월말~4월 중순 | 동백, 산수유 | 0664-782-7800 |
| 실상사 | 4월말~5월 초 | 철쭉 | 0671-636-3081 |
| 탑 사 | 4월 중순~말 | 벚꽃 | 0656-433-3313 |
| 광림사 | 4월 초~중순 | 살구꽃 | 0661-752-6380 |
| 선암사 | 4월 초~5월초 | 벚꽃, 목련 | 0661-754-5953 |
| 백련사 | 4월 초 | 동백꽃 | 0638-432-0837 |
| 선운사 | 3월말~4월 중순 | 동백꽃 | 0677-563-3450 |


◇경남 진해시 성흥사 앞마당에 만개한 벚꽃. 석탑과 더불어 아름다운 봄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봄꽃 이야기



▲산수유=산수유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으로 개나리, 벚꽃보다도 일찍 꽃을 피운다. 매화나 동백이 산수유보다 더 일찍 피지만 대개 남쪽에서 자라고, 또 봄보다는 아직 추운 겨울이라는 느낌을 전하는데 반해 산수유는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찾아왔음을 알려준다.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키작은 교목이다. 경기도 광릉지역에 주로 자생하며, 전국의 산야에 널리 퍼져있다. 3~4월에 꽃을 피우며, 8~9월에는 긴 타원형의 붉은 열매를 맺는데, 한방에서 다뇨·신경쇠약 등을 다스리는 약재로 쓴다.



▲개나리=개나리는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갈잎 떨기나무로, 우리나라의 특산 식물이다. 남쪽지방은 3월 말부터, 서울 근교는 4월초부터 노란빛깔의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열매는 6월에 맺는다. 개나리는 꽃이 아름답고 병충해와 추위에 강해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중요한 관상수로서 오래전부터 공원, 길가 등에 심어져 왔다.



▲동백꽃=동백은 따뜻한 해변 산지에서 잘 자라는 상록 교목이다. 남부해안지역에서는 2~3월에, 중부지방에서는 3~4월에 꽃망울을 터뜨린다. 야생종은 붉은색 홑꽃이 피는데, 요즈음에는 개량종으로 흰색, 담홍, 얼룩무늬 등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꽃을 선보인다.



▲진달래=진달래는 낙엽 활엽 관목으로 우리나라 및 만주 지방의 산간 양지 바른 곳에 자란다. 3월~4월에 잎보다 먼저 꽃이 피고, 자주빛이 도는 붉은색 진달래와 흰꽃이 피는 흰진달래, 털진달래, 왕진달래, 반들진달래, 한라산 진달래, 산진달래 등이 있다.



▲벚꽃=우리가 일본을 상징하는 꽃으로만 알고 있는 벚꽃은 원래 우리나라의 봄을 어느 꽃보다도 절절하게 알려주는 토종 우리 꽃이다. 제주도에 자생하는 왕벚나무는 대표적인 우리 토종 벚나무다. 장미과에 속하는 벚나무는 산벚나무, 가는잎벚나무, 개벚나무, 잔털벚나무, 털벚나무 등 품종도 많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4월 경에, 약 4일~5일 정도 피었다가 진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 다시 푸는 경서

### 달마 혈맥론(血脈論) ⑩

道本圓成 不用修證 道非聲色
도본원성 불용수증 도비성색
微妙難見 如人飮水 冷暖自知
미묘난견 여인음수 냉난자지
不可向人說也 唯有如來能知
불가향인설야 유유여래능지
餘人天等類 都不覺知 凡夫智不及
여인천등류 도불각지 범부지불능
所以有執相 不了自心 本來空寂
소이유집상 불료자심 본래공적
妄執相及一切法 卽墮外道
망집상급일체법 즉타외도
若知諸法 從心生 不應有執
약지제법 종심생 불응유집
執卽不知 若見本性 十二部經
집즉부지 약견본성 십이부경
總是閑文字 千經萬論 只是明心
총시한문자 천경만론 지시명심
言下契會 教將何用
언하계회 교장하용

도(道)는 본래 원만히 이루어진 것이니 닦거나 증득할 것이 없으며, 도는 소리나 빛이 아니라서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는 알되

**많은 경론 오직 마음 밝혔을 뿐이니**

**깨닫는다면 교법이 무슨 소용인가**

남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오직 여래만이 알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이나 하늘 등의 무리들은 도무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범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하므로 겉모습에 집착하여 자기 마음이 본래 비고 고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겉모양과 온갖 법에 집착하여 곧 외도에 떨어진다. 만약 모든 법이 마음에서 생긴 것임을 알면 집착이 있을 수 없다. 집착하면 알지 못한다. 만일 본성을 알게 되면 십이부경이 모두 부질없는 문자이다. 많은 경론이 오직 마음을 밝혔을 뿐이니 언하(言下)에 깨닫는다면 교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至理絶言 敎是語詞 實不是道
지리절언 교시어사 실불시도
道本無言 言說是妄 若夜夢
도본무언 언설시망 약야몽
見樓閣 宮殿 象馬之屬
견루각 궁전 상마지속
及樹木叢林池亭
급수목총림지정
如是等相 不得起一念樂着
여시등상 부득기일념악착

盡是托生之處 切須在意 臨終之時
진시탁생지처 절수재의 임종지시
不得取相 卽得除疑 心暫起卽魔攝
부득취상 즉득제의 심별기즉마섭
法身本來淸淨無受 只緣迷故
법신본래청정무수 지연미고
不覺不知 因玆故 妄受報
불각부지 인자고 망수보
所以有樂着 不得自在
소이유락착 부득자재

지극한 진리는 말을 떠났는데 교법은 말씀이니 진실로 도가 아니다. 도는 본래 말이 없고, 말이란 허망할 뿐이다. 만약 꿈에 누각이나 궁전, 상마(象馬)의 무리나 나무·숲·못·정자 등의 모습을 보거든 한 생각이라도 즐겨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다 중생으로 의탁하는 것이 되니 부디 주의하여라. 임종할 때에 형상을 취하지 않으면 즉시 의혹을 떨어버리지만 잠시라도 망심을 일으키면 마귀에 말려든다.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느낌이 없지만 다만 미혹된 까닭에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런 까닭으로 망령되이 업보를 받고, 이 때문에 즐기고 집착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只今若悟得 本來身心 卽不染習
지금약오득 본래신심 즉불염습
若從聖入凡 示現種種雜類等
약종성입범 시현종종잡류등
自爲衆生故 聖人逆順
자위중생고 성인역순
皆得自在 一切業 拘他不得
개득자재 일체업 구타부득
聖成久 有大威德 一切品類業
성성구 유대위덕 일체품류업
被他聖人轉 天堂地獄 無奈何他
피타성인전 천당지옥 무나하타

지금이라도 본래의 몸과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곧 습성에 물들지 않으리라. 성인이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본래 중생을 위해서이다. 성인은 역순(逆順)에 자재로워서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성인의 지위가 오래되면 큰 위덕이 있어서 온갖 종류가 성인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므로 천당과 지옥도 성인을 어찌하지 못하게 된다.

▪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 큰 스님과의 대화

## 인환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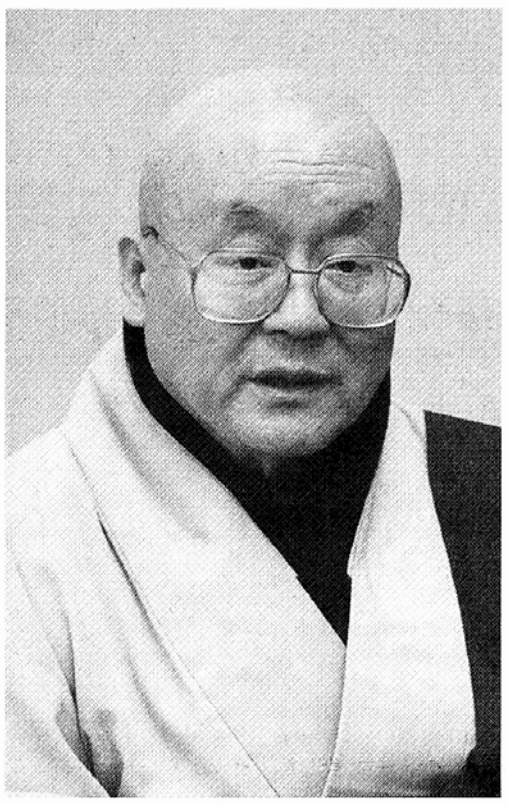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로 올린 다음 아랫배까지 바짝 당겨 붙이시고, 같은 방법으로 왼발을…. 다음은 오른손 등을 왼손 바닥에 포개 올리시고 두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맞댄 다음 아랫배에 붙이세요. 자, 이렇게 자세를 갖추었으면 앞뒤로 몸을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 이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몸을 흔들어서 중심을 잡으세요. 그리고 눈은 어슴프레 반쯤 감으시고…."

이어서 '딱, 딱, 딱' 세 번의 죽비 소리, 그리고 긴 침묵.

동국대학교 대각전 법당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두 시면 어김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선의 이론과 실제' 강좌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간에서는 '선(禪)'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아직 실천의 영역은 담론의 풍성함과 거리가 멀다. '백 마디 말보다 한 번 실천'이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데도, '말'과 '생각'만이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선 수행 지도를 하시는 인환 큰스님을 찾아, 초심자들을 위한 선 수행의 실제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 "참선, 업장소멸의 지름길"



- 1931년 원산 生
- 52년 부산 선암사 선원으로 출가
- 56년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
- 64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
- 71년 일본 고마자와대 대학원 박사과정(선학 전공)
- 74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 박사과정(인도 철학)
- 75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 문학박사(불교사상사 전공)
- 72~76년 조계종 재일총법원 부원장
- 76~81년 토론토 대각사 창건
- 82년 동국대 정각원장
- 82~96년 동국대학교 교수
- 현재 서울 경국사에 주석

—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서부터 이십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이와 계층의 사람들이,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듣고 또 실제 수행을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어떤 계기로 이 강좌를 이끌게 되셨는지요?

▲ 동국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 과목의 하나로 개설된 '참선 실수'를 여러 해 가르쳤습니다. 1996년에 정년 퇴직한 다음에는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선의 이론과 실제'라는 강좌를 맡아서 지금까지 5년 동안 가르치고 있어요.

— 강좌의 특성으로 볼 때 실제 수행이 중심이겠습니다만, 수강생의 수준에 따른 교육 과정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 크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각각 40명을 정원으로 6개월씩 진행합니다. 먼저 초급반은 전혀 참선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손 잡아, 발 잡아' 하면서 선의 기초를 체계있게 가르칩니다. '호흡 다스리는 법, 몸 다스리는 법, 마음 다스리는 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혀나가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수식관을 가르칩니다. 수식관은 선의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6개월의 초급 과정을 마치면 화두를 주는데 주로 '이뭐꼬'를 들게 하지요.

그러나 이론을 완전히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몸소 수행하는 것이 이 강좌의 특징이고 그것이 선의 본질이긴 합니다만, 알것은 제대로 알아야 실천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가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옛 조사들이 일러 주신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해주곤 합니다.

— 최근 들어 선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심지어는 '21세기 인류 문명의 대안'으로 일컫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이 문제는 막연히 참선 수행을 동경하기만 하는 초심자들의 심리적 태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선의 목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생사 해탈'에 있습니다. '성불'이 최종 목적이지요. 하지만 아득히 높고 멀어 보이는 궁극의 경지만을 전면에 내세우면 일반인들은 오히려 선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초심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하겠다는 마음을 내서 실천을 하게 하는 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알기 쉽게, 재미있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그들 스스로 '아, 이런 것이라면 나도 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곧 선 수행 인구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길이기도 하고요.

대체로 일반인들은 막연히 '선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생사 해탈'만을 강조하면 지레 겁을 먹게 돼요. 그래서 보조 스님도 〈초발심자경문〉에서 이르시기를, 법문을 듣는 데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부류는 '높고 높은 저 경지에는 도저히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법문이라고 들어 봐야 밤낮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더 들을 것이 있나'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두 종류의 생각 모두 법문을 진지하게 듣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그렇듯이 선 수행에 있어서도 '선은 보살이나 스님이나 선지식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초심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용기백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행을 하려 들면, '어떻게'라는 방법상의 벽에 부딪쳐 앞으로 나아가길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초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선 수행의 실제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 먼저 호흡을 제대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호흡이 제대로 돼야 몸을 다스릴 수 있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전 호흡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는 단전 호흡과 선 수행에 있어서의 단전 호흡은 달라요. 일반적인 단전 호흡은 호흡을 위한 호흡이지만, 선에서의 호흡은 화두를 제대로 끌고가기 위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아침 저녁으로 10~20분이라도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6개월 쯤 하면 저절로 몸과 호흡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수식관을 통해 호흡을 제대로 다스릴 줄 알아야, 나중에 화두를 들 때에도 화두에 전념할 수 있고 몸에 무리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를 무시하면 수행에 진척도 없고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남들이 화두를 든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식이면 머리로만 화두를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호흡과 몸이 어긋나고, 자세는 흐트러지고, 상기가 되어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선지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얕은 지식이나 책을 보면서 혼자 하다가는 실패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초심자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됩니다. 대중들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분발하기도 하고 해태심도 막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남이 내 공부 반은 해 준다'는 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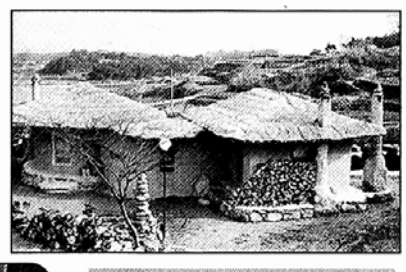
— 간단히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수식관을 통해 기초를 튼튼히 하라,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라, 혼자서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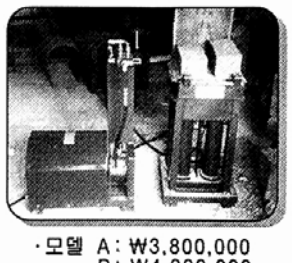
▲ 그렇습니다. 선지식의 바른 가르침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뼈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황과 불재를뿌리고 재배한 토종홍화씨환을 필요하신 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를 맑게 해 줍니다.
3. 당뇨병
4. 신경통
5.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6. 간이 나쁜사람
7.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8. 고혈압, 저혈압
9.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0.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1. 불면증, 황달
12.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 주 문 처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경북 청송의 관음기도 영험도량
샘재 영천암(靈泉庵)에서 불자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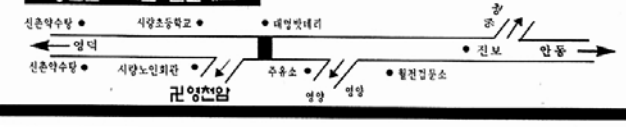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소납은 지난 1998년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법당이 전소된후 새로이 조립식으로 임시법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필설로 다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 현재도 부처님 좌대를 비롯해 후불탱화와 좌우보처 보살님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불자님께서 오는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에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영천암을 정상화시킬수 있도록 등불 한 등이라도 밝혀 주시온다면 크나큰 도움이 되겠사오니 부디 도와 주시옵기를 7일동안 심천배기도를 자성으로 드려서 모신 우리 영천암 부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복과 덕이 부족해서 늘 여러 불자님께 염려를 많이 끼쳐 드려서 참으로 송구하오나 앞으로 반드시 사회사업을 해서 불사회향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꼭 제가 이 불사를 성취하여 저 수미산 같은 한을 풀 수 있도록 하루속히 백고좌법회를 꼭 꼭 꼭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이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면 제가 살아 있어도 어찌 살아 있다고 하겠사오며 불사를 성취한다면 저는 죽어도 산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겠사오며 저 사해바다 같은 한을 풀도록 부디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옵니다. 그리고 또 영천암에 도서실을 만들고져 하오니 불자님 가정에 다 읽으신 불서와 법문 카세트 테이프, 법문 비디오 테이프, 불교관련CD가 있으신 분께서는 영천암으로 기증을 해 주시온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사오니 저 혼자의 힘으로 도서실을 열기가 어려우니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 등불을 밝히시는 분께는 일년내내 기도 축원해 드립니다.
※ 탁발 다니는 관계로 평일 내사시(來寺時)미리 전화 연락 바랍니다.
※ 등불공양 올리실분은 가족상황과 전화번호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1리 548-3번지
샘재 영천암(靈泉庵)
전화문의(팩스겸용):0575)873-2724 휴대폰 : 016)521-2724
주지 곽 승 만 합장
▶ 온라인입금 계좌번호 농 협 : 711089-51-056599
▶ 예금주 : 곽 명 희 우체국 : 700419-0136013

영천암 오시는 길안내도





◇기필코 뚫고야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화두를 끌고 나가면 삼매에 들게 되고 궁극에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며, 꾸준한 수행을 강조하시는 인환스님.

# 일어나는 생각 화두로 돌리세요

## 철저히 비우고 자신 드러내야

을 듣고, 수식관을 통해 호흡을 익히고, 여럿이서 함께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고, 다른 대중 선방에서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구든지 선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제 경험으로도, 잡념없이 1분도 앉아 있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잡념이 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초심자들에 있어 잡념이 끊이질 않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쉴새없이 생각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하려 하면 할수록 오만가지 생각이 들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치는 간단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호흡으로 돌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화두로 돌리면 되고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한 곳으로 집중하는 순간이 옵니다.

— 잡념이 닥치는 대로 호흡에든 화두로든 돌려놓으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것 말고도 선 수행의 길로 선뜻 들어서지 못하는 데는 한국 불자들의 전통적인 신앙 행태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전을 보거나 염불을 하면 무언가를 한 것 같고 불보살의 가피를 받을 것 같은데, 선 수행은 아득히 멀어 보이기만 하거든요.

▲ 대부분의 불교 신도들은 늘 기도를 하거나 불공을 드리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는 일이 드뭅니다. 장애가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불공을 드리고 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중생들을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보살에게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라는 걸 그렇게만 알면 기도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주된 목적은 업장소멸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일이 잘 안되고 남보다 많이 어려움이 닥치고 하는 것은 업장이 많은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란 밖으로 흔들리는 이 생각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경계에 따라 밖으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부처님과 똑같은 깊고 바른 반야의 마음으로 돌려놓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을 3업이라고 하는데, 입만 열었다고 하면 남을 욕하고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몸으로 온갖 죄업을 짓고는 절을 하며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보살을 부르고 참회하는 것을 업장 소멸로 여깁니다. 그런데 실로 업장을 소멸함에 있어 가장 빠른 길은 참선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의 삼업이 그대로 쉬고, 온갖 것을 다 놓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밖으로 모으고 쌓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놓고 비워서 내 자신의 빛이 그대로 환히 드러나는 것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게 되면 겹겹이 쌓아온 업장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참선으로 업장 소멸이 되겠냐고 회의하니까 결국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건대, 아침에 잠시라도 참선을 함으로써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참선을 함으로써 모든 업을 소멸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스님으로부터 참선 지도를 받은 분들은 일상 생활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바꾸어 갈 텐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 확실히 달라지지요. 첫째,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남에 대한 배려나 친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남들과 다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 긴 시간 동안 초심자라면 귀가 번쩍 뜨일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선 수행의 본론이라 할 화두 드는 법과, 이른바 삼매의 경지란 어떤 상태를 일컫는 것인지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 화두는 문제를 풀 듯이 분석을 하고 머리를 굴려서 해답을 얻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주로 거기에 빠지기 쉬운데, 화두라고 하는 것은 '모를 뿐'인 이 마음의 본성을 찾는 작업입니다. 24시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왜 중생일까요.

보는대로, 듣는대로, 아는대로, 밉다, 곱다, 사랑스럽다, 또는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차별을 하며 내가 내 마음을 흔들어서 중생인 겁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어서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들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이라도 가만히 두면 오래 안 가서 맑고 깨끗한 물이 되어 삼라만상을 다 비추듯이, 화두를 제대로 들면 화두가 나를 그와 같은 경지로 이끕니다. 그래서 화두가 바로 정념인 것이지요.

졸고 앉았거나, 오만가지를 생각하거나, 화두가 뭔가 하고 골몰하면 이미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앉아 있어도 송장이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쉴새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화두로 돌려야지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깨달음이 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냥을 가지고 불을 켜려고 할 때, 성냥개비를 대충 문질러서는 수십번을 반복해도 불이 켜지지 않지만 어느 한 순간 힘이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불이 켜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참선할 때 화두를 끌고 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생각을 모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근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필코 뚫고야 말겠다 하는 마음으로 화두를 끌고나가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무념'이 되요.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무념은 곧 일념입니다. 선풍기가 빠르게 돌아가면 안 보이잖아요. 날개가 없어서 안보이는 것이 아니라 꽉 차니까 안보이는 것처럼, 일념이 꽉 차면 무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와 나, 혹은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염불도 그렇게 하면 염불삼매, 기도도 그렇게 하면 기도삼매, 독경도 그렇게 하면 독경삼매예요. 그렇게 삼매에 들게 됩니다.

삼매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화두가 나요, 내가 화두인 경지가 됩니다. 일념이 무념이 되고 그것이 화두삼매가 될 때 '확' 하고 성냥불에 불이 일어나듯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대담=윤제학 부장
(yunjh@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 ■ '산거지' 정우스님

70년대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는 그런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불교계도 산중불교에서 도심불교로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었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서 많은 스님들이 포교에 뜻을 두고 열심히 활동을 했다. 오늘날 그나마 산업사회 속에서 불교가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나, 정보화 사회를 운위할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이때 선각자적으로 활동한 스님들의 피나는 고생 덕분임을 알아야 한다.

십여년 전이다. 인천 주안에 있는 시민회관에서는 중·고등 학생들이 모여서 공연을 했다. 그 큰 관람석에는 빈자리 하나 없이 자리를 다 메웠고, 공연이 하나 하나 끝날 때마다 청중석에서는 열화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자리에 있었던 나는 그 어떤 공연보다 더한 진한 감동을 받았다. 팍팍한 학교생활, 학생 개인의 특성이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밝고 명랑하게 놀 수가 있을까 하는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날 공연은 영산정사의 중·고등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것이었다.

## 시장 상가건물에 법당개설

## 10여년째 어린이법회 열어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실시한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정우스님이 오랫동안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포교를 해온 성과였다. 정우스님은 스스로 법호를 '산거지'라고 했는데 이는 산에 사는 거지라는 뜻도 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거지라는 뜻도 있다. 산거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스님은 정말 수행자의 정신이 살아 있는 거지로 열악한 한국불교의 토대 위에서 오직 외길, 포교사의 길을 걸어왔다. 어린이 등의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도량, 법당이 필요했다.

그래서 스님은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것이 도원동의 도원시장 안에 있는 상가건물의 삼층을 빌려 창건한 법당, 영산정사다. 도심지의 가장 번잡한 장소가 시장이다. 그러한 시장통 가운데에다 포교당을 연 것이다. 사찰이라고 하면 그 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산사를 생각한다. 그런데 가장 소란한 장소 한 복판에다가 절을 만들고 그곳에서 어린이법회를 열었다.

스님의 주장은 '어린이 법회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법회를 거쳐 청년법회에 나오고 그리고 결혼하고 일반신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스님을 따르는 불자들 가운데는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많다.

정우스님이 이 같은 포교를 시작한지도 벌써 몇십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불교계는 어린이에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일반신도 법회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찰이 많다. 아니 오히려 70년대 어린이 법회와 중·고등학교 법회가 유행하는 듯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 열기가 식고 퇴보하고 있다. 포교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포교가 퇴보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도원동 시장 통에다가 만든 영산정사는 나중에는 제물포 쪽, 옛날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정착했다는 가난한 동네에다가 천막 비슷한 벽돌집을 짓고 터를 잡았다. 그렇게 시작한 사찰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거쳐서 구색을 갖춘 법당이 되고, 유치원도 있는 사찰로 발전시켰다. 일요일이면 몇백명의 어린이와 2~3백명의 신도들이 법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런 중에도 스님은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가능한한 기복불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법회 때 부처님에게 불공을 올리고 염불을 하고 축원을 하지만 신도카드는 읽지 않는다든지, 4월8일 부처님 오신날 연등을 만들어 걸고 각 신도들 가정에 연등 걸기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돈을 받고 연등을 거는 것은 안했다. 그러니 등 밑에 이름을 적어 거는 꼬리표 같은 것이 없어 깨끗했다. 이러다 보니 초파일 행사를 지내고 보면 항상 빚이 남았다. 어떤 사찰 보다도 많은 연등을 달았지만 행사비를 충당할 돈도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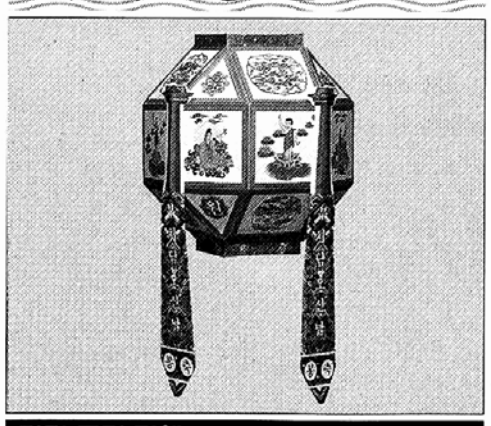
그림·문병성

가끔 나는 스님이 사는 포교당을 찾아가 보곤 했는데 돈이 없어서 연탄을 사지 못할 때도 있었다. 스님이 거처하는 방은 벽지가 온통 곰팡이가 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윗목에 있는 물이 얼어버리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스님은 아이들 포교를 위한 돈은 아끼지 않았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포교삼매에 들어 살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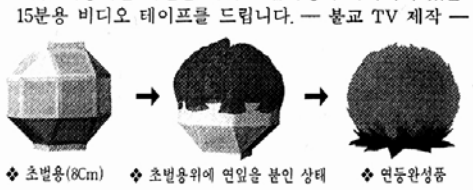
스님의 포교에 대한 열정은 일찍이 어린이 포교에 큰 공적을 남기신 석주 노스님에게까지 인정을 받아 '산거지 스님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포교를 했다'고 칭찬하시기도 했다.

그렇게 몇 십 년이나 고생해서 만든 영산정사를 스님은 하루 아침에 내 놓았다. 벌써 십여년 전의 일이다. 아무런 미련이나 애착 같은 것 없이 인천불교사암연합회에 회사를 한 것이다. 자신이 주지를 안해도 될 만큼 사찰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김포쪽 농촌에다가 농가주택을 하나 사서 새로운 포교를 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지금은 불교 라디오방송에서 '자비의 전화'에 신행 상담을 하고 있다(스님의 법호는 원광이다). 벌써 세수가 60여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스님의 포교에 대한 열의는 식을 줄을 모른다. 얼마 전에 서울 길거리에서 스님을 만났다. 서로 오랜만이라 안부를 묻자, '요즘은 군인들 포교를 많이 한다. 군법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군인 포교가 너무 열악하다'고 여전히 포교만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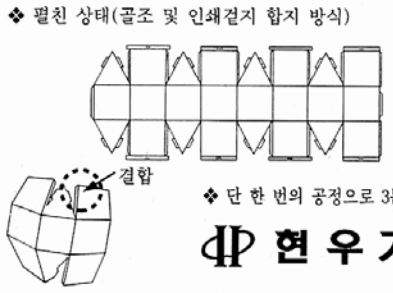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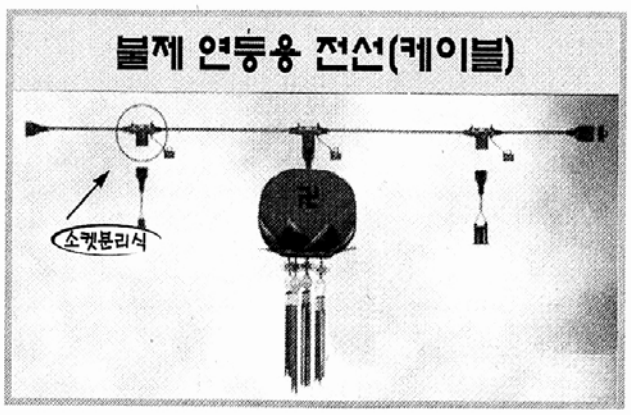
❖ 초벌용(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본사 영업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 산·가람 하나된 한폭 동양화

◇뒷산의 전체적인 형국에 맞추어 건립된 내소사 대웅보전. 널찍한 평지와 뾰족한 뒷산에 대응되는, 오목 솟아오른 수직적인 모습을 하고있다.

## 가람의 장면들 25

## 부안 내소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의 이름있는 고찰. 내소사는 바위들이 뾰족뾰족 솟은 능가산을 배경으로 자리잡았다. 보물 291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의 견고한 짜임새도 불만하지만, 내소사의 진짜 풍경은 이 웅장한 능가산 절벽들과 어우러진 가람 전체의 조화일 것이다. 옛 스님들이 가람의 터를 정하고, 건물들의 위치를 정할 때, 가장 세심하게 고려한 것은 뒤의 배경이 될 산세의 모습이었다. 따라서 뒷산과 가람이 일체화된 내소사의 유장한 모습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산맥과 대웅전의 축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능가산의 주봉은 대웅전 바로 뒤가 아니라 서쪽으로 약간 비껴 서 있다. 주봉이 너무 높고 강한 모습이어서 대웅전을 비껴 놓은 것이다. 뒷산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처럼 비껴 놓은 까닭은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옛 스님들의 안목은 단지 뒷산에만 머물지 않았다. 멀리 앞산들과 전체적인 지형의 생김새에 맞도록 가람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그 전체적인 형국을 살펴야 내소사 건축의 비밀을 풀 수가 있다.

내소사 입구에서 가람에 이르려면, 울창한 전단나무 숲을 1km 정도 걸어 들어가야 한다. 원래 가람의 입구에는 대개 이런 울창하고 신성한 숲으로 그득했으리라. 그러나 일제기의 남벌과 해방 후의 무관심, 그리고 어설픈 개발사업으로 다른 가람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신선하고 청량한 숲 속을 지나면 문득 내소사의 넓은 터에 이른다. 우선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커다란 승방의 지붕면이다. 승방은 가람의 등쪽에 있는 것으로, 실제 중심은 서쪽으로 치우쳐 덩그라니 서있는 누각(봉래루)이다. 계단도 정면으로 나있지 않고, 서쪽으로 비켜서 봉래루로 사람들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내소사의 넓은 터는 몇 개의 낮은 단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는 각각 낮은 계단이 놓이는데, 모두가 조금씩 서쪽으로 밀려들어가는 형상이다.

마지막으로 이르게 되는 대웅전 역시, 그 뒤 서쪽으로 밀려 들어가 예의 능가산 주봉이 놓여있다. 전체 지형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다. 가람 터 앞으로 빠져나오는 냇물이 등쪽으로 구비쳐 흐르기 때문에, 능가산 주봉에 맞추어 가람을 배치하면 냇물 위에 집들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냇물을 피해 가람을 앉히되, 뒷산의 전체적인 형국에 맞추느라고, 입구부터 조금씩 서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누각과 대웅전을 거쳐 주봉에 이르도록 조작된 것이다.

### 냇물·뒷산 주봉 피해
### 입구부터 조금씩 비껴
### 대웅전·누각등 배치

자연은 꼭 건축에 적합하도록 생긴 것만은 아니다. 어떤 곳은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리한 곳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람들은 꼭 그 터가 좋아서 집을 짓기로 한다면, 어떤 불리한 조건이라도 뛰어나게 해결했다. 번듯한 터보다는 내소사와 같이 제약 조건이 있는 터를 골라서, 그 장애요인을 오히려 훌륭한 건축조건으로 바꾸어 버리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뒷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가람을 만들었다면,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변화있고 극적인 공간으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내소사는 비록 깊은 산속에 있지만, 매우 넓직하고 평평한 터를 잡았다. 따라서 전체적인 가람의 건물들은 수평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웅보전만은 날아갈 듯한 팔작지붕을 얹어, 전체적으로 오뚝 솟아오른 수직적인 모습이다. 널찍한 대지와 뾰족한 뒷산에 대응되는 대조적 구성이다. 넓은 마당과 낮게 깔린 누각이나 석단들이 인공적인 수평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면, 오뚝한 대웅전은 능가산의 수직적인 절벽을 향해 상승하고 있다. 능가산이 뒤에 없었다면, 능가산이 지금과 같이 뾰족한 절벽들이 아니라면, 대웅전의 모습은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의 가람을 감상할 때, 뒷산의 모습을 함께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된다.

* 본 마당 앞에 놓인 봉래루의 지금 모습은 매우 어정쩡하다. 원래는 지금보다 한자 정도 낮아, 이름만 누각이지 보통 1층 정도의 건물이었다. 경상도 사찰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각 밑을 통과해 절 안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누하진입'은 도저히 불가능한 건물이었다. 누하진입의 방법은 경사지에 세워진 가람에 잘 어울리는 기법이다. 내소사와 같이 평지에서 누하진입법을 쓰려면, 누각의 1층 높이를 사람 키쯤다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뒤편의 주요 법당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을 빚는다. 따라서 전라도-충청도 일대의 평지 사찰에서는 1층 강당들을 세우고 이름만 누각이라 불렀다.

지금의 내소사 봉래루는 일부러 1층의 기둥을 높여서 그 아래로 사람들을 통과하도록 억지를 부렸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머리가 닿을 정도니, 출입이 편해진 것도 아니다. 가람 전체의 수평적 공간감을 이 누각이 까뜨리고 있다. 불과 십여 년 전에 바꾸어버린 잘못이다. 승방인 설선당 안마당에 철골조의 구조물을 덮어서, 이 우아한 승방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누각과 승방 모두 원상 회복을 하든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北동포 돕고 세계에 평화 심자"

## 좋은벗들 등 한·미·일 NGO 공동캠페인

불교 NGO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 모금·풍물 놀이등 다채



◇서울 명동에서 펼쳐진 북한 동포 돕기 캠페인에는 7살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대학생이 함께 했다. 가운데는 JTS 이사장 법륜스님.

'생명의 씨앗으로 평화의 미래를', 세계인의 가슴에 평화의 싹을 틔우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한·일·미 공동 캠페인이 펼쳐졌다.

좋은벗들과 한국JTS, 부산 대불련, 청년정토회, 한일청년학생포럼, 포럼 2001 그리고 일본의 재일한국청년연합, 재일한국학생동맹, 일본 시민단체, 미국의 한인회, 한국학위원회 버클리지부, 버클리대 유학생 등 한·미·일 3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2일 오후 1~5시 서울 명동과 인사동, 대구, 부산을 비롯 일본 동경, 오사카, 효고, 미국 LA에서 공동캠페인과 모금운동을 펼쳤다.

길놀이와 굿, 풍물, 북한알기 퀴즈 및 퍼포먼스 등이 어울어진 이번 캠페인은 96년 이후 북한동포 돕기 거리 캠페인, 모금, 강좌와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하면서 만난 3국의 단체와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진행되어온 다양한 방법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경화만들기 실천운동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것. 지난해 말 제3차 '한일청년학생포럼 북한 인도적 지원분과'의 결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JTS, 좋은벗들 등 불교NGO가 앞장서 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운동은 국경, 민족, 이념, 체제를 넘어 우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된 캠페인. 96년 부터 시작된 거리 캠페인, 모금, 강좌와 세미나, 북한 지원 등의 활동이 이제 20세기 냉전의 상처를 치료하고 50년 분단을 통일로, 동북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국제적인 평화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명동 캠페인에 참석한 JTS 이사장 법륜스님은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냉전, 분단의 섬 한반도의 문제는 20세기의 국가와 민족을 넘어, 평화와 인권이라는 21세기의 무대 속에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지난 20세기 역사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평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생태강좌·기행 잇달아

### 불교환경교육원…20~6월1일 생태학교 개강

#### 29·30일 무주진도리 답사

불교환경교육원은 제18기 생태학교와 생명운동아카데미 제14맥, 테마생태기행 '흙집 기행' 등 환경모임을 잇달아 개최한다.

'생태적 삶', 새로운 인간' 주제로 열리는 생태학교는 20일부터 6월1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서울 정토회관에서 진행되며 성균관대 송항룡교수,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재현 박사 등 14명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한다. NGO의 역할, 동양사상, 수질문제, 국토정책, 생명공학, 대기오염, 쓰레기문제 등의 쟁점을 다루고 지역운동, 공동체운동, 대안교육, 지역화폐운동, 귀농운동 등 대안적 삶도 살펴본다. 경북 상주의 푸른누리공동체도 탐방한다.

테마별 전문화경강좌인 생명운동아카데미의 주제는 '녹색운동의 이념과 전략'. 25일부터 5월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안국동 미내사강당에서 열리는 이 강좌는 서구의 녹색운동과 동양의 생명운동을 비교하여 생명운동의 관점에서 본 제반사회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모색한다. 6월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녹색운동의 이념과 전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종합 심포지엄도 연다.

생태적 삶을 찾아 떠나는 첫번째 기행인 '흙집 기행'은 29, 30일 1박2일간 무주 진도리마을로 떠난다. 무주 진도리마을회관과 허병섭 목사의 집, 대안교육공동체인 무주 푸른꿈고등학교도 방문한다. 앞으로 '뒷간 기행', '생태마을 기행', '대안에너지 기행'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02)587-8997

## 생명잡지 '인드라망' 창간

### 도법-거지성자 대담 실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1일 격월간지인 〈인드라망〉을 창간했다.

4·6배판 88쪽 분량의 이 잡지는 발간사, 법어, 지상강론, 연대의 글, 화엄광장('생태적 공동체 운동의 현실적 구원을 위해'-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유전자조작의 철학'-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장), 제언(생협운동을 말한다), 탐방(실상사 작은학교 준비팀), 수필, 사는 이야기, 소식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도법스님과 독일의 거지성자 크리 노이야르의 특별대담은 현대문명은 '무지위에 세워진 욕망의 탑'이라는 공감대 아래 생명과 무소유, 나눔을 강조하는 불교가 현대문명의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연간 1만원. (02)733-1884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과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등 연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잎 ■ 등통 + 비단 연잎
■ 완성비단연등(법당용) 빨강·노랑·연분홍

팔모주름등 (핑크)




팔모주름등(빨강) 팔모주름등(연두) 팔모주름등(노랑)
원통등 조립팔모등 차갓등
팔모조립등 촉각등 팔모주름등 보관함대

■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비단연잎 → 등 통 → 완성연등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긴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디자인 대구여래기획
(053)426-3395~6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 기 찬 합장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자파 수맥파 차단의 기(氣)인증! "달마도 순금카드"

달마도의 대가 오인법사 원본 작품을 99.9% 순금카드위에 직접 새겨 놓았습니다.

달마도 순금카드(지갑소지용)



앞면 오인법사 달마도
뒷면 ①반야심경②사업번영부③안전운전부④시험합격부

달마도 순금판 표구액자



"부처님 오신날 봉축"
천만불자 보시용품




세계종공총 대종공증원에서 인증한 기(氣)인증서

달마도 신비의 기(氣) 달마도는 TV방영에서 증명된 바 와 같이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카드 일반 지갑소지용으로 앞게 된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의 달마도를, 뒷면에는 반야심경, 사업번영부, 안전운전부, 시험합격대길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질 없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대형(5×7.5cm) 20,000원, 소형(3×5cm) 15,000원이며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마도 순금판 액자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 크기로 오인법사의 전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로 제작하였습니다. 표구액자(27×32cm), 달마도 순금판 크기(11×16cm)일반 판매가격 150,000원. 한정판매

달마도 순금판 열쇠고리 달마도 순금카드 (3×4cm)를 아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 셋트 25,000원

구입문의상담 주문방법은 전화접수 후 전국내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사찰 및 불자회 보시용품 각 영업회사 판촉사은품으로 최적상품 이며 다량구매시 가격할인 및 원하는 그림, 사진, 글씨, 로고도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셋트 및 액자 구매시 사은품 증정!

제조판매원: 골드타운

고객성원에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사가 (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하였습니다.

(02)926-7377, 7315 (24시간 공휴 접수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ldsale.co.kr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자기 버렸다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

## 본능대로 살면 안되는 이유

**문** 아직은 절에 나가지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불교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스님께서 저의 못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어 얼마나 감사하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현재는 한마음요전을 두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본능대로 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지요?

마음공부도 하지 않는 새나 구더기 같은 동물들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본다면, 진정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는 존재는 자신과 타자를 분리하여 인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의 인간보다는, 아주 어린 영아나 유아 그리고 새나 구더기 같은 존재가 더 주인공에 맡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큰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답** 그래서 이런 말 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녹음테이프에 저장시켜서 입력된 내용이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산다구요. 그래서 팔자가 있고 운명이 있고 고가 있다구요. 그러나 이 마음공부를 한다는 것은 몰랐을 때 살아온 내용이 입력된 테이프에 다시 새로운 녹음을 함으로써 전자의 입력된 내용을 바꾸어 나가는 공부라고 항상 말을 해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생에서 크게 본다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없이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속에 허옇게 늙은 노인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늙고 젊고가 본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언젠가 했었죠. 어느 아이가 불집게를 가지고 놀다가 같이 놀던 아이 정수리를 찔러서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거든요. 불집게를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죽인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자에, 죽은 애가 찌른 애를 그렇게 죽였던 겁니다. 썰매 꼬챙이로요. 그러니까 이게 피장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인연의 과보를 모르고 죽은 아이 집에서 보상을 해라 될 해라한다면 도루묵이 돼버리죠. 또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살생의 문제를 넘어서 인과성으로 또 엮어지는 거죠. 업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주인공에 놓는 이 공부야말로 자아 완성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의식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근본에 되놓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고 그냥 무사태평으로 살아가다가는 정말로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공부는 알음알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건성으로 믿고 놓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맡겨봤다가도 되끄집어내고, 또 맡겼다고 하면서 되끄집어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한 번 맡겼으면 맡긴 그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시일이 지나서 풀릴 수도 있고, 단박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하게, '아이구! 이렇게 맡겨도 안되는구나!' 하면서 안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못 믿으면 이 세상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태어난 자체가 증거입니다. 뿌리로 인해서 싹이 났는데도, 자기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켰는데도 그렇게 못 믿어서야 어찌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공부를 해왔던 분들만이 진정으로 이 도리를 알게된 고마움을 알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니 사량으로 생각을 짓지 말고 정말 지극하게 믿고 들어가세요. 공부를 하다보면 주인공에 맡기는 것과 본능대로 사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 '내가 있다' '내가 산다'는 생각에 남 탓하게 되고 고통 따르죠

##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문** 스님 저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도저히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에게 닥친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답** 벗어나고 싶은만큼 그 생각마저 주인공에 믿고 놓으세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고통이랄 것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고통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단지 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있으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욕망을 가지고, 착을 가지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지, 내 생명까지도 다 광개쳤다면 아무것도 붙을 게 없어요. 하늘이 지금 당장 무너져서 납작해진다 하더라도 허허 웃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웃게끔 될 수 있어야 떠받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을 놓을 뿐이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상시 모든 것을 그냥 놓고 가고 있습니다. 본래 놓고 가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인생이지 자기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 안에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고, 더불어 같이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자기 혼자 만나는 겁니까, 어디?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 혼자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산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들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 배설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매사가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자기가 산다는 생각, 자기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항상 상대방을 원망하며 남을 탓하게 되거든요. 우주 천하가 더불어 같이 작용을 하고 내 몸뚱이 하나도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혼자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것을 근본 자리에,다시 놓으라고 하는데도 놓기는커녕 놓는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주인공을 찾으라니까 주인공! 주인공! 입으로만 부르는데, 여러분의 뿌리와 싹이 그대로 한 몸입니다. 그러니 못 믿고 믿고도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맡겨놓으세요. 그래서 진정코 뿌리와 싹이 말없이 통신이 되는 도리를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 삶에 대한 집착 놓으려면…

**문** 80세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환자는 자기 병을 모르고 있으며, 평상시 마음의 애착이 너무나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시면서도 불법의 진정한 뜻을 찾으려 하시지 않고 그냥 어머니께서 재촉하시기 때문에 절에 다니신 분입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할머니께서 어서 삶에 대한 집착을 놓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삶의 집착을 놓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스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영영 다시 안 오는 게 아니예요. 언젠가는 다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습을 빨리 벗고 늦게 벗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시라도 할머니께서 이 마음공부를,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듣고 공부를 해서 본래 고정되게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손들과 할머님이 다 함께 마음의 불을 켠다면 더욱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손들이라도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그 애착을 녹일 수 있도록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강요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오직 부드러운 말과 정성어린 마음으로 이끌어 드리세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절에 와서 부지런히 관하는 법을 배워서 할머니의 마음과 둘 아니게 연결되어 있는 자기 내면자리에 할머님의 그러한 마음이 빨리 녹을 수 있도록 마음의 정성을 들인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 법공양 페이지

##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어려워

**문** 큰스님, 항상 저희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실수와 좌절도 많이 하곤 하지만 다른 법우님들처럼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생각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며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왠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너무 겁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는 한생각이 곧 우주의 원리를 타고 체험으로 구현되는 그 깨달음의 세계로 마음의 수양이 덜 된 상태에서 섣불리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눈을 감고 명상을 하다보면 양 미간에서 어두운 가운데 하얀 백색광선이 섬광처럼 번뜩이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정작 두려움이 앞서 앞으로 전진하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마음의 수양이 덜 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찰나의 생각을 잘못 내어 그것이 오히려 그릇된 결과를 낳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더욱 그렇습니다. 스님의 자비로우신 인도 부탁드립니다.

**답**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무서운 거지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해보세요. 죽는 거를 개의치 않고 버렸다고 한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다고 모두 생각을 하는데 육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죽는 게 진짜 문제죠. 이 몸은 차와 같습니다. 운전수가 한 칠 잘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더 좋은 걸로 바꿔서 또다시 끌고 다니는 차와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걸 껍데기가 나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갈 겁니까?

마음이 죽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죽어야 나를 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정된 내가 없다느니, 앞발 디디면 뒷발자국이 바람과 같이 없어진다느니,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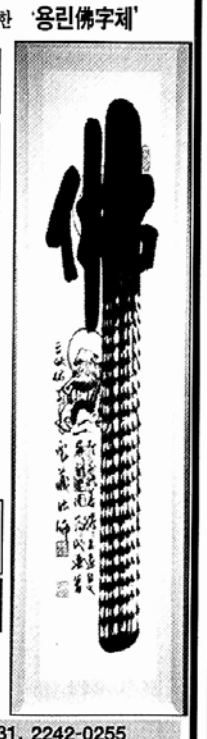
새로운 천년시대에 경진년 용의 꿈은 천년의 운명을 밝게 해줍니다.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E-mail : hbac.@chollian.net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불사 기금 마련
서화 보급 안내

일생중생의 영원한 작복처이며 사생육취의 장구한 귀의처인 불도량을 건립키위해 대원을 발하였으나 산이 깊어 시주의 인연이 멀고 부득이 신남 신녀님들의 특별한 신심과 우호를 바라며 불사를 이루고자 널리 호소하오니 성스러운 불사 원만히 성취되도록 물심양면의 지대한 가호 바라옵니다.

보 림 원



금강경10폭병풍



달마상



자비동자상

· 금강경 10폭병풍 5십만원
· 달마상 1만원 45×70cm(가로×세로)
· 자비 동자 1만원 35×45cm(가로×세로)

▪ 입금계좌번호
농 협: 150039-52-288411
예금주: 보림원
▪ 문의전화: 0561)749-4786

공 고

귀의삼보하옵시고,

본회는 1999년 7월 31일 임시총회 이후부터 2000년 4월 7일 현재까지 직접 또는 간접(후원 등)으로 다음과 같은 행사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본회와 유사한 단체명(한국불교총연합회)으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 또한 본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사이므로 착오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본회 명칭을 사용한 법회 및 행사
2. 본회 명의의 지불증 및 각서, 차용증, 외상매입계약서 등 일체의 재무관련 서류의 발행
3. 물품의 판매 행위 또는 유사행위
4. 일체의 약정 행위

※ 위와 관련한 문의사항 및 피해 신고는 전화 02)738-2888, FAX 02)738-0449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4(2000)년 4월 7일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직무대행 김 기 문 합장

사 원 모 집

송강기획은 불교음반 전문유통회사입니다.

| 모집부문 | 영 업 |
|---|---|
| 모집인원 | 1명 |
| 응시자격 | 고졸이상, 군필, 운전가능자, 나이제한 없음 |
| 급 여 | 초봉 95만원, 상여금 200% (3개월 수습기간 75만원지급) |

♦ 매월 10일정도 출장이 가능하여야 함.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개별통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형식없음)
■ 제출기한 : 2000년 4월 17일까지
■ 제 출 처 : sk@buddhistmusic.co.kr
(e - mail 및 fax 접수만 받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37
TEL : 02) 745-6015 FAX : 02) 745-6017

송 강 기 획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마음공부 하면서 응용 안하면 목석

☞ 15면에서 계속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본래 죽는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래 이미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환상과 같이 그냥 가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나라는 이 껍데기에 집착을 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말이나 될 노릇입니까? 그러니 푹 안심을 하고, 죽든지 살든지,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고 믿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는,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서야 어떻게 문 없는 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 게으르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문**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2004년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주위에서는 명문 학교에 꼭 입학해야 한다고 하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게으르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모든 나쁜 습을 주인공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관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세요.

**답** 그래 그렇게 자신의 게으른 모습을 알고 있다니 '게으르지 않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도 오직 당신뿐이야.' 하고 항상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몸으로는 부지런히 뛰면서 생활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을 볼때도 어떻게 이것저것 다 버리고 편안하게만 하겠습니까만, 편안치 못하든 편안하든 나의 보이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역력하게 들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나'에게다 놓는 겁니다.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했고,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안 했고가 없다 이 소리죠. 그런 까닭에 주인공이 나의 모든 기능을 합해서 시험을 보게도 하고 학교도 가게 하는 거니까 '당신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어. 나를 가장 유용한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도 당신뿐이야.' 하고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 보배를 자기가 응용 못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자꾸 내가 무엇이 모자라는데, 내가 어떻게 돼야 하는데 하고 고민하고 사량으로만 걱정을 하니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책을 찾아봐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모두를 볼 때 모두 자기 할 탓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간략하게. 모든 게 자기 할 탓이다, 자기가 하는 대로 지혜로운 삶도, 선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이 "너는 꼭 어디를 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휩싸여서 '그래 나는 남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학생의 근본에 지극하게 관(觀)을 하세요. '나를 수억겁을 통해서 이끌어 온 당신, 오직 당신만이 내가 이 생에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까지 성숙해지는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맡겨놓으세요.

왜냐하면 나의 근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나와 언제나 함께 해온 나의 근본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공부하세요.

###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데…

**문** 스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머니와 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을 하면서도 계속 화를 내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시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 전 이제 20살이 되었는데도 이러는 제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들을 모두 놓을 수 있을까요? 스님과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스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 되든 안되든 그렇게 관하고 마음을 쓰는 학생이 너무 대견스럽군요. 그렇지요,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니 눈물도 나고 화도 나겠지요.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놓아야 합니다. 이 관한다는 것은 되든 안되든 일체를 믿고 놓고 지켜볼 뿐이지 거기에 다시 사견을 일으키면 안됩니다.

왜 그러는지 알겠습니까? 현재의 나는 시자일 뿐이에요. 수억겁을 이끌어 온 나의 주인을 위로는 모시고 안으로는 수많은 내 안의 잠재된 의식들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놓아나가는 그런 진실한 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 늦게 된다.' 고 분별해서 주인을 믿지 못하는 시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렇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발전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부모님이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극하게 마음을 내고 관하세요. 물론 시일이 빠르고 느리고 하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지극한 학생의 마음은 분명히 부모님 안에 내재해 있는 주인공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 번에는 모습으로는 화를 내더라도 마음은 고요하여 동요가 없는 그런 평온한 마음으로, 껍데기의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안의 부처님, 주인공을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래요.

### 생활에서 이익중생 하려면…

**문** 저는 10년째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공부를 하나가고 있는 30대의 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굳이 나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를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공부의 진전도 되고, 이익중생(利益衆生)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설하여 주십시오.

**답**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도 그렇고 어느 회사를 운영해도 그렇고 이 마음공부를 진실하게 하셔서 한생각을 자유롭게 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쓰지도 않고 그냥 한다면 그건 목석입니다. 목석! 생각을 달리 해보고 다녀야죠.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여기 와서 듣고는 그 순간만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냥 왔다갔다하면 안됩니다.

학생이 책가방만 끼고 학교에 왔다갔다하면서 그냥 강의만 듣고 집에 와서 그걸 한번 다시 공부를 안 해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응용을 해봐야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다니는 사람은 은행에 다니는 사람대로,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대로, 기자면 기자대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우리 반에서 공부를 못하면 내가 찍힐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자기가 안 찍히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공부예요. 하나만 공부가 아니라 수시로 모든 것이 공부예요. 그러니 하나하나 자기가 허 나가야지 누가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체크가 되는 거죠, 자기가! 감응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대로 돌아가네!' 그대로 돌아가니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보지 않는 사람, 그냥 문맥없이 왔다갔다하면서 해보지 않는 사람,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아예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분명코 해야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게 목석 아닌 목석이죠. 유위법만 취하고 사는 사람들은 좀 마음으로 무위법을 활용해 봐라 이겁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익 중생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관을 할 때 그냥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이 나와 상대가 모두 이익되게 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한다면 저절로 그 마음의 폭이 점점 넓어져서 나와 남이 진정 차별이 없는 그 길의 맛을 보게될 것입니다.

###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은

**문** 부처님께서 부처와 중생이라고 나누어서 부르셨는데 어찌해서 둘로 나누셨으며 그렇게 부처와 중생으로 나누어지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중생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고 또 생각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이름한 겁니다. 또 부처님이라는 뜻은 자기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깐 마음조차도 배꼽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처음 단전호흡을 할 때는 배꼽 밑에다 두라 그러는데 그 배꼽까지도 송두리째 빠졌다 이 소립니다. 송두리째 빠지니까 그것이 나라고 내세울 게 없이 공한 이치라는 거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귀로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눈으로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고정되게 느끼는 게 하나도 없죠. 말하는 것도 고정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행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내 몸이, 어떠한 것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없게끔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 그렇게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정된 삶을 사는 모습을 일러 중생이라고 하셨고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스럽게 살아간다면 자유인의 삶이기에 부처라 이름하는 겁니다.

### 무한능력 가진 '나'가 있습니까

**문** 늘 건강하시고 옥체 보전하시어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무한 능력을 가진 나가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벌써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어리석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답**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 보이는 무한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이 있고 또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 능력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당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다름아닌 자기 근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살펴보니 모두에게 불성이 있는데 어리석음의 어두움에 가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 수많은 가르침으로 제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자리 즉 주인공에서 일체가 나오는 것이니 일체를 나온 그 자리에 되놓으라고 하는 거죠.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했는데 그 노래를 지우고 다른 노래를 녹음하려면 다시 거기에 녹음을 해야하는 것처럼, 거기에 중심을 세우고 생활 자체를 맡기는 노력을 하세요. 잘된 일은 감사하게 놓고, 또 잘 안되거나 힘든 일들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맡겨 놓으세요. 그렇다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심, 사량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살심, 중도를 행할 수 있는 마음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관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어떤 또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놓고 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다보면 놓는 자리마저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전까지는 주인공이라는 자리에 맡기세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고, 어린아이들도 곁에 엄마가 있어야 안심하고 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관' 할땐 되든 안되든 일체를 믿고 놓고 지켜볼 뿐 '잘 안된다' '늦게 된다' 사견 일으키면 안돼**

### 주인공을 찾기 위한 관법

**문** 저는 현대불교신문을 통하여 큰스님의 법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찾는 공부라 하여 틈만 나면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마음을 알고 보니 모양도 없고 냄새도 색깔도 없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하여도 틀리고 없다고 하여도 어긋난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주인공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요?

**답** 부처님께서도 "내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느니라.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는 까닭에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되었을 때 부처라고 하겠느냐? 부처라는 이름 없는 것이 부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뭣고.' 하고 '내가 어디서 왔나.' 하고 찾으려면 백 날이 가도 못 찾아요. 단 오분을 관한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찾기 위한 관법은 누웠을 때든 서 있을 때든, 내가 좀 앉아서 참구해 보겠다 하고 앉아있을 때도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게 관법입니다. 그 자리에서만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 바깥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뛰어넘고 뛰어넘는 교차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죽을 것이고, 내쉬고 들이쉴 수 없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 양면이 교차하는 그런 틈에서 숨을 쉬고 그대로 살아있는 바로 그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만이 증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들이고 내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없다면 들이고 낼 건덕지가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이 공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근본에 귀의한 사람은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이란 곧 실상을 보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놓치고 바깥 경계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근본 마음자리를 관함에 있어서 끊어짐 없이 하기를 당부합니다.

### 사주만 믿고 노력않고 살아와

**문** 의존적 성격장애의 진단을 받고 2년의 면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속으로는 어느 정도의 분석은 되지만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의 꿈과 환경으로 인해 피해 의식이 어머니에게로 고착되어 어머니 품에서 벗어난다는 느낌이 들면 피해의식과 함께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자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노력은 하지 않고 사주만 믿고 어려서 생각을 놓은 결과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젠 관법만이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주인공에 믿고 맡기는 생활을 하구 싶은데 성격이 굳어져 너무 힘이 듭니다. 큰스님, 어떻게 해야 용기를 내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답** 가만히 보세요. 종교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아우성을 치고 손을 들고 미친 사람들처럼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그런 행을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부모의 혈(血) 육(肉)을 받고 뜻을 받아 나와서 누가 되지 않게 해야지, 자기가 누가 되면 전체가 누가 되니까 누가 되지 않게 살아 나가는 것이 첫째 제일 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접잖고 고상하고 진실하고 선명하게 살아도 이 모습을 가지고는 얼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몸이 있을 때에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 몸이 있고 상대가 있기때문에 공부가 되는 거지 몸이 없으면 상대가 없으니 부딪침도 없고 보는 거 듣는 것도 없어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다른 데다 정신 팔지 말고 내가 한 생을 버릴지라도 기필코 이 고해를 벗어나야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피안의 세계가 바로 얽히지 않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세계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에 안주나 하고 슬픔과 고통 따위나 없애기 위해서 다니지 마십시오.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되돌아나올 수가 없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서 봤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되돌아설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끝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운명을 의지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며 살아가세요. 내 안의 수 억겁을 항상 함께 해온 나의 영원한 친구이자, 조상인 주인공을 진실로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공부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사실이 또한 그러니까요. 열심히 근본을 믿고 생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사주 명리 배우실분**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이사방위 진로선택 등 기초부터 끝까지 책임 완성해 드립니다.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주2회 4개월간
■개 강 일: 4월 7일(금요일)
■장 소:마포구 망원2동 474-15
선 주 정 사
☎02)323-4050/4480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기초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3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824-3517
**청운역리학원**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철학 강좌**
사주, 관상, 작명, 부적
▶ 초급반, 고급반, 개업반 (교제 제공)
▶ 강의시간 1교시:11:00부터
2교시:14:00부터
3교시:16:00부터 (월~금 주5일)
▶ 스님직강 3개월 완성(월 8만원)
☎ 02)946-0078
018)551-0313

범음 범패 수강생 수시 모집
매주 월 · 화요일 오전 10시~5시
기간 6개월
■초심반: 각단 예경의식
■발심반: 각단 불공시식 의식
■자경반: 사십구재의식 및 영산재
■연구반: 바라춤 승무작법 사물일절
대한불교 남파종문회 범음 범패 연수원
051)332-0289/018)398-3022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011)545-7252
김 창 본
처 사

**불교발전의 획기적인 모델**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가장 엘리트스님 배출을 목표- 공부와 수행 · 모든지원)
통신불교대학 · 인터넷 불교 대학 접수중
대구 053)474-8282 /011)560-5698(총무스님)
(선착순 100명)

구인구직

**모십니다**
스님들이 야생사철쑥과 자연산 약초로 제조한 건강보조 식품을 전국에 공급하고자합니다.
대리점이나 판매하실 처사님이나 보살님을 모시고자합니다.(20~55세)
※ 사무직(서울거주자)모집
02)988-4773

55세이상 되시는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543)954-6238
011)529-3713

수양기도 공부참선 하실분
신축목조 건물, 1인 1실 및 욕실, 침구완비,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약간명 모집)
0418)541-7240

◆ 사람을 찾습니다 ◆
성 명 :장 선희
(700330-2808311)
화 염 사
0582)534-8718
011)533-8718



효천스님,
긴히 상의 할 일 있어 연락 바랍니다.
011)
9857-5156

**모십니다,**
암자에서 신도관리하며 함께 불사에 뜻이 있는 신명제자보살님을 모십니다. (노스님)
011)776-4070

절도량에서 처사로 일할 곳을 원합니다.
017)
340-0181

수행하며 공부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대구 경관수려
053)
767-8121

**구 직**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겸 일할 곳을 찾습니다
0351)826-1152
·주간에 전화받지 않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맑고 향기롭게…
**꽃 공양**
◆불교전통 사찰 행사용꽃 전문
◆일반 생화 일절 도소매
◆화환 · 꽃바구니 · 신부화 · 웨딩꽃길전문
◆전국 꽃배달
**淨我 꽃집**
※ 금강자비회 초대 회장 윤 대현 합장
남대문 꽃 도매상가 138
02)774-5886/011)737-4657

기타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범차 소탁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신비한 토종의 효능을 보급하는 산마을 토종
**다슬기 농축액**
100% 자연산
◆청정 참 다슬기
◆간기능 개선
◆피로회복
◆변비,소변 원활
◆신장기능 강화
051)758-1673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39,000
환 (250g)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상담문의 환영**
▶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 못으로 시공하고 방수시트
▶ 페이트 제거제
▶ 목조, 석재, 세척제
▶ 방영성, 방부제
02)3474-6232

사찰안내

**사 찰부지 안 내**
◆ 위치 : 영천 임고 IC에서 10분거리
◆ 부지 : 2400평,법당 8평, 요사채 2동, 산신각
◆ 특징 : 계곡양옆 납골당 최적지 호수위 호조건 상담요◆
가액 : 1억
053)982-6778/011)515-7890

**토굴 안내**
◆위 치: 경북 군위 고로면
◆평 수: 472평
◆준농림: 토목, 정원공사 완료 포장도로접
◆가액 : 2천만원
053)982-4976
011)813-3679

**사찰 안내**
◇위치 : 오산
◇법당 : 15평
◇요사 : 30평
◇부지 : 250평
◇가액 : 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 대지 : 63평(큰도로 바로옆),
◆ 건평 : 80평 1층(요사채40평) 2층(법당40평)
◆ 가액 : 2억 8천만원
052) 249-3059
011) 848-0966

**포교당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평수 : 80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
◆ 시설완벽 (전통사찰에 버금감)
◆ 신도 및 불사미수금 기도비 인계함
◆ 가액 : 답사후 결정
011)303-6188(스님직접)

**토굴(수양원)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와룡사
◆건물 : 80평
◆법당10평,방10개,욕실3개 임야 4,500평
◆가액 : 2억 5천(저렴절충가능)
안대수려, 수질 양호, 주차장
0593) 835-1078
011) 803-2880

**사 찰 안 내**
◆시흥빌라 3층 18평형 방3개 가액: 4,500만 95년 분양가 5,7000이었음. 융자금 저당권 일체 없음
◆수원시 빌라2층 17평형. 가액3,200만원 분양당시 가격 4,800만원이었음. 중계인 사절 주인 직접 연락 선착순 (위 두채중 먼저 팔리는 한채)
◆전세 사양함
011)9973-4248

**사 찰 안 내**
◆ 위 치 :당고개 전철역 6분거리 ◆ 대 지 : 400평(국유지:불하가능),
◆ 법 당 : 40평(부속방사3실포함) ◆요사채 : 30평(주방및 거실, 방2개)
◆ 가 액 : 2억 7천만원
◆ 특 징 : 주차시설 완비(약 20대분), 노천 나한님 20분 조성석조) 추가 480분 모실 시설 완비, 수락산 기슭에 자연 경관이 수려한 청정기도 도량으로 도심 포교의 최적지임.
◆영업안내 : 1. 사찰 양도, 매매, 전월세, 포교당,사찰부지, 상담안내
2. 부전스님, 의식 집전스님, 공양주보살 소개 알선
3. 청동불조성(천불전, 삼천불전, 만불전)
4. 법종 조성 5. 기타 사암관련 정보제공
사찰 전문 용역 금강기획(구 금강실업)
02)736-3578~9/359-9492/011)789-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 대지 : 273평,법당25평, 요사채 30평
◆ 건물 : 새건물(양옥)
◆ 가액 : 1억 8천만원
051) 971-9793

**사찰부지 안 내**
◆위치 : 영주시 단산면
영주시내에서 7~8분 거리
◆평수 : 790평
◆산세좋음
◆가액 : 3천 2백만원
0444)423-7462

**포교당 안내**
◆위 치: 미아3거리 길음역
◆평 수: 2층 45평
◆모든시설완비, 포교당 내년에 현대백화점 오픈, 성북구에서 제일가는 포교당
◆가액 : 전세가능
017)214-4385
011)9862-6566

**사 찰(급) 안 내**
◆ 위치 : 충북 진천
◆ 대지 : 총397평, 법당20평, 요사24평 화장실, 세면스라브 3칸, 시설일체 양도함. 법등기 완료(건물은 조립식 판넬임)
◆ 가액 : 6천만원 (노스님 직접 면담)
0434)537-40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68번지 대동사
◆ 대웅전12평, 방3개18평, 방2개9평 요사채 2동 9평, 산신각 2평,칠성각12평, 종각1동, 창고1동
◆ 특징 : 실평수임 터는국유지
02)385-2331(대동사)
02)2267-7791/019)446-7791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 31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 60평, 방 8개, 주방 2개, 지하 요사채 20평, 명부전 9평 단청필 주지실 사무실 기타건물평
◆ 건물 완공은 4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
◆총 공사비가10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 찰 안 내**
◆위 치 :서울시내(지하철역 200m거리)
◆대 지 :60평
◆건 물 : 2층법당 40평 1층요사 40평 도심포교당으로 최적이며 모든 내부시설 최고급으로 완비
◆가 액: 3억 5천 (대출가능)
한국불사 02) 561-7791
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이나 암자 양도양수하실분 찾습니다.

**사찰부지 안 내**
◆위치 : 거제도 장목면 (거가대교 입구)
◆부지 : 2700평 ◆법당 : 20평
◆요사채 : 60평
◆특징 : 뒤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 해수욕장이 있음
◆가액 : 3억(절충가능)
0558)635-3891
017)560-4227

**사찰 (급)안내**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포교원 운영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위치 : 김포공항 요지
◆부지 : 법당28평, 삼존불, 달집, 법당 집기류 일체
※ 당일 법회가능함
◆ 가액 : 4천(전세)
017) 325-5603

**포교당 안내**
◆위 치: 미아3거리 길음역
◆평 수: 2층 45평
◆모든시설완비, 포교당 내년에 현대백화점 오픈, 성북구에서 제일가는 포교당
◆가액 : 전세가능
017)214-4385
011)9862-6566

**관절지을 땅(임야1500평)**
◆위 치 : 안동시 안막동 (시청서 5분) 2차선 신도로 접
◆벌장, 실버타운, 기도원, 사찰 적합위치최상 경관수려 (주차 15대이상가능)
◆가격 : 9800만원 011) 301-4949

**포교원 30평**
◆위 치 : 전서울 성북구 전철역앞
◆평수 30평, 상담실, 대기실, 강의실, 법당
◆3층건물의 3층 전체(옥상도 단독으로 씀)
◆가액: 2천 6백(천에 월 40만원)
0502)888-0119(서울)

# 불자 세상보기

## 매춘 갈수록 조직화…뿌리 뽑자

2일 윤락녀 2명이 자신의 처지와 세상살이를 비관한 나머지 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얼마전 사창가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다 구원편지를 보내 경찰에 구조된 한 윤락녀가 편지에서 밝힌 사실도 자못 충격적이다. 폐쇄회로 카메라가 24시간 감시하는 가운데 걸핏하면 몽둥이질을 하고 바깥출입을 철저히 막았다 하니 노예생활이나 다를 바 없었던 셈이다. 화대도 대부분 가로채고 엉뚱한 빚을 만들어 씌워 족쇄로 삼았다니, 과연 이것이 사람이 한 짓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이같은 무법천지의 인권유린 행위를 일삼는 매매춘이 점점 조직화·체계화되고 있고, 이를 단속할 경찰마저 한통속인 경우가 있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 법이 있고 인권이 존재하는 나라인지조차 의심스럽다.

매춘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세계에서 연간 1백만명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성(性)노예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하면서 성노예시장으로 밀매되는 여성과 아동들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타임스는 동남아지역의 여성·아동 밀매가 극심해 매년 25만명이 '거래'되고 있으며, 옛 소련연방의 국가 출신 여성·아동 밀매거래 숫자도 매년 15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3월 29~3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여성·아동 매춘밀매 근절을 위한 아시아지역회의'는 날로 늘어가는 매춘밀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성 밀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 "누이라 생각하고 딸처럼 생각하면 들짐승과 같은 마음 조복받아 순일하게"

그러나 매춘밀매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성에 대한 그릇된 욕망이 수요를 부르게 되고 따라서 자연히 공급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찰과 각급 교육·행정기관이 힘을 합해 나선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매춘 밀매를 부르는 인간의 욕망이 절제돼야만 한다. 바로 그 지혜를 담고 있는 〈잡아함경〉의 이야기는 좋은 가르침이다.

하루는 밧지국의 우데나왕이 핀돌라 존자를 찾아와 이런 것을 물었다. "이성에 대한 욕망이 불꽃 같은데 어떻게 들짐승과 같은 마음을 순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핀돌라 존자는 "부처님께서는 늙은 여인을 보거든 어머니라 생각하고, 중년의 여인은 누이나 동생으로, 어린 처녀는 딸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짐승과 같은 마음을 조복(調伏·몸과 마음을 고르게 해 온갖 악행을 제거함)받아 순일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답했다.

우데나왕이 다시 "그러나 존자님,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그래도 이성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라고 묻자, 핀돌라 존자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각기관의 문을 굳게 지키고 그 마음을 잘 붙잡아 매어야 하며, 대상에 집착하면 탐욕이 생기니 빛깔, 소리, 향기, 맛, 촉감, 생각의 분별을 단속해야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매춘밀매를 뿌리뽑는 것은 결국 단속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릇된 욕망을 이겨내는데 달린 것이다.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누이동생이 매춘밀매를 당해 윤락가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또 흥청망청

### 유흥오락비 지출 급증
### 사치성 소비재 수입 늘어

우리가 과연 IMF의 혹독한 시련을 겪은 국민들이 맞는가?

국민들의 유흥오락성 지출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언제 어려운 시절이 있었느냐"고 되묻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카지노, 복권 등 도박성오락에 쏟아부은 돈이 전년보다 11.3%나 증가했고, 골프장 입장인원도 무려 22.1%나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또 산업자원부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재 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무려 26.9%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치성 소비재라 할 수 있는 컬러TV, 승용차, 담배, 의류, 화장품, 보석 및 귀금속제품, 가구 등이 수입증가를 주도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부경전〉에 "벌이 먹이를 모으듯이 부지런하게 일해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네 몫으로 나누라. 그중 한 몫은 생활비에 쓰고, 두 몫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나머지 한 몫은 예치해 두라. 그러면 가난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는 가르침이 있다.

IMF 전처럼 흥청망청대다가는 또 언제 그와같은 어려움을 맞게 될지 모를 일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지 냉정히 되돌아볼 때다.

## 英, 인간배아복제 허용 검토

### '의학혁명' - '인간존엄' 논란 본격화 될 듯

영국 정부가 인간배아 복제를 공식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학혁명과 인간존엄성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인간배아 복제가 백혈병과 파킨슨병, 암 등 각종 불치병 치료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의학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인간의 배아복제 기술이 더욱 세련될 경우 복제인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인간의 존엄성은 말살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인류의 발전이 어디까지나 과학에 기초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자연이 지니고 있는 본래 가치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인간존엄사상이다.

## 외국인 살기 힘든나라
### 한국, 아시아서 첫번째

한국이 아시아에서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힘든 국가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한 연구기관인 정치경제위기관리사(PERC)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부족과 문화적인 차이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여전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한국은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불교의 역사는 그런 점에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우리문화중 불교와 관계하지 않은 문화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교문화는 그동안 뿌리를 내려왔다. 기성문화 패턴과 충돌하기보다는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민족정서와 밀접하게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환경을 갖추면서도 우리 것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이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이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3일 오전 4·13총선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총선시민연대 회원들이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꿉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두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제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았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 시론

## '4·13'의 선택

21세기의 첫 선거, 4·13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지난 세기의 낡은 유산을 청산하고 희망찬 새 천년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 새 천년 첫 선거 '뜻있게'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새 시대의 국가발전과 국정의 틀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변화에 걸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검증받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함축되어 있다.

이에 부응하듯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날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정치권의 자성에서부터 출발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하고 시민단체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시민단체에 의한 낙선운동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재산, 납세, 병역, 전과 등 후보자의 신상정보공개에까지 이르렀다.



유광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런 후보자의 신상정보공개는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도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개인신상정보의 공개는 물론 의정활동, 선거자금, 공약, 자질 등 유권자가 올바르게 판단할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왜냐하면 후보자에 관한 정보공개는 바른 선택을 책임지고 있는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과 검증을 해야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관련된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꼭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지역감정, 색깔론, 금권, 관권, 부정, 부패, 비리, 매수, 향응, 비방, 폭로, 폭력, 저질 흑색선전, 인신공격, 선거브로커, 장미빛 약속 등 일일이 나열하기 조차 민망한 후진적인 말과 행태가 혼란스럽게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금 세익스피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작품소재를 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치행태를 그대로 묘사하면 바로 그것이 희극이 되고 또 그 자체가 비극이기 때문이다."라고 어느 정치원로가 지적한 말처럼 혼탁정도가 과거 선거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구태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해답은 명백하다.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4·13 총선에서는 정치 도덕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첫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후보자이다. 병역, 납세 등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후보자는 국민됨을 포기한 사람이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듯이 이런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둘째, 부정 부패한 후보자이다. 우리의 정치사는 부정 부패로 얼룩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 부패는 정치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총체적인 현상이다. 그 가운데 심한것이 바로 정치인의 부정부패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인이 다소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적어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셋째, 거짓말하는 후보이다. 선거에서의 공약이나 정책에서의 거짓말은 비일비재하였고 우기면 진실, 속이면 진짜라는 말이 정치에서 유래하고 있듯이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 하고 있다. 정치인은 그 나라의 양심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 자격없는 사람 "절대 안돼"

넷째, 배신 잘 하는 후보자이다. 전·현직끼리, 위·아래끼리, 동료끼리, 유권자와 후보자끼리 사익(私益)과 권력에 따라 배신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이런 행태가 소신이나 명분도 없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신당도 만든다. 의리와 소신이 없는 후보자는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반심(反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다섯째, 파렴치한 후보자이다. 사람으로서 지어서는 안되는 죄를 짓거나 행동을 하면서 오리발 단 내미는 위선자는 후보조차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강·절도, 사기, 횡령, 폭행, 성범죄 등은 가장 저질적인 행위이다. 이런 후보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아직도 유권자의 도덕불감증이나 연고주의가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2544년 봉축 현수막
14도 칼라

불기2544년 5월 11일(음.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
관음사
■ 90cm×6m(4만원), 7m(4만5천원), 8m(5만원), 10m(6만원), 12m(7만원)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불기2544년 5월 11일(음. 사월초파일)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2544 Buddha's Birthday 우리도 부처님같이 5월 11일 사월초파일 도선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가능 ※ 세로 현수막도 제작 가능

2544 Buddha's Birthday 연등축제 5월 7일 종로거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불법제작 판매 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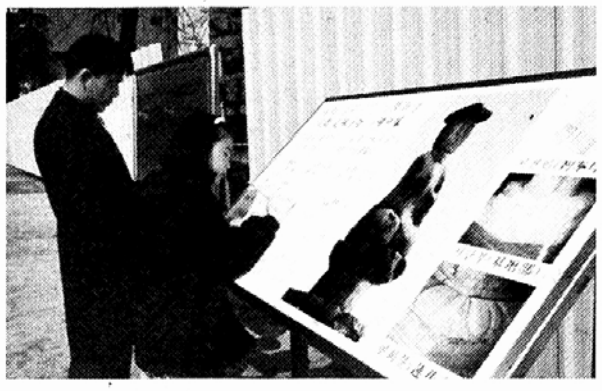
봉축캐릭터기 색상(분홍색,황색) ▲차량용 깃발 가격:4,000원
▲불자의 집 교패 가격:1,000원
▲봉축(차량용) 스티커 (50매 1세트) 가격:15,000원
▲봉축 캐릭터 풍선 (풍선대롱 포함) 가격:300원
가격:1,000원 가격:700원 ▲봉축 타이슬링
▲봉축 버튼 색상(군청, 주황, 백색) 가격:400원
▲봉축 캐릭터 등 색상(적색,분홍,녹색,노랑,청색) 가격:2,000원
힘찬 250원 고급 350원 3단귀빈용 1,000원 ▲봉축 리본 (색상다양)
부처님오신날(앞) 이웃과 함께(뒤) ▲봉축 어깨띠 색상(흰색,노랑,오렌지,분홍,연두) 100매이상 사찰명 인쇄 가격:2,500원
가격:45,000원 가격:40,000원 ▲지하철(장엄)연수막 (105cm×200cm)
가격:40,000원 ▲봉축 장엄 번 제등행렬용(7가지)
◀봉축 맨시스티카 (12종 1세트) 가격:1,200원
불교기 (20cm×30cm) ▲차량용 깃발 가격:4,000원
◀불자의 집 교패 가격:1,000원
※ 불교기, 법륜기, 태극기 크기별로 있습니다.
▲차량용 옴마니반메움 가격:1,000원
▲봉축 캐릭터 티셔츠 (그림 종류 다양) 어린이:6,000원 어른:8,000원
▲암치마 색상(노랑, 빨강, 녹색) 가격:4,000원
▲차량용 연꽃염주 가격:2,000원
▲성인모자 가격:3,000원
▲아동모자 색상(빨강,노랑,청색) 가격:2,800원
(앞면) (뒷면) ▲부채 가격:700원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9 FAX.(02)738-8682

전국보급처 ■부산-고려불교예술원(051)807-6842 • 종합불교관(051)816-2926 ■대구-삼영불교서적(053)425-4097 ■광주-무등원(062)232-0904 ■인천-인천불교서적(032)763-7885 ■대전-보문불교서점(042)253-6446 • 용해불교(042)283-3727 • 중앙불교(042)222-7840 ■경북상주-고려문헌사(0582)541-5599 ■구미-대중불교문화원(0546)455-1068 ■충주-중원불교마당(0441)851-8477 ■공주-시대불교사(0416)856-3280 ■경기광주-광주만물(0347)762-1083 ■의정부-삼보불교사(0351)856-1020 ■경남밀양-밀양불교사(0527)355-5742 외 전국유명불교용품점

# 사찰 가족 나들이 '보람 두배'

◇부처님 가르침도 들을 수 있고 문화재도 감상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가족 단위 또는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말이나 연휴를 이용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찰을 찾는 불자 가정이 늘고 있다. 특히 이런 모습은 봄을 맞아 더욱 눈에 띈다. 안내서를 손에 쥔 채 자녀들의 숙제를 돕기 우해 '1일 역사 도우미'로 나선 아버지, 손에 염주를 쥔 채 탑돌이를 하고 있는 어머니, 그 옆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아이 등이 바로 그들이다.

◇사찰답사 안내단체

| 사찰전문 답사회명 | 전화번호 |
|---|---|
| 석물선양회 | (016)267-7945 |
| 여래지답사회 | (02)3445-0202 |
| 터사랑답사회 | (02)725-1284 |
| 두레문화기행 | (02)712-5812 |
| 불교문화답사회 | (02)2275-4333 |
| 불교방송 사찰순례팀 | (02)705-5114 |
| 용진여행사 | (02)2279-1191 |

## 부처님 만나고 역사공부도
## 답사회·여행사 프로그램 인기

이런 현상은 사찰 답사가 부처님도 만나고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내주는 숙제가 문화 유산이 있는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그 내력을 조사하는 것으로 변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지난 주말, 부여 정림사터에서 만난 김남기(38·부여시 궁남동) 씨의 가족도 주말 나들이 장소를 사찰로 택했다. 정림사터에서 넓은 마당에 덩그러니 솟아 있는 오층석탑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김씨는 "익산 미륵사지탑은 나무탑을 모방해서 돌로 만든 탑인데 비해 이 탑은 돌탑이라는 독자적인 양식을 취했단다"고 딸에게 설명한다.

딸 김지현양(궁남초등 3년)도 학교에서 내준 '정림사지탑을 보고 역사와 느낌을 조사해 오라'는 숙제를 위해, 안내판의 글들을 옮겨 적으며, 탑 주위를 몇 번씩 둘러 본다.

김양은 "아빠와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 역사숙제를 아빠가 도와줘 쉽게 끝냈다"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찰을 찾기도 하지만, 답사회나 여행사들이 준비한 사찰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나들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 안내자의 설명과 함께 스님들의 설법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 한테는 오히려 개별적으로 갈 때 보다 숙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답사프로그램이 더 인기가 많은 편이다.

5일 답사프로그램 안내자로 여주 신륵사를 방문한 신상균교사(서울 청담중학교)는 "1천6백여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를 이끌어온 불교는 조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치있는 문화유산"이라며 "현장 답사를 통해 돌덩이 하나라도 만져보면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 사진을 첨부한 답사기를 월 2회정도 과제로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주말 사찰나들이를 다녀온 가정들은 한결같이 아이들이 금요일만 되면 부처님을 만나러 가자고 조르다고 입을 모은다. 각자의 바쁜 일상생활로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이 주말을 이용해 머리도 식히고 부처님을 자주 접한다면, 가족의 화목은 물론 부처님에 대한 법음도 단단히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사찰 편액을 찾아서

### ② 원교의 백련사·선운사 편액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의 편액.




◇고창 선운사 요사의 편액.

백련사 '대웅보전' 힘차게 오르는 용의 기세

선운사 '정와' 정자체 벗어난 파격 장법

원교 이광사(1705~1777)는 정종의 왕자 덕천군의 후손으로 하곡 정제두로부터 당시 이단시되던 양명학을 배웠고 백하 윤순에게는 글씨를 배웠다. 원교는 51세 때인 1755년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에 연루돼, 처음 회령에 유배된 후 다시 진도로 이배되었다가 결국 절해고도인 신지도로 옮겨 생을 마쳤다. 그는 조선 중후기를 대표하는 소론계 강화학파의 사상가였으며 스승 백하로부터 이어지는 동국진체(東國眞體)의 완성자였다.

본래 원교는 젊어서 불교에 심취했지만 회령에 유배되어서는 중옹 이광찬과 조카 이충익이 유학을 등한시하고 불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여 배불론을 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천불전〉·〈침계루〉·〈해탈문〉, 구례 천은사 〈지리산천은사〉·〈극락보전〉·〈명부전〉,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명부전〉·〈만경루〉, 고창 선운사 요사 〈정와〉·〈천왕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설선당〉 편액 등 유배지 일대의 많은 사찰에 글씨를 남긴 것을 보면 배불 운운 한 것은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키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그의 진의는 아니었던 듯 싶다.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편액은 액관을 세로 두쪽으로 나누어 걸었는데, 공포가 촘촘히 자리잡고 있는 다포계의 건물이어서 마땅히 걸 자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편액은 1760년 소실된 전각을 원담 윤철(圓潭 允哲) 등이 2년여에 걸쳐 중창하면서 때마침 근처 신지도로 이배돼 온 원교에게 부탁하여 쓴 글씨일 것이다. 용이 힘차게 틀어 오르는 듯 노건(老健)한 필치가 돋보이는 행서로 오랜 유배 생활의 회한이 담겨있다.

고창 선운사 요사에 걸려있는 〈정와〉 편액은 가로 두 관의 수수한 변죽에 "원교(圓嶠)"라는 두인과 "이광사인(李匡師印)"이라는 방인이 찍혀 있다. 이 편액의 글씨 역시 원교가 신지도에 이배된 1762년 이후에 쓴 것으로 보인다. 잠잘 때를 제외하고 글씨 쓰기를 쉰 적이 없다고 하는 원교는, 종래의 반듯한 글자 틀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장법을 구사하는 이러한 행서를 즐겨 썼는데 이는 주자학에 젖은 평면적 사고로부터의 일대 전환이었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 건강백과

### 야채 요법

고지방, 고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필연적으로 성인병을 낳는다. 야채와 과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야채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성 섬유 등이 풍부해 성인병을 예방하고 몸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본 오차노미즈여대 건강관리센터 소장 나가카와 유조박사가 감수한 〈약이 되는 야채 사전〉이라는 책이 최근 번역돼 나왔다. 이 책은 각종 야채의 영양성분과 질병의 예방 및 개선효과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자연의 약'인 야채를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을 알아본다.

1)하루 300g이상의 야채를 섭취하라.

야채는 하루 300g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요즘 재배되는 야채는 자연산에 비해 영양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300g은 최소량으로 보면된다. 이 중 100g은 녹황색 채소로, 나머지 200g은 담색 채소로 섭취하는 게 이상적이다. 보통 한 입에 쌈을 싸서 먹을 수 있는 크기의 상추 10장과 오이 반쪽, 적당한 크기의 접시에 반쯤 담은 샐러드를 합하면 300g 정도가 된다.

**신선한 채소 하루 300g이상 섭취**
**비만-버섯 고혈압-어패류 효과**

2)신선한 채소를 골라라.

신선한 제철 채소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방금 수확한 것과 5일 지난 것과는 비타민C 함유량이 30%나 차이가 난다. 계절을 뛰어넘어 비닐하우스 등에서 출하된 채소는 제철에 나온 것보다 비타민C나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70%이상 적다. 해조류, 버섯, 과일도 영양효과는 야채와 비슷하다.

◇성인병 예방을 위한 야채요법

| | |
|---|---|
| 암 | 가열 조리한 녹황색 채소 충분히 섭취, 해조류 이용한 된장국 |
| 빈혈 | 파슬리를 이용한 나물이나 샐러드 |
| 비만 | 당분이 많은 야채는 삼가고 버섯과 해조류를 이용한 국이나 스프 |
| 고혈압 | 신선한 야채, 담백한 맛의 어패류을 곁들인 요리 |
| 동맥경화 | 샐러드, 담백한 버섯요리 |
| 골다공증 | 버섯에 유제품을 곁들여 조리한 요리 |
| 신장기능저하 | 기름을 이용한 녹황색 채소요리 |



◇대불련 서울지부가 1일 한양대 콘서트홀에서 개최한 '원성스님과 함께하는 38번째 프로포즈'.

## 새내기에 佛心지핀 원성스님

### 대불련 한양대 행사 참석
### 출가동기·불교철학 밝혀

새내기 프로포즈' 현장. '동승'의 작가 원성스님이 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서울지부의 초청으로, 대불련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출가 동기를 밝히며 '부처님 품안에서'를 주제로 이야기식 강의를 펼쳤다. 스님은 불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 놓기도 했으며, 자신이 펴낸 수필집 〈풍경〉(이레)에서 발췌한 글들을 참석자들에게 읽어 주기도 했다. 또 강의 중간에는 스님과 함께 5월 공연을 앞두고 있는 용주사 수원포교당 소년소녀합창단이 우정 출연해 '청솔 아래서'와 '떠나보자' 등을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4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대불련의 역사와 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새내기 불자들에게 보여줬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 청소년단신

### 전국 청소년 사경 공모전

봉축위원회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3회 전국 청소년사경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상의 슬기를 이어받아 국난극복 의지를 모으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보낸 〈보왕삼매론〉과 삼귀의를 담은 사경 용지에 사경을 해서 20일까지 협회로 반송하면 된다. 1인 1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02)720-2571

### 선재연구모임 사이트개설

10대 청소년 상담잡지 〈속삭임〉을 펴내고 있는 선재연구모임이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선재연구모임의 연혁과 행사 계획 등이 소개돼 있다. 또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를 상담해 주는 '나누는 속삭임'을 비롯해 스님들의 글을 실어 놓은 '산사에서 보내는 편지', 청소년들의 시와 글을 모아 놓은 '선재들의 이바구' 등을 볼 수 있다. 주소는 www.sunjae1318.co.kr.

### 청소년 심리극회원 모집

목동청소년수련관 상담실에서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심리극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심리극 동아리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2회에 걸쳐 심리극의 이론과 연기를 전문 상담사로부터 지도받게 된다. (02)2646-8341

### 1318 인터넷 방송국 개국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이 9일 본 수련관 청소년극장에서 '청소년인터넷 방송국' 개국식을 거행했다. 부산지역 청소년 사이버미디어 동아리 발대식까지 겸한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소개에 이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영상 작품 '동네' 시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소는 www.POWER1318.com

## "올바른 청소년 봉사상 정립 필요"

### 박강수 총장 세미나서 강조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인식 전환과 자원봉사에 관한 제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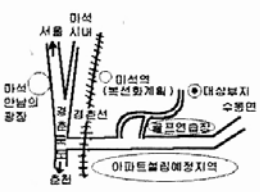
3월 30일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주최로 열린 '청소년 자원봉사 세미나'에서 '청소년 자원봉사가 나아갈 길'이란 주제를 발표한 박강수 총장(배재대)은 이렇게 지적했다.

박 총장은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전환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자원봉사기관의 폭넓은 교류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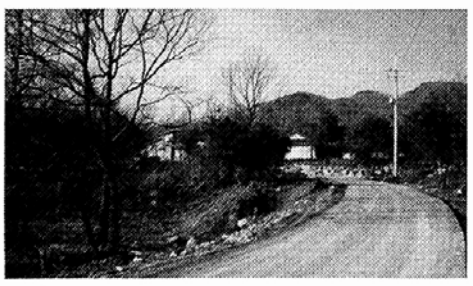
이에 대해 김성이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각 학교의 정보지원과 해결 방안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최고의 대가람터

▶ 소재지 :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 면 적 : 2,000평 ~10,000평
▶ 가 액 : 상담후 결정
▶ 연락처 : 0346)511-0433
017)302-2550
017)391-1003




▶ 특 징
1. 46번 경춘국도에서 직선 1Km
2.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기반시설 완료
3. 송라산 자락에 위치하여 마석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
4. 정남향 대지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려다
산세가 너무 아름다워
훼손시킬수가 없었읍니다.

수행 · 기도 · 명상 · 휴양

아름다운 소리산 출세봉,피안봉
반야봉(보궁터), 해탈봉, 나한굴, 바람굴
약수터 행선코스에서
등산, 산림욕, 산책, 휴양, 명상을!

- 절, 염불, 독경, 참선, 행선, 와선, 선체조도인법, 수행의 테크닉 비법을 배우며
- 출가 예정자 수행체험
- 업장은 절로녹고 소원은 성취되는 기도체험
- 수행, 신행, 명상 기도 키운슬림
- 상기병, 홧병, 불면증, 우울증, 냉병, 감기 몸살, 피로회복을 수행으로 쉽게 극복하는 비법전수
- 일정 : 3, 7, 10, 15, 30, 50, 100일 (한달 교육수행숙식 20만원 기준)

※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저녁8시 ~ 일요일 아침8시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홍천대명스키장,산음자연휴양림5km)
◈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납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증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친견

주문 신청 0523)372-1221 / 011)564-1217

- 대 금 : 20만원
-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현대자동차 매매상사

품질 보증 불자님의 안전운행과 고장없는 차량이 판매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자동차 1천만대와 면허소지자 2천만명시대에 접어들어 우리는 본격적인 자동차 대중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통문화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교통질서의 확립 및 명랑한 교통환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의식이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운전 행동 역시 운전자의 여유있는 마음 가짐에 의해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교통질서의 주역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통 문화를 이룩하여 선진 사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대표 김 정숙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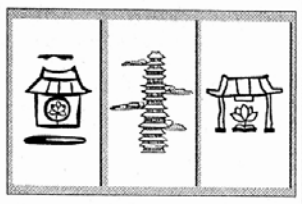
파시는분
전화 한 통화로 전문 딜러의 차량 도/소매 가격 정보제공 및 방문후 정당한 판매가를 보장하며, 계약 당일 이전 등록을 책임지겠습니다.
※ 중고차 전차종 즉시 고가매입

사시는분
품질 최우선의 신념 아래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전문딜러가 감정선별하여 믿을 수 있는 자동차를 직거래 판매합니다.

※ 신용카드 할부
- 가맹점(6~18개월)
- 기혼자 무보증 할부(300만원/24개월)
- 전차종 매매/위탁/알선함
- 당일 현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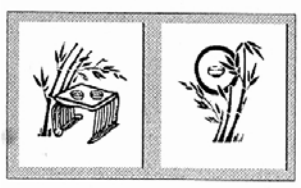
■ 연락처
· 광주 영업소 016)622-9082(김정숙)
011)601-0621(박동헌)
Fax. 062)371-7544
· 해남영업소 017)611-6670(박동권)
Fax. 0634)536-8845

##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 다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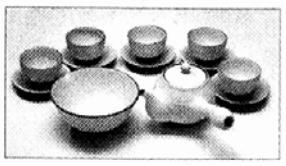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 고산다기



가격:₩120,0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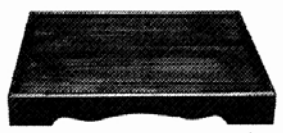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 찻 상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 건강 옥 염주



청옥 · 백옥(小)
가격:₩30,000
청옥 · 백옥(大)
가격:₩40,000

## 다기함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휘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입 반 ₩27,000
숭가반 ₩35,000
황토반 ₩35,000

실용신안1998-025009
의장등록143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40,000

## 한방향 선물셋트

향통+한방향+향꽃이



2셋트 구입시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25,000

##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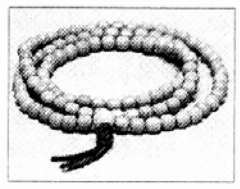


천연향방
악향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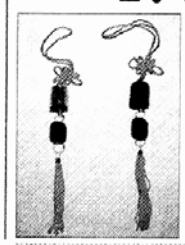
가격:
₩50,000

##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 검정 · 금색

가격:₩9,000

##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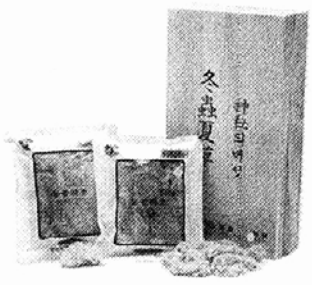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
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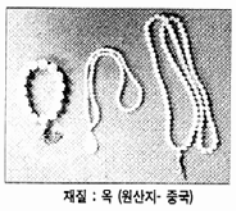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코팅 · 골동품
₩350,000
■개금
₩580,000

##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 성덕대왕 신종

신라의 미 하면 가장먼저 성덕대왕 신종 속명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게된다.
'에밀레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현존하는 신라시대의 범종중에서 최대의 성덕대왕신종은 당시 종장(鍾匠)의 애절한 전설과 함께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조의 장구한 세월과 만고풍상을 견디어 그 자태는 본래의 모습대로 오늘날까지 국립 경주 박물관에 잘 본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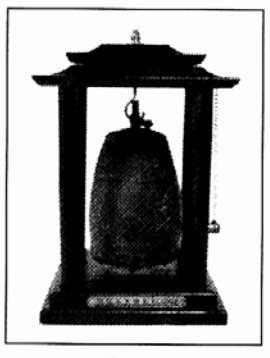
봉덕사 성덕대왕신종은 구경 2,227mm 전고3,663mm. 두께203mm. 음통고648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동양의 청동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명종이다.

이 종은 신라 제 35대왕인 경덕왕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덕대왕을 위하여 구리12만근을 들여 만들다가 실패하여 그 아들은 혜공왕 7년(771년)에 완성된것이다. 처음에는 성덕대왕의 원찰인 봉덕사에 걸려있었는데 그 뒤, 경주읍성의 남문, 동부동의 옛 박물관을 거쳐 1975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종의 꼭대기에는 우리나라 종만이 갖고 있는 용의 형태로 된 고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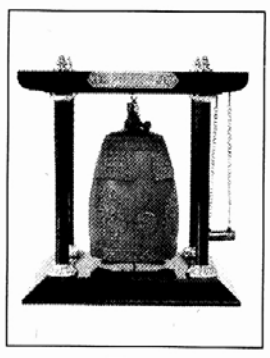
몸에는 위로부터 보상당초무늬를 새긴 윗띠와 연꽃으로 장식된 4개의 유곽.무릎을 꿇은채 날아 내려오는 4개의 공양각으로 되어있다. 우아한 형태엄격한 양식, 아름답고 긴 여운이 깃든 소리등은 다른 종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걸작중 하나로 손꼽힌다.



팔각틀 에밀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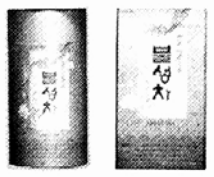


정사각틀 에밀레종



직사각틀 에밀레종

## 불 성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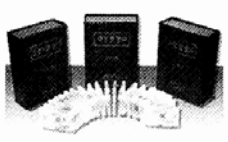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중작 ₩30,000 / 대작 ₩20,000

## 날개 CD



가격:
₩9,500

##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 각 68분
■ 가격:
각 ₩25,000

## 주목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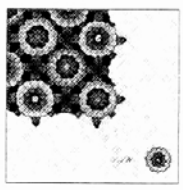
■ 가격: ₩16,000
■재질: 주목 ■사이즈: 24mm

## 신경미 Flute 소품집(CD)



가격:
₩10,000
택일 ₩5,000

##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빕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끔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붙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승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NO 1 가격: 2,000
NO 2 가격: 2,000
NO 3 가격: 3,000
NO 4 가격: 3,000
NO 5 가격: 3,500
NO 6 가격: 3,500
NO 7 가격: 3,500
NO 8 가격: 3,500

##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 | | | |
|---|---|---|---|
| 산촌 들깨유과 | 90,000원 | 산촌 콩유과 | 30,000원 |
| 산촌 김유과 | 90,000원 | 산촌 쑥유과 | 30,000원 |
| 산촌 잣유과 | 100,000원 | 산촌 호박유과 | 30,000원 |
| 산촌 대추유과 | 100,000원 | 산촌 김치유과 | 90,000원 |
| 산촌 땅콩유과 | 100,000원 | 산촌 된장유과 | 90,000원 |
| 산촌 흑임자유과 | 100,000원 | 산촌 고추장유과 | 90,000원 |
| 산촌 파래유과 | 90,000원 | 산촌 감자튀김 | 54,000원 |
| 산촌 찹쌀유과 | 30,000원 | 산촌 감자유과 | 54,000원 |

※ 1BOX : 4kg 공통

##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올외 장아찌(마니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등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텅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 이렇게 들었다 — 의료분쟁

대한의사협회가 4일부터 전국적인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국민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보수가 6%의 타협안을 받아들였다가 동네의원들이 반발하자 다시 8%를 고수하며 집단휴진을 불사한 의사들의 행동에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국회통과까지 된 마당이라면 의료계는 먼저 국민들을 생각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먼저 의사 본분의 자세를 지키며 국민들의 건강을 중요시 여기길 바라며, 정부도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기보다는 끝까지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병든 이를 생각하는 마음과 공덕,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본분 등을 경전에서 찾는다.

## 병든 이 구함보다 큰 공덕 없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천상에서나 인간세계에서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훌륭한 베품을 보지 못하였다. 병든 이를 돌보는 이는 큰 공덕을 얻을 것이고, 명예가 온 세상에 퍼질 것이며, 감로법을 얻을 것이니라. 〈증일아함경〉

▨설사 나에게 공양하거나 과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나에게 베푼 복덕은 병든 사람을 돌본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증일아함경〉

▨지금부터는 마땅히 병자를 돌보아 주어라. 만약 나를 위할 생각이 있거든 먼저 병자를 위하는 것이 좋다. 〈사분율〉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이 다섯 가지를 게을리하면 병이 빨리 낫지 않느니라. 간호하는 사람이 약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게으르고 용기가 없거나, 성질을 잘 내거나 잠자기를 좋아하며, 이익을 위해서 환자를 간호하지 않거나, 법답게 공양하지 않을 때가 그렇다. 그러므로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늘 조심해야 하느니라." 〈증일아함경〉

▨병든 사람을 보면 약을 주어 치료해야 한다. 〈불사의비밀대승경〉

▨비사리가 네가지 원을 세웠다. " 병든 스님에게 병에 따라 약과 음식을 내어드리고, 환자를 간호하는 스님에게 음식을 내어드리며, 멀리 오는 스님들에게 먼저 공양올리고, 멀리 떠나는 스님들에게 양식을 대 드리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착하고 장하도다. 너의 원은 그 공덕이 넓고 커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현우경〉

▨병을 간호하는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첫째는 먹어도 좋은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알아서 주는 일이다. 둘째는 병자의 대소변과 침이나 토한 오물을 싫어하지 않는 일이다. 셋째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지녀서 의식을 요구하지 않는 일이다. 넷째는 탕약을 잘 다스리는 일이다. 다섯째는 병자를 위해 설법함으로써 기쁘게 해주는 일이다. 〈사분율〉

▨불자로서 온갖 병자를 보았을 때는 언제나 이를 공양하되 부처님을 대하는 듯해야 한다. 여덟 복전 중에서 간병의 복전이 으뜸이니, 부모·사승·제자의 병과 몸의 불구자와 갖가지 병고를 다 봉양해서 낫게 해야 된다. 만약 도시·벌판·산림·도로에서 병자를 보고도 구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범강경〉

▨말세 중에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이 늙고 병든 사람이나 애를 낳은 여자를 보고, 만약 일념 사이에 대비심을 갖추어 의약품·음식·침구 등을 보시해 안락하게 해준다면, 이런 데서 오는 복리는 도저히 헤아리기 어렵다. 〈지장경〉

▨병자를 간호해도 내세우지 않으며, 낫고 나서도 돌보아 병 뒤의 피로가 도질까 두려워해야 한다. 회복해서 본래의 건강하던 때와 같음을 보게 되면 마음에 기뻐하여 은혜에 보답하며 불행히도 병자가 사망했을 때는 장사지내면서 설법해, 친지와 권속을 위로해 깨우쳐야 한다. 〈선생경〉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 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天人)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쟁인연경〉

# 신행 캘린더



◇봉축행사의 마스코트 동자승들. 동자승의 해맑은 눈망울이 천진불심을 일깨우며 청정한 삶을 일궈 나가라는 가르침을 준다.

## 30일간의 천진불심 세계로…

### 조계사 출가체험 동참할 동자승 모집

해마다 봉축행사에서 동자승들은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 해맑은 눈동자와 걸림없는 모습에서 천진불심을 발견하게 되는 동자승들. 조계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2회 동자승 30일간의 출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천진불심을 유아불자들에게 몸소 체험시키고 각종 봉축행사에 참가하게 될 동자승의 지원자격은 4세~7세의 남·여 어린이. 신청기간은 14일까지이며 10명의 유아들을 모집한다. 19일 낮 12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유아불자들의 삭발 출가 의식도 봉행한다. 문의 02)732-2183

**4월12일 (수)**

■불교문화센터 정재각박사 초청 명상이야기 강좌=불교문화센터는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정재각 前 동국대총장을 초청, '명상이야기'를 주제로 다보문화강좌를 마련한다. 02)703-0108

■경인미술관 학림스님 전통 찻상 전시회=불교전통목공예가인 학림스님은 18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그동안 손수 제작한 전통 찻상들을 모아 전시회를 갖는다. 0584)653-6788

■법우스님 결식아동돕기 전통춤 발표회=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인 법우스님의 결식아동돕기 전통춤발표회가 저녁 7시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다. 042)271-3395

■한국불교음악협회 봉축기념 '붓다' 공연 기념음악회=한국불교음악협회는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음악회 '붓다-영원한 자비의 손길'을 공연한다. 관람객들에게는 지난 3월초 제작한 혼성4부 합창 찬불가 CD가 무료로 제공된다. 02)723-0440

**4월13일 (목)**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설봉스님 도예전=도예가 설봉스님이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화랑 3층에서 '마음으로 보는 도예전'을 연다. 02)411-4779

**4월14일 (금)**

■좋은벗들, 정현백교수 초청 통일강좌=좋은벗들에서는 정현백교수(성균관대 사학과)를 초청, 저녁 7시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남성적 질서의 분단과 극복'을 주제로 통일 강좌를 마련한다. 02)587-8996

**4월15일 (토)**

■제주불교연꽃모임 혜국스님초청 사경법회=제주불교연꽃모임은 관음사에서 혜국스님(남국선원장)을 초청, 사경법회를 봉행한다. 064)722-2829

■해인사 '통일기원 팔만연등축제'=해인사와 가야면청년단체협의회는 공동으로 5월11일까지 합천에서 '통일기원 팔만연등축제'를 개최한다. 0599)931-0102

■대구시민회관 불교뮤지컬 '오 부처님' 공연=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과 불교문화예술원이 주최하는 불교뮤지컬 '오 부처님'이 17일까지 대구시민회관에서 무대에 올려진다. 시간은 오후 4시·7시. 053)421-6494

**4월17일 (월)**

■범어사 100회 보살계 법회=부산 범어사는 19일까지 금강계단에서 제1백회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51)508-6122

**4월18일 (화)**

■불교문화답사회 송광사·마이산 순례=불교문화답사회는 국내 최대의 대웅전 좌불상과 사천왕 전각, 십(十)자 범종각 등으로 유명한 완주 송광사를 찾아간다. 돌아오는 길에는 전북 진안의 마이산 탑사를 순례한다. 참가비는 3만8천원. 02)2275-4333

## 법회안내

### 23일 법장사서 법문



성수 조계종 원로의원 및 황대선원 조실스님은 23일 오전 10시30분 법장사 대웅전에서 '사찰신축 낙성기념 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02)948-3111

### '지혜로운 인생' 설법



암도 前 조계종 교육원장스님은 13일 오전 11시 법왕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경율론 삼장 백고좌' 법회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주제로 법문한다. 053)766-3747

### 법화사 '천일기도'



무비 은해사 승가대학원장스님은 15일 오전 10시 제주 법화사 대웅전에서 '천일기도' 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064)738-5225

### '정견과 사견' 강의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교수는 13일 저녁 7시 '대승회 창립 10주년 특별법회'에 초청돼 '정견과 사견'을 주제로 강의한다. 02)736-4848

## 게시판

### 알림

▲복지관 일요일 개방=덕유사회복지관은 매주 일요일마다 복지관을 개방한다. 일요일에는 가족노래방, 청소년PC 게임, 정신지체 청소년 성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32)325-2161

▲노인 상담원교육=대구불교사회복지회는 5월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 복지관내 교육실에서 노인상담전화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노인의 심리와 특성' '전화 상담의 특징과 기법' 등을 강의한다. 053)476-6633

▲무료 탁아방=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맞벌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 탁아방을 실시한다. 7세미만의 유아들에게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노래, 게임 등을 지도한다. 희망을 원하는 부모는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생활보호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02)577-5800

### 모집

▲조계종 중앙종회 종무원=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는 종무원 1명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72년이후 출생자로 법학, 행정학, 불교학 전공자 우대. 02)735-5860

▲서예교사 자원봉사=염창동청소년 공부방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문서예를 지도할 강사를 모집한다. 또 어머니들의 한글과 산수, 중고생들의 영·수 보충학습을 지도할 자원봉사 교사도 기다린다. 02)3664-4453

▲모니터 요원=보리방송모니터회는 1일 8시간 방송 녹화테이프 모니터링 후 보고서(A4지 2매분량)를 작성할 아르바이트 모니터 요원을 구한다. 일당은 2만원(점심제공). 02)712-5813

▲결식어린이 후원금=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결식 어린이 급식비와 저소득 중고생 학교 육성회비를 지원할 후원의 손길을 기다린다. 후원계좌는 대구은행 015-05-595961-001. 053)476-7700

▲여성목욕도우미=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가 중증장애인 위생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우리 목욕'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 도우미를 모집한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목욕시설 관리, 탈의 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02)989-4215

▲경로당 주부식 후원업체=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기시는 노인들의 주부식을 후원해 줄 가게나 공장 등의 후원업체를 모집한다. 02)385-1351

### 강좌

▲금강경·유식론 강좌=원효사상연구소는 12일부터 매주 월·목·토요일 저녁 7시에 대학로 본원 강의실에서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 내용은 금강경 오가해, 중국의 유식론, 원효의 유식사상 등이다. 통신 수강도 가능하다. 강사는 심재열소장. 02)3672-9097

▲시민 불교대학=영산불교시민불교대학은 2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 내용은 불교예절, 불교상식, 부처님의 일생, 기초교리 등이다. 법장사주지 퇴휴스님이 강의한다. 수업시간은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낮 12시. 02)948-3111

▲컴퓨터·피아노·서예교실=낙동복지관은 지역 아동들의 건전한 인성 개발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검도, 종이접기, 컴퓨터, 피아노, 서예 등에 걸친 문화교실을 개설한다. 051)271-0560

▲경전공부=새생각실천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삼성동 선재법당에서 '일반인과 함께하는 경전공부'를 개최한다. 교재는 〈법화경〉〈원각경〉〈법화경〉. 02)518-0845

▲'금강경'=조계사청년회 관음부는 종로 '솔밭' 찻집에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6시에 〈금강경〉 경전 공부 모임을 갖는다. 016)266-7464

▲천수경·반야심경=대구 보현사 평생불교대학에서는 〈천수경〉〈예경〉〈반야심경〉 등을 교육할 불교강좌를 개설한다. 수강료는 10만원(3개월과정). 053)254-6966

### 이전

▲김홍국장학재단은 3월27일 여의도동 61-3번지 라이프 오피스텔 629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86-4011

### 화촉

▲법보신문사 편집국 남배현기자는 16일 낮 12시15분 청량리 신진주웨딩홀에서 김경화(옥수북지관어린이집교사)씨를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02)725-7014


KBS 선정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탑사의 영험과 돌탑에 얽힌 비밀!

화제의 책!



진현종 편저 / 혜명스님 감수
올컬러 / 값 6,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신령스런 영험이 그치지 않아 절로 외경감을 품게 하는 마이산 탑사!
이제 현대의 살아있는 전설을 찾아 떠나보기로 하자.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탑사

은행나무 전화(02)3143-0651 팩스(02)3143-0654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호남의 명산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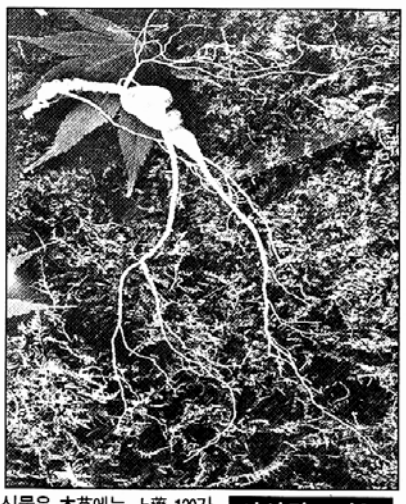
찾아오시는 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8) 433-2900, 0903 (0658) 432-0652, 0072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 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 문화축제로 지피는 '지역불심'

합천의 '통일기원 팔만연등축제', 하동의 '2000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경주의 충담제, 전주의 종이문화축제….

최근 지역별로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가 마련돼 불자들의 신행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 대한 불교홍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이러한 불교문화 행사는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일정이 진행되며, 단순한 관람에서 한 발 나아가 직접 참여해 체험하는 것이 많아 자연스럽게 불교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포교 프로그램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15일부터 5월11일까지 26일동안 88고속도로 해인사 인터체인지~해인사 구간에서 열리는 "제1회 통일기원 팔만연등축제".

세계적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와 가야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 기간동안 팔만대장경 관각·탁본 시연과 모조경관 들고 사진촬영, 사찰음식체험, 통일기원 촛불행진, 통일기원 대제 등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행사기간중 88고속도로 해인사 인터체인지에서 해인사까지 왕복 40km 구간의 양쪽 도로변에는 팔만개의 연등이 켜져 야간에는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여 새로운 관광명물로 등장할 전망이다.

**해인사** 팔만연등제 판각시연·사찰음식 체험

**쌍계사** 야생차 세미나·범패·작법공연

**전북불교회관** 종이전시회·시민 사경대회

범패의 발상지인 하동 쌍계사 지역에서는 5월 19~23일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펼쳐져, 차 관련 재미있는 체험행사가 열린다.

5월22일 오전 쌍계사 팔영루에서 '야생차의 발전방향과 활성화 및 차의 맛과 멋' 주제의 학술발표회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오후6시 '5월의 문화인물' 진감국사의 문화업적을 추모하는 범패 및 작법공연이 이어진다. 또 쌍계사 일원에서 열리는 차 사진 촬영대회, 쌍계사·칠불사·청학동·진교도요지를 잇는 문화유적 답사는 불교문화를 만끽하는 즐거운 봄 나들이가 될 것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이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하는 김룡사 괘불탱화 특별전은 불교미술과 불교의식의 장엄함이 불자와 시민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괘불탱 이운 및 영산재 재현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찬불게와 법악기 연주가 더욱 이채롭다.

또한 전북불교회관이 '2000 전주 종이문화 축제'의 일환으로 5월 3~5일 전주 경기전공원에서 시민·불자 대상의 사경대회 및 전시회를 열고, 경주문화축제위원회와 신라문화원이 9일 경주 계림에서 제12회 충담제를 개최, 신라 고승인 충담스님의 높은 덕을 기리며 동국국악실내악단의 헌악과 헌무, 헌다 예법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등 지역포교를 겸한 불교문화 행사가 잇따르고 있어 문화포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쌍계사를 국제적인 차문화의 메카로 부각시킨 98년 국제차문화대회 중 성년다례식 장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4일 대둔사에서 열린 서산대사 성역화사업 기공식.

# 대둔사 호국도량으로

## 서산대사 추모 보국대전·보국탑 등 신축

**140억원 투입 2004년까지**

해남 대둔사(주지 보선)는 탄신 480주년을 맞아 서산대성사 성역화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4일 거행된 성역화사업 기공식을 기점으로 대둔사는 서산대사 탄신 480주년을 맞아 모두 140억원을 투입, 2004년까지 진입부에서 경내지까지 모든 도르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해탈문 일주문 동국선원 등을 보수·복원한다. 또 선현의 영정을 봉안하는 보국대전과 문수전 보현전 보국탑을 신축하는 등 사찰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리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고취하는 민족호국도량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서산대사는 묘향산에서 입적하면서 자신의 의발을 두륜산 대둔사에 보관할 것을 유언, 선조대왕이 교지를 내리고 보국사찰로 지정했다.

대둔사 내 표충사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대둔사 조실 천운, 전 교육원장 암도, 전 백양사 주지 지선, 중앙종회 부의장 명진,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김봉호 국회부의장 등 정관계인사, 신도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해남=조윤오 목포지사장

# 태고종 환경보호 수륙대재

## 남한강서…3천여명 발우공양 정신 실천 등 선언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6~7일 양일간 여주 신륵사 앞 남한강변 특설도량에서 새천년 조국평화 기원 및 환경보존 실천을 위한 수륙영산 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인곡스님, 부원장 보안, 지암 스님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한 이번 법회는 1부 영산재와 2부 방생법회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구환경보존 실천을 불자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공동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검소한 삶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 △사찰주변의 정화와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해 환경보존 실천을 생활화한다 △발우공양 정신을 생활화하여 음식쓰레기를 줄인다 △재활용과 아껴쓰기, 나눠쓰기를 생활화하고 자원낭비를 최소화한다 등 5개항의 환경보존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불교사회복지회 노인보호센터 개원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가 자체 건물을 마련하고 주간보호센터를 개원하는등 지역복지의 새로운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복지회는 지난달 남구 이천동에 대지 134평의 조립식 패널건물 1동을 신축〈사진〉하고 단독주택 2동을 개조하여 시설을 완비한데 이어 7일 햇빛어르신 주간보호센터(소장 일경)를 개원, 낮동안 노인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실과 일상동작훈련실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심리·음악·미술치료, 선체조, 발반사요법,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무료. (053)476-6631

대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 경기도 사찰 관광상품화

### 연주암·흥국사 등 지정

경기도내에 있는 유명 사찰과 성지, 성전 등 종교시설이 관광자원으로 육성된다.

경기도가 관광상품화하는 대상은 사찰과 천주교·기독교 성지, 기념비 등으로 과천 연주암과 남양주 흥국사, 광주 천진암, 부천 소사천주교회, 안성 미리내성지, 화성 제암리교회와 두레교회 등이 선정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광자원으로 선정되는 종교시설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제주 연꽃모임 창립 10돌

교도소 교화사업을 펼쳐온 제주불교연꽃모임(회장 김진선)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2시부터 관음사 대웅전에서 제주발전기원 사경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의 법문과 정근, 탑돌이 등으로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 종인스님 자랑스런 충남인상

아산시 (사)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대표 종인스님(옥련암 주지)이 3일 '자랑스런 충남인상(사회봉사부문)'을 수상했다. 스님은 3억원의 사재를 들여 청소년육성발원과 청소년무료공부방,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어 청소년 인성교육에 힘써왔다. 김재경 기자

## 종단소식

### 조계종

**해인사 대장경 정대불사**

법보종찰 해인총림(주지 보광)은 13일 오후4시부터 14일 오전10시까지 제40회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정대불사는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화재나 액난으로부터 수호하려는 염원에 의해 시작된 불사로 경판을 정수리에 이고 의상조사의 법성게를 독송하며 법계도를 따라 행진하는 법성게요잡에서 절정을 이룬다. (0599)931-1001

**금산사 가사불사 회향식**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도영)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본말사 주지스님,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불사 회향식 및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한다. 특히 이날 수계법회는 사적지에 기록된 전통을 되살려 방등계단 위에 세운 특설계단에서 봉행된다.

### 태고종

**백령도 호국흑룡사 위문**

인천종무원(원장 대은스님) 산하 각 사찰 스님들과 교임, 신도 등 2백여명은 29일과 30일 양일간 백령도 내 해병흑룡부대 군법당인 호국흑룡사를 위문하고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점등식과 연등법회, 군장병 위문법회를 잇따라 봉행한다.

### 천태종

**문수사 16일 법당 상량식**

양양 문수사(주지 보광)는 16일 오전 10시 법당 상량식을 갖는다. 문수사는 5천여평의 대지위에 연건평 323평의 법당 및 요사채를 건립하고 있다. (0396)671-8889

**창원 원흥사 이전법회**

창원 원흥사(주지 유정)는 3일 경남 창원시 도계동 임시법당에서 이전법회를 봉행했다. 김종하 국회의원 등 지역인사와 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주지 유정스님은 "창원 봉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사찰 건립불사가 마무리 되어가니 전 사부대중이 더욱더 마음을 모아 불사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원홍사는 연건평 1천300여평 지하 1층 지상 4층규모로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관문사 유물전시관 개관**

서울 관문사(주지 운덕)는 27일 오전 10시 유물전시관 개관식을 갖는다. 관문사 3층에 위치한 유물전시관은 탱화, 불상, 목어 등 성보문화재와 도자기 등 1백여점이 상설 전시된다. (02)3460-5300

### 진각종

**'참회로 미래열자' 스승 강공**

종조 회당대종사의 창종정신을 기리고 스승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진기54년 춘기스승강공이 18~19일 성북구 총인원에서 종단 산하 전 스승 및 종립학교 정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스승강공의 주제는 '대 참회로써 미래를 열자'.

### 정토종

**금이암 아미타불 점안**

충남 연기군 금이암(주지 향림)은 9일 대법당에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미타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 선각종

**선각종 창종기념 법회**



대한불교 선각종 창종기념법회가 2일 광주 능인회 녹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무원장 정암스님은 사무총장에 억불암 주지 원보스님〈사진〉을, 비구니선원장에 자명사 명지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함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아봐타 코스
◐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선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 불교이해의 새 저서 】 한국 불교사에 처음으로 반야심경의 핵심을 밝혀낸 역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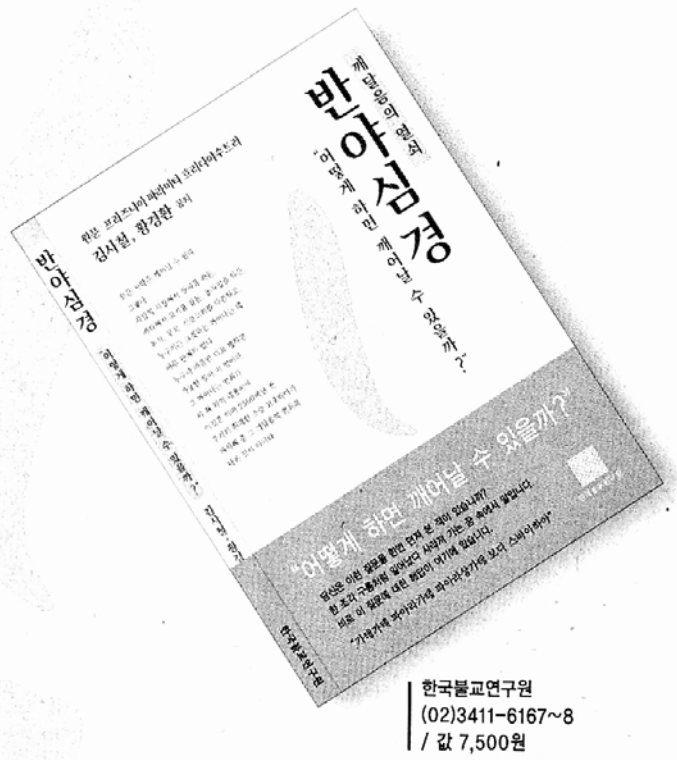
(원문:프라즈냐아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라)
한국 최초의 반야심경 원문 해설서 !!!
한국 불교사에 기록될 기념비적 업적 !!!

2,500여년 전 위대한 스승
고오타마가 제시해 준 그 올바른
깨달음의 열쇠 !

반야심경에는 중요한 핵심과 비밀이 있다.
그 핵심과 비밀을 한국 불교사에
처음으로 밝히는 다섯개의 짧은 만트라(주문)
"가테가테 파아라가테 파아상가테 보디 스바아하아"
그 핵심과 비밀을 이 책안에서 만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깨어날 수 있다.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바다에서 고기를 잡든,
농사일을 하든 유식, 무식,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이든 그것과는 깨어나는 데 아무 관계가 없다.
누구나 마음만 먹고 행하면 가능한 일이 이 일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시며 미국 휴즈사에서 21년간 원로 과학자로 지낸 김사철 박사와 한국불교연구원의 황경환 연구위원이 함께 한 반야심경의 새로운 세계!
실험과 증명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누구나 깨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한국불교연구원
(02)3411-6167~8
/ 값 7,500원

깨달음의 열쇠
반야심경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



## 사찰 납골시설 과 포교

# "죽으면 절에 간다"

〈글 싣는 순서〉
上. 화장 후 갈곳 없다
中. 시설운영 문제있다
下. 납골문화, 불교가 선도

### "화장은 불교전통장례법"
### 종단 납골전담기구 필요

충북 음성 한마음선원 금왕지원. 지난 93년 건립된 이곳 영탑시설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인기가 높다. 현재 세워져 있는 650여기중 일반인의 영탑만도 40%에 이른다.

서울 능인선원 납골당은 도심 한복판에서 조상을 추모하고 신행생활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불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다. 장성 백양사와 부천 석왕사의 납골당도 이같은 이유로 지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모범사례는 사찰 납골시설이 우리 화장·납골문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가늠케 해준다. 전문가들은 불교가 우리나라 화장·납골문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화장이 불교의 전통장례법이라는 교리적 측면도 그렇지만 보유납골시설 수나 시설설치의 용이성 등 가능성면에서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때 분명 앞서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장례문화학과 강의를 맡고 있는 정각스님은 "납골문화 선도는 사후(死後)문제까지도 불교를 통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후복지'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화장과 제례, 우리문화의 풍토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종단의 관심과 체계가 갖춰지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박복순 사무총장도 "불교가 일반인들도 사찰 납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기만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며 불교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두 사람은 화장률이 97%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죽으면 절에 간다'는 말이 등식처럼 성립돼 있고, 화장 후 상당수가 사찰 납골당이나 납골묘에 안치되고 있다는 실례도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견해는 시대적으로 화장·납골문화가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4일 작고한 동국제강 장상태 명예회장이 화장과 납골안치를 유언으로 남겼듯이 사회지도층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는데다, 내년 1월부터 시한부매장제가 도입돼 묘지허용이 60년까지로 제한되고, 묘지면적도 개인 9평, 집단 3평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미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납골문화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종교계에서 납골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불교의 비중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불교가 개별 사찰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전담기구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인데 반해 타종교는 최근 교단이나 교구차원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 활동에 나서고 있다.

원불교는 화장장묘문화개선운동과 함께 1만2천기를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시설의 납골당을 운영하는 등 교단차원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계도 지난해부터 화장이 비성서적이 아니라는 신학자들의 발표와 장묘개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신교의 성공회와 장로회가 납골시설을 갖추고 교단차원에서 화장장려운동본부와 국민장묘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천주교도 서울대교구의 경우 대규모 납골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각 교구별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중인 혜공스님(보륜정사 주지)은 "이제는 범종단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납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가 한 발 더 앞서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포교기반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재가불자들 무문관 면벽수행

## 도봉산 천축사 '상설시민선방' 운영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시민선방에서 화두삼매에 든 불자들.

'이 자리에서 깨치지 못한다면 일어서지 않으리라.'

1일 도봉산 중턱 천축사 무문관(無門關, 2층 84평 규모).

부처님의 6년 고행을 본받아 65년부터 79년까지 매회 6년간 현대의 고승들이 밖에서 문을 자물쇠로 걸고 면벽수행 했던 용맹정진의 상징과도 같은 무문관에 '절구통 수좌들'이 21년만에 다시 나타났다. 비록 머리카락은 길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재가 불자들의 몸이지만 깨침의 각오는 옛 선지식들의 화두일념과 다를 바 없었다.

서울 중랑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병두(47, 조계종 포교사)씨를 비롯한 거사 6명과 이태원에서 패션업체를 운영하는 서부자(57)씨 등 6명의 보살, 입승 지우스님(중앙승가대 3년)등 스님 2명은 출·재가를 따나 하나 같이 본래면목을 보기 위해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다. 무문관이 21년만에 상설 개방형 시민선방으로 개방되어 매주말 열리는 철야정진에 첫 방부를 들인 '선객'들이다.

일단 선방에 들어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산란하지 않으며, 나와 남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다' 등 다섯 가지 서약을 하고, 묵언 금연 불음주 외출금지 등 10가지 선원청규를 지켜야 한다.

숨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청정한 이 참선도량에 들어서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바짝 드는 것은 왜일까. 관응 도천 관묵 천장 도영 경산 석영 현구 무불 원공 스님 등 고승들의 정진력이 아직도 이 도량을 감싸고 있는 것일까.

서울 도심에서 멀지도 않고 경치 좋고 공기 맑은 이 곳에서 화두 삼매에 들 수 있다는 것은 여간한 인연공덕이 아니고서는 힘들다는 생각에 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허리를 곧추 편다.

주지 현공스님은 "당대의 선지식들이 본분사를 찾던 곳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안타까워 무문관을 다시 열게 됐다"면서 "물질문명에 휩쓸려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산사에서 고승들의 체취를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불은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축사는 좌선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해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대웅전에서 철야 기도정진도 하고 있다. 여기에도 보통 10~15명의 불자들이 찾아오는데 대부분 보살들이다. 철야정진은 금강경 독송, 좌선, 천수경, 관음정근, 참회기도, 신중기도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02)954-1474

김재경 기자

## 문화부 '표준수화규범' 제정키로

# "불교수화 통일 서둘러야"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일 문화관광부가 올해부터 2006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10억원을 투입해 '한국표준수화규범'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표현방식이 서로 다른 일부 불교수화의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작업이 대부분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한국농아인협회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여 타종교에 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불교수화를 표준수화규범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수화 마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불교수화는 덕신스님(조계사 장애인포교회장)과 해성스님(광림사 연화복지학원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쪽과 부산의 강주수씨(부산 춘해대학 강사)가 각기 다른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일례로 '불교'라는 용어에 대해 해성스님은 목탁+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강주수씨는 양손가락을 벌려 둥글게 큰 공을 쥔 듯이 하여 손바닥이 마주보게 하고 손가락이 위를 향하게 하여 서로 손가락을 붙이는 형식을 취하는 등 내용이 다르다.

이밖에 '연꽃' '예불' '불도' '법문' 등 양측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불교용어는 20개가 넘으며, 덕신스님과 해성스님 간에도 10여개 이상의 용어가 표현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3자간의 협의는 단절돼 있고, 포교원은 "내년부터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느긋한 입장이다.

다만 두 스님과 강씨는 "이번 문화관광부의 발표에 따라 불교수화의 통일이 시급하게 됐다"며 수화발표회나 공청회 등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명우 기자

## 뉴스 & 뉴스

### 해군 해웅사 법당 낙성

해군 2함대 사령부 해웅사는 최근 군부대를 이전하고 새 법당을 건축해 3월31일 법당 낙성 기념법회를 열었다.

낙성 법회에는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 해군 제 2함대 사령부 남해일 사령관, 군불자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새 법당은 6백여명이 함께 법회를 볼 수 있는 120여평의 대웅전을 비롯해 40여평의 대중식당과 요사채를 갖추고 있다. 강지연 기자

### 관문사 거사회 창립

천태종 서울 관문사 거사회가 9일 창립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관문사 부주지 춘광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법회에서 초대회장에 최인영씨(주 상미축산 회장)가 선출됐다. 관문사 거사회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정기법회를 열고 정기산행으로 친목을 쌓는 등 회원배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경숙 기자

### 불교활동 연구비 지원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광서)는 22일까지 '21세기 한국불교혁신의 과제'를 연구주제로 불교활동 연구지원비 신청을 받는다.

응모자는 신청서 1부, 추천서 1부, 연구계획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02)725-6231~2 김재경 기자

## 조계사, 새벽5시부터 종무서비스

"종무원들이 새벽같이 나와 애쓰니까 신도들이 한결 편리해졌어요. 또 서로가 가까워진것 같고 인정도 느껴지고요."

10년째 조계사 새벽기도를 다닌 윤신덕행 보살(50)은 새벽 5시부터 나와 종무소임을 보고 있는 종무원들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지난 1년간 거듭나려고 노력해 온 조계사에 종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다.

3월부터 소임자 스님 4명과 종무원 18명은 돌아가면서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평일엔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새벽엔 한창 어둠이 깔려있는 시간대인 5시부터 각종 종무서비스와 신행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조계사 홍보담당 하정혜씨는 "이번 당직제도는 신도들의 편의를 돕고 최고의 종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종무원들의 자발적인 결의에 의해 실시된 것"이라며 "신도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해 당직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 불교-원불교-천주교 여성성직자 60명 모임

# 부산에도 '삼소회'

부산에도 삼소회(三笑會)가 발족돼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 성직자들의 큰웃음으로 세상을 밝히게 됐다.

3.1절 온겨레손잡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계기로 처음 모인 비구니, 정녀, 수녀들은 3월 27일 원불교 부산 교구청에서 만나 지속적인 교류와 활동을 갖기로 했다.

이어 3개 종단에서 각 20명씩 참가해 60명으로 구성된 삼소회는 지난 2일에는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원불교 대법회(사진)에서 '축하의 노래' '선구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불러 감동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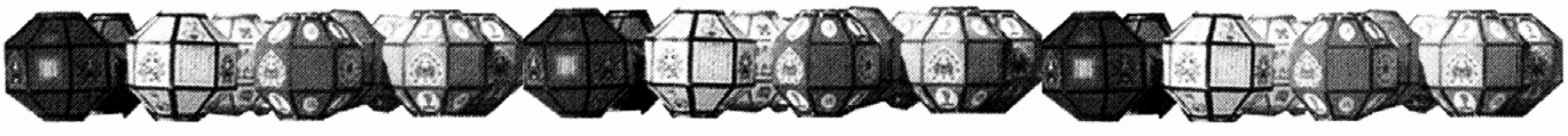


삼소회는 앞으로 매년 의미 있는 공연에 1회 이상 참가하고 오는 5월경 시민단체 등과 연계 환경운동,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 732-1522(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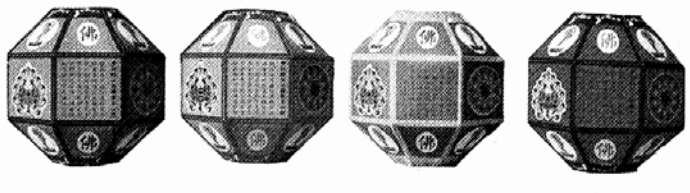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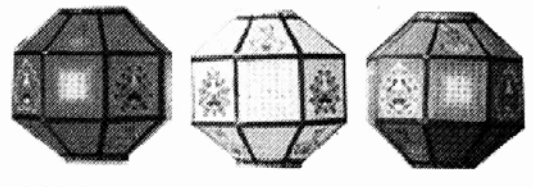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이름표〉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비에 젖지 않습니다.

###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이름표〉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비에 젖지 않습니다.

프리즘정보시스템(주)
Prism Information System

현대불교신문사(주)
THE HYUNDAE BULKYO

프리즘정보시스템(주)
Prism Information System

# "Mobile Network 불교정보서비스의 시대"가 열립니다!



휴대용 무선 인터넷 단말기

무선인터넷은 전화선이나 전용선 등의 유선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인터넷과 대별되는 것으로 선이 없이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정보검색, 전자메일 송수신, 쇼핑 등 기존의 유선상에서 서비스 되던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고객의 정보요구를 무선 통신사를 통하여 정보서비스시스템(컨텐츠)에 연결,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전송 받는것을 말합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프리즘정보시스템은 불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용 무선인터넷 단말기로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쇼핑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네트워크 불교정보를 5월 시범 서비스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첨단화, 세계화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큰스님이 계신 사찰을 찾아 법문을 듣는 것과 동일한 마음의 안식처를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를 통하여 만나 보십시오.

모바일 불교정보 서비스는 불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